

1023

1971 71/10/21/22/23/24

서로의 기습이

소망을 품는 기활이 되길..

제7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윤 해 선

92년 서여대협은 보은, 진관이를 통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사회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은 학우들, 국민들과 나누었습니다. 92년 말, 윤금이 누이의 죽음은 여학우들로 하여금 우리땅에 우방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주한 미군을 분노로 바라보게 하였고, 올 6월에 일어난 김 국혜씨 사건은 주한 미군 범죄가 한국 여성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동떨어진 문제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갈라놓고도 안보를 위해서라며 군대를 파견하고, 한국 여성들에 대한 폭행에도 그저 눈감아버린 나라가 미국이요, 퇴폐문화를 퍼뜨림으로써 매춘을 확대시키고 성폭력이 범람하게 하여 한국 여성들을 위협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7월 10일에 클린턴이 한국에 왔다가면,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 예측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미국이 만들어낸 피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활대원 여러분!!

기활기간 동안 짧더라도, 나의 삶과 조국의 운명, 기지촌 매춘 여성의 삶에 대한 많은 고민을,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힘차게 기활을 수행하고 다니오시는 그 길에 가슴 가득 식민지 여성이 자주적 삶을 쟁취하기 위해 쫓아야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안고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여대협 기활을 한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는 기활추진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기활 떠나는 여러분의 건강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기지촌 여성과 함께 믿음과 애정을 기우는 기활을

서여대협 기지촌활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임 성 진

기활을 가려고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서울지역의 여학우들은 기지촌 여성 윤금이 누이의 죽음을 결코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습니
다. 이 땅의 여성들을 죽인 자, 죽이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았기에 그들에 대한 사
투쟁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힘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에 대한 사
랑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학우들의 마음 위에서 올 여름 제 1기 '서여대협 기지촌활동 추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제 2기 기지촌 활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준비하고 활동하려 했지만, 아직 1살밖에 안 된 '서여대협 기지
촌활동 추진위원회'라서 여러가지 한계와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여름 서여대협을, 기지촌활동을 좀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
혜를 모아봅시다.

특히 올해 처음 함께 하게 된 다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에 가시는 여러분, 하나씩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 곳 분들과 믿음과 애정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서로의 얼굴들은 잘 모르는 사이지만, 올 여름에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함께 느끼려 하는
우리이기에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면
서 잘 해보자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맘이 소중한 만큼 기활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학교 총여학생회가, 서여대협이
얻는 성과도 소중한 것입니다.

기지촌활동 열심히 하시구요, 평가 모꼬지때 기쁜 얼굴로 만났으면 해요.

■격려의 말	1
■인사말	2
■일정	5
■기활에 임하는 자세	10
「 기활을 주체와 주체의 만남으로 만듭시다. 」	
■93년 기활의 의의와 방향성	12
「 배우는 기활, 믿음을주는 기활, 개척하는 기활, 자주종일로 나아가는 기활 」	

■기지촌의 조국

■기지촌의 실태	17
■우리 땅을 침범한 미군기지	27
1.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용산 미군기지	
2. 대북 선제공격대, 한국인 폭행부대 의정부, 동두천 미 제2사단	
3. 시민의 눈총받는 부산 미군기지	
4. 주한 미 7공군과 한국 민중들-송탄, 군산	
■두레방에서 만난 여성들	50
1.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2. 어느 곳에 살아도 나는 한국 여자	
3. 외로워도 곳곳하게	
■두레방에서 만난 아이들	55
1. 두레놀이방의 하루	
2. 평화와 정의의 일꾼을 키운다	

■공부해 봅시다. --- 한국사회의 매미춘

1. 들어가며 ----- 57
2. 한국사회 매미춘의 실태
3. 한국사회 매미춘의 원인
4. 매미춘, 어떻게 없앨 것인가

- ## ■활동은 이렇게
1. 놀이방, 공부방 ----- 87
 2. 클럽방은
 3. 기지방은
 4. 지역조사

- ## ■기활대 운영은 이렇게
- 「 함께 만들어가는 기행 」 ----- 104

- ## ■지역단체 소개
1. 의정부 --송산 두레방 ----- 107
 2. 동두천 --동두천 두레방, 다비타의 집
 3. 용산 --막달레나의 집

- ## ■제안
- 「태초를 땅, 우리의 땅,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 ----- 117

- ## ■자료
1. 공개서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25
 2. 김국혜씨 폭행사건 --김국혜씨 폭행사건의 개요 ----- 129
 - 주한미군의 김국혜씨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3. 유계혜씨 실종사건 --유계혜씨 실종사건의 개요 ----- 133

- ## ■함께 불러봅시다
- 138

- ## ■편집후기
-

'93 제2기 서여대협 기지촌 활동 일정

의정부 두레방 (월 ~ 금) 5명	동두천 두레방 (월 ~ 금) 5명	다비타의 집 (월 ~ 일) 10명	막달레나의 집 배론 글방 (월 ~ 금) 8명
7/5 ~		시립대	한성대, 고려대
7/12 ~	연세대	연세대	이화여대
7/19 ~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7/26 ~	홍익대	서경대	건국대, 국민대
8/2 ~	한양대	한양대	강운대, 성균관대
			송실대, 단국대, 성공회신학대, 서울대

7월 12일 (월) : 서지, 남지 기활학교 (장소 : 연세대)

7월 19일 (월) : 동지, 북지 기활학교 (장소 : 미정)

7월 22일 (목) : 서지 기지촌 하루 방문

8월 5일 (목) : 동지 기지촌 하루 방문

8월 7-8일 (토, 일) : 두레방 실무자들과 함께 하는 전체 정리 모꼬지

9월 25일 : 기지촌 활동 수기 모집 마감

10월 28일 : 윤금이씨 1주기 추도식과 함께 기지촌 수기 공모 시상식

의정부, 동두천 두레방

	월	화	수(숙박)	목(숙박)	금
06:00				기상, 운동 (지역조사 5:00)	기상, 운동
08:30				아침식사, 청소	
09:20	의정부에서 조회(하루점검)			두레방에서 조회	
10:00	출근				
10:00	회원들과 차 마시는 시간 - 차 준비				
10:30	놀이방, 간식, 공동식사 준비				
13:00	공동식사 (빵만들기 돕기)				
14:00	놀이방, 공부방 프로그램 준비				
15:00	공부방				
18:00	평가	저녁식사			
19:00	퇴근	부대 방문	비디오 보기	기활전체평가	
			클럽 방문		
21:00		토론,평가,일지 내일 활동 준비	토론,평가,일지 내일 활동 준비	서울로 출발	
		취침			

* 회원집 방문은 가능한 시간에 넣읍시다.

* 동두천 기활대는 7/22, 8/5 19:00-21:00는 기지촌 하루방문 온 학우들과 함께.

다비타의 집

*월 - 일 숙식하는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5:00		기상, 지역조사, 운동, 예배, 아침식사					
09:00	도착,인사	조회(하루계획 점검), 놀이방 준비					
10:00	놀이방, 부업 돕기, 점심식사 준비						13:00 목사님과 평가
18:00	저녁식사						
19:00	부업돕기 오리엔 테이션	쫓불 기도회	동두천 지역 공부	매매춘 공부	클럽 방문	성교육	15:00 서울로 출발
21:00	평가, 일지쓰기, 내일 준비						
	취침						

* 7/22, 8/5 19:00 - 21:00 는 기지촌 하루방문 학우들과 함께.

* 밤 프로그램은 전우섭 목사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제안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숙식이 힘들거나 팀 자체 일정을 잡아야 할 경우, 동두천 지역 단체 분들을 만나볼 경우 등은 목사님과 이야기하여 조정하도록 합시다.

* 일요일에 놀이방을 몇 시까지 해야하는지 목사님과 협의해야 합니다.

막달레나의 집

	1 주	2 주	3 주	4 주
09:00	조회 (하루 계획 점검), 공부방 준비			
10:00	배론글방에서 공부방 운영, 막달레나의 집에서 사무보조, (자세한 일정은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약속해서 잡읍시다.)			
21:00	평가	평가	클럽방문	평가
22:30			토론, 평가	

- * 7/12 -18 사이에 미리 배론 글방을 방문해서 그 곳 선생님에게서 이야기 듣고 인사드립니다.
 - * 캠프에 꼭 참가합니다.
 - 7/17 - 18 국민학생 캠프 (강촌)
 - 7/23 - 26 배론글방, 막달레나의 집 캠프 (연국 해수욕장)
 - 8/21-22 교사 캠프
 - * 주 1회 정도는 따로 기활대 모임을 해서
 - # 비디오 보고 토론하기
 - # 지역단체와 만남 (용산지역, 미군기지 이전 운동에 대해)
 - # 지역조사 (용산역 주변, 이태원)
- 를 하도록 합니다.

기지촌 하루방문

다른 일이 있어서, 또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른 친구에게 기활을 양보해서 기지촌 활동을 가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은 관계로 기지촌 하루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기지촌 하루 방문은 지구 차원으로 하게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에 출발

- >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보기
- > 동두천에 와서 지역단체 분들과 만남
- > 클럽방문, 기지방문
- > 동두천 기활대원들과 만남
- > 서울로

7/22(서지), 8/5(동지) 두 차례 있습니다.

기활 학교

기지촌 활동 대원들은 모두 참가해야하며, 기지촌 하루 방문에 참가할 학우들도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미리 알지못하고 가면 그만큼 얻는 것이 적을 수 밖에 없거든요!

기활학교는 7/12(서지, 남지), 7/19(동지, 북지) 두 차례 있습니다.

7/12 기활학교의 내용

- #비디오 상영: 아시아에서 여성이 산다는 것
- #강연: 기지촌은 어떤 곳인가 --두레방
- #발제: 한국 사회의 매매춘 --기활추진위 기획실
- #만남: 각 지역 단체분들과 함께

기회를 주체와 주체의 만남으로 만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지촌 활동이 기지촌 민중과 청년학생들 모두에게 주체와 주체의 만남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나서는 '다른사람'이라 생각하며 동정차원에서 바라보거나 경원시 해서는 안됩니다.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거나 가르치려 해도 안됩니다.

기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지촌 여성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최대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지촌 활동이 주체와 주체의 만남으로 되기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1. 기지촌 여성은 이 땅에서 가장 고통 받으며,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생활을 하는 민중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회의 역사도 짧고 아직은 기회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활동은 아니며 기회에 참여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조금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학생들이 벌여왔던 민중연대사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중입니다. 또한 폐배의식과 체념, 세상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지금 당장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역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이 변화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민중입니다. 민중의 고통을 생활 속에서 내 일처럼 느끼고, 민중의 숨겨진 변화의지를 생활 속에서 발견하면서 희망을 찾는 것이 민중연대 사업입니다. 원가 나가는 많이 다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버리고, 기지촌 여성으로 살아가며 겪는 아픔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해 봅시다.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요구를 최대한 찾아보고 기지촌 여성들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해 봅시다.

2. 기지촌 여성과의 만남에서 조금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누구나가 기지촌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기대를 하게 갖게됩니다. 하지만 기지촌 여성과 여학생 연대는 것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기지촌 - 매춘 지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못본척 해온 곳이기에 여성들 역시 개방적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도 전에 조금하게 그들의 살아온 얘기나 현재의 생활에 대해 묻게 되면 여성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자세, 그들의 생활속에서 하나씩 그들을 알아나가려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합니다.

일주일 간의 활동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조금하게 생각해서는 성과적인 기회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성들과 이야기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기회를 마무리하게 되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고되게 놀이방,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뒤엉켜서 하루 이를 지내다보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기회를 왔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기지촌 여성과 학생 사이의 연대수준입니다. 나는 비록 여성들과 이야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도 나의 활동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이 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차차 학생들과 말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역시 의미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지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준에서도 기지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어머니인 여성들의 생활을 간접적이거나 알 수 있습니다. '고작 이런 수준이야'하는 생각보다 '이 수준에서도 최대한 많은 것을 느끼고 가자'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3. 기지촌 단체 실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항상 긴장된 자세를 잊지 말고 또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합니다.

기회 전에 현장 실무자들에게서 받는 교양에서 듣게 될 기지촌 여성들이나 주민들을 만날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성들이 차이를 느낄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든가, '그냥 스쳐가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란 생각이 들게 활동에 불성실하면 안됩니다. 한 사람의 큰 실수가 전체 기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상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들어간 곳에는 무조건 학생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우선 그곳의 관례와 방식에 따른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곳 주민들의 분위기를 취하여 놓아서는 안됩니다. 여성들과 대화할 때 항상 긴장된 자세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화해서는 가까워지기가 힘이 듭니다. 서로 친밀감, 일체감을 느낄수 있는 이야기 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합니다. 또 자신의 활동이 기지촌 여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한다면, 여성들과 직접 이야기를 많이해서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그들이 드러내놓지 않더라도 기지촌 여성들은 건강하고 순수한 청년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변화합니다.

4. 기회 사전준비 활동에서 본활동까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활동들이 아직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지촌 여성들을 묶어내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창조적인 활동들이 오히려 그 단체에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기지촌 단체들의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93년 기회의 수위를 높이도록 합니다.

배우는 기활, 믿음주는 기활, 계척하는 기활,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기활

1. 제2기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며

90.91년 몇몇 학교에서, 92년을 거치면서 서여대협 차원에서 9개 학교에서 진행했던 기지촌 활동은 각 학교 총여학생회, 서여대협 사업에서 큰 획을 그었습니다. 비록 각 학교에서 많으면 10명정도 밖에 참가할 수 없는 활동이었지만 기활대원들이 기지촌 여성들을 직접 만나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고 미국의 실제, 미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 민중 여성들의 삶의 고달픔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이 경험은 이들의 삶에 큰 여파를 던져주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수의 학우들이 무척이나 진지하게 기활을 가겠다고 나섰고, 이들은 기활을 다녀와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기활을 하면서 우리 민족 여성 문제에 관심있는 진지한 학우들이 모이고 서로 친해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서여대협 역시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서여대협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93년 기활 준비는 예년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금이 누이 살해 미군 처벌 투쟁의 성과로써 기지촌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학우들이 꽤 많이 생겨났고 서여대협 각 학교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2년까지는 기활을 맡아들이고 학생들과 일상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온 곳이 두레방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금이씨 투쟁을 계속 해온 성과로써 다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 등 기지촌 -매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동두천 민주 시민회, 대학생회 등과 학생들의 연대가 발전하는데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월 초 서여대협 기지촌 활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지 의장님) 임성진 언세대 총여학생회장님)가 만들어졌고, 기활추진위는 92년 제1기 기활을 평가하면서 다음의 문제의식을 모아 기활을 준비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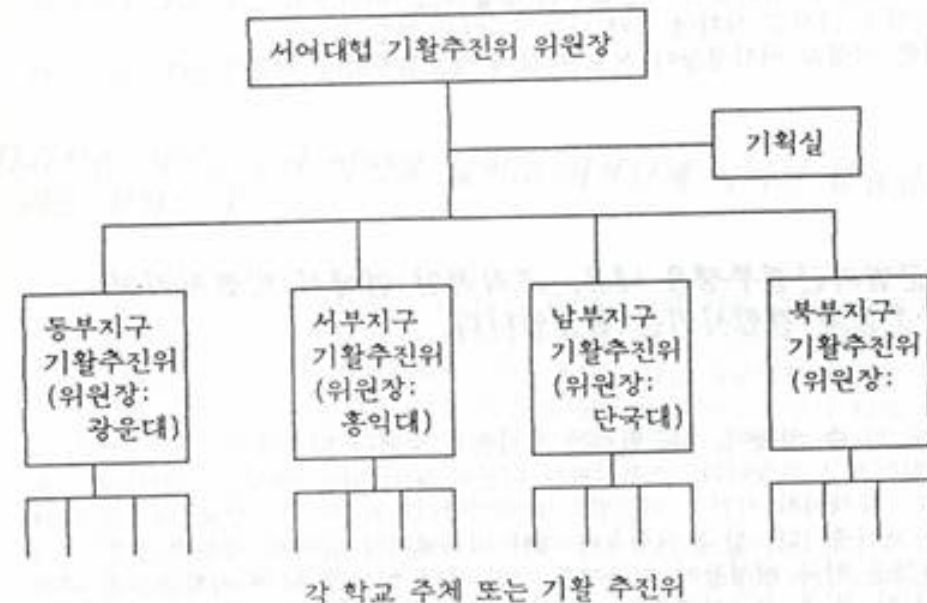
* 제 1 기 기지촌 활동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

- 1) 두레방과 서여대협의 조직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레방의 책임자가 불명확하여 논의가 따로따로 진행되고 사전 논의와 실제 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2) 학교별로 기활을 준비하는 것이 방학 들어서서 진행되어 대중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
- 3) 사전교양이 학교별로 따로따로 진행되어 교양수준이 다양했고 통일적이지 못했다. 사전교양이 조금은 추상적.
- 4) 본활동이 다양하지 못하여 많은 학우들이 참가할 수 없었고 두레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서 참가하지 못했다.
- 5) 후원회 조직 등 이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제 2 기 기활을 준비하는 문제의식

- 1) 두레방 이외에도 다른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기활의 틀을 넓힌다.
- 2) 각 학교에서 대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기활의 성과를 총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로 남긴다.
- 3) 서여대협 차원에서 사전교양, 활동내용을 각 학교와 함께 준비하여 기활의 흐름을 통일시킨다.
- 4) 이후 진행될 윤금이씨 살해미군 처벌투쟁의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마련한다.

* 기활추진위원회 구성체계



두달여에 걸친 준비 사업의 결과로 이번 기지촌 활동은 예년과 달리 두레방 뿐만 아니라 동두천 다비타의 집, 용산 막달레나의 집에도 가게 되었고, 특히 막달레나의 집은 한국 남성을 상대로 하는 매춘 여성들의 쉼터입니다.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활대원의 수도 늘어서 17개 학교 140여명의 대원이 참가하게 되었고, 본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지촌 하루 방문을 두번에 걸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준비를 함께 하고 서여대협 차원으로 그 흐름이 모아지게 하기 위하여 기활 학교를 두번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활 대원 한사람 한사람이 기활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많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후속활동을 벌이자는 생각 아래 기지촌 활동 수기 공모전을 하기로 하였고, 범민족대회 때 기활의 경험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올해 여름 기지촌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 방향성 속에서 기활을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 하면서 활동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2. 93년 여름 기지촌 활동의 의미

1) 청년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변화를 주고, 사랑과 믿음을 쌓아가는 활동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생활 자체를 함께 하면서 기지촌 민중들,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군기지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곳 주민들, 기지촌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 그 속에서 사그라들어가는 민족의 모습, 짓밟히는 우리 누이들의 삶, 이런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자리입니다. 이 여성들의 삶을 남의 일 보듯이 옆으로 치워두지 않고 한 민족 여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과는 윤금이 누이 살해 미군 처벌 투쟁과 여름 반미조국통일투쟁 속에서 많은 학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열심히 민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 얻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지촌 여성들 또한 건강하고 자주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폐쇄적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며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활은 기지촌 여성과 여학생들이 서로의 삶에 상호침투하여 서로를 변화 발전시키는 활동입니다.

2) 여학우들의 미군범죄근절투쟁을 내용, 조직적인 면에서 발전시키며, 여름 자주통일 운동과 결합시키는 활동입니다.

김국혜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범죄는 기지촌을 벗어나 미군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스무살짜리 미군이 50이 넘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들 정도로 반인륜적이고요. 유계혜씨 사건은 미군범죄가 이억만리까지 가서도 한국 여성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 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우리에게 '윤금이 누이 투쟁을 한국 여성들이 미군에게 강간, 살해 당하게 되는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금이 누이 투쟁에서 기지촌 여성의 문제가 많이 알려지지 못한게 사실인데, 기활은 그 투쟁의 성과를 이어 받아서 그 속에서 관심이 높아진 학우들과 집단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기지촌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윤금이 누이 투쟁과 미군 범죄 근절 투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하듯 7.8월 케네스 마를 항소심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주한미군범죄근절 대책 기구 건설 결의를 모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올해 여학우들이 자주, 통일에 대한 조망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실천적 경험은 윤금이 누이 사건입니다. 용산 막달레나의 집 활동이 포함된 이번 기활은 미국으로부터 민족 자주권을 세워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일반적인 의미 외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매매춘 문제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외세의 영향 속에서 생겨나고 악화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전 국토가 기지촌 아닌 기지촌으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을 알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세에 경제명맥이 쥐여있는 상황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향락산업 급증현상, 외세로부터 무절제하게 유입되는 향락문화, 외세 때문에 민주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수천년 내려온 이중적 성의식, 우리 사회 매매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나고, 이런 현상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한 미군 철수에 따르는 기지촌 해체도 기지촌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가져 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학우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성폭력 역시 향락 산업, 향락 문화, 이중적 성의식, 정부의 무대책이 계속 된다면 결코 뿌리 뽑힐 수 없으니, 이 땅이 기지촌에서 벗어나야만 기지촌 여성, 매매춘여성, 성폭력에 위협당하는 여학생을 포함한 여학우들의 삶이 비로소 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여성들, 우리 여학생 스스로의 삶에 미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는 자리인 기지촌 활동은 93년 여학우들의 자주통일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실천이 됩니다.

3) 각단위 여학생회, 서여대협이 여학우들의 조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활동입니다.

올 상반기 여학생회, 서여대협은 윤금이 누이 살해미군에 대한 여학우들의 분노와 실천을 모아나가는 구심점으로 자리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서 여학우들이 쉽게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여학우들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4) 기지촌 지역운동의 기반을 넓히고 지역단체 사이의 통일성을 높여나가는 장입니다.

기지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고립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기지촌에 모여드는 사람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며 기지촌에 들어와서도 기생적인 경제구조와 퇴폐문화로 인해 굴절된 삶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활은 고통받는 기지촌 민중들, 특히 여성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기지촌 지역 단체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으나마 도움을 주는 뜻깊은 활동입니다.

또, 기활은 활동가운데 지역조사등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지촌 단체가 기지촌 여성들 뿐만 아니라 기지촌 지역 주민들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기활은 기지촌 운동을 하는 지역 단체 사이의 통일성을 높여 나가는 장입니다. 현재 두레방을 포함해서 기지촌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실무자들의 관점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교류도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단체일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지역단체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가지 일에 힘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에 대해 현실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높은 사회의식과 참신한 사고력,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군데의 단체에 기활을 나가는 관계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쉽게 교류되어 기지촌 지역 단체들의 사업방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통일되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도 높게 됩니다.

학생들은 지역 단체분들로부터 대중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힘과 건강함을 배우고, 학생들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기지촌 지역단체 실무자들도 기지촌 운동의 방향을 좀더 폭넓고 새롭게 생각해보고 각 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역 단체 실무자들과 기지촌 활동을 함께 평가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5) 기활은 기지촌의 지역단체와 학생과의 일상연대 사업의 단초를 마련하는 장입니다.

기활은 방학에 잠깐하고 그치는 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연대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조직 강화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92년 연세대학교 화학과에서는 기활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 과에서 후원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으며, 과 후원회원들이 두레방방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대 총학생회에에서는 기활에 참여한 후 학교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두레방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고, 그렇게 모집된 자원 활동가들이 꾸준히 두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 기활은 기지촌 운동의 활동가를 배출하는 장입니다.

현재 두레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 모두가 기활에 참여한 후 자신들의 전망을 기지촌 여성운동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기활에 참여하는 고학번 여학우들은 자신의 전망과 기지촌 여성 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3. 이번 기활은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1)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기활이 되도록 합시다.

올해에는 다비타의 집, 막달레나의 집에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놀이방, 공부방, 클럽 방문, 기지 방문, 지역조사, 부업 돌기등 각각의 프로그램이 알차게 채워질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2) 미국이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세워 나갑시다.

막달레나의 집 활동은 이후 장기적으로 기지촌 활동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앞으로 기지촌 활동이 다른 매매촌 지역 활동까지 확대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지촌과 일반 매매촌 지역, 기지촌 여성과 일반 매매촌 여성 사이의 관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기지촌에서 일반 매매촌까지 우리사회 매매촌 문제를 미국의 영향 아래에서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정립,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 조사가 무척 필요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학우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관점을 세워 나갑시다.

3) 미군 범죄 근절 운동, 자주 통일 운동과 연계하여 진행합시다.

미군범죄 근절,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어 내는 힘은 민족 대단결에 있습니다.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단결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명분이 남북을 이간질 시켜 놓은 상황에서 남한 민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이 함께 서로를 인정하는 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민족이 하나라는 의식에 힘써일때 미군 주둔 명분은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지촌에 대한 관심에서 미군 범죄 근절, 주한 미군 철수의 요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 요구는 당연히 민족 대단결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등 유럽의 군나 기지는 몇 십개씩 한꺼번에 없애면서 한국에서는 북한 핵 위협을 운운하면서 고작 두개의 작은 기지를 없애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민족이 함께 제어하지 않을때 미군 철수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지촌 여성의 삶도 결코 좋아질 수 없고, 매매촌 여성들, 여학생들의 삶도 계속 위협에 처합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남북 정부에게 민족 대단결 원칙을 견지하여 미군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자는 요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4) 후속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활동을 벌입니다.

지속적인 연대는 연대활동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속 활동에 대한 선배들의 경험을 계승해 두레방 후원회 또는, 지속적인 자원 봉사 활동등을 창조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기지촌의 실태

1. 들어가면서

본단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 하는 것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대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본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미국 군대가 급수강산 방방곡곡에 그들의 군화발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헤아린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또하나의 고통일 뿐이다. 더구나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남쪽에 부력으로 강점하면서 미치게 되는 총체적 영향에서 구체적 원인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미군 기지가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미군기지는 미군 기지의 구체적 실체이다.

기지란 단순한 군대와 군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과 지역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군사력의 실체로서 자국의 이해를 실현 해내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의 기지는 식민지 민족의 대중운동을 진압하며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의 반혁명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 45,000여명의 주한 미군은 미국의 남한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 지점이다. 이러한 미군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180여개가 넘는 지역을 근거로 우리 민족의 의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군사적 고려속에서 지역의 일상적 삶을 질곡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80여개의 기지가 있으며 46,000여의 군인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0개가 지상군 기지이며 공군이 18개, 해군이 2개이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의 총 면적은 약 5천만평으로 한국군 사용 기지면적의 약 2억5천만평의 20%에 달하고 있다. 미군 주둔 비용은 연 28억 달러이다. 이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의 주한미군 편성 현황은 주둔군을 중심으로 주변에 번성하는 기지촌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주한 미군 부대 주변의 대표적 기지촌은 서울 중심부에 자리잡은 이태원, 동두천, 그 밖에도 의정부, 군산, 송정리, 대구, 송탄을 들 수 있다.

미군기지는 온갖 폭력과 성범죄의 온상으로 화한지 오래이며 양국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상징이다.

또한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기지 주변지역은 건축제한에 묶이는 지역 주민의 불이익과 핵무기 배치, 주민 살상, AIDS 전염의 전원지이다. 미군기지는 굴욕과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2. 기지촌 때문에 생기는 문제

1) 지역상황

토요일 밤이 깊어지면 이태원 일대에는 반드시 미군들 사이에 혹은 미군과 한국인 간에 패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했던 한 카슈사는 "경찰들도 미군들의 행패에 질려 반미 민족주의자가 될 정도"라면서 "미군들을 지켜보는 용산주민들이야 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높은 반미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주한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기지촌 미군들의 새로운 수요창출 때문에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여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 수십만명이 모여 살아가는데, 그곳 주민들은 미군을 통해 이식되는 퇴폐적인 양키 저질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분식당한 채 자녀교육은 물론,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실례로 기지촌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생업때문에 어쩔수 없이 남아있게 되지만 자녀들도 거의 서울등의 도심지로 유학(?)을 보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만 보더라도 기지촌 주변환경은 물론 그곳에 자리잡은 지역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인지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런 지역문화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군에 의해 일반인, 매춘여성, 부녀자, 아동의 성폭행, 폭행, 그리고 미군에게 의존하는 상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처벌의 권리는 한국에 없는 것이다. 굴욕받고 억압받는 우리 민중의 아픔을 막아주는 정부는 우리 민중에게 없다. 이러한 기지촌의 아픔은 우리 민중 스스로 없애 나가야 한다.

기지촌의 대명사 동두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주둔군의 숫자를 보더라도 매춘 여성을 중심으로 한 기지촌의 규모는 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쉽다. 주둔군의

증감에 따라 양공주(매춘여성)의 숫자는 민감하게 변한다. 따라서 기지촌 주변의 인구밀도는 다른 일반도시의 인구밀도보다 매우 높다. 이것은 주한 미군의 존재가 매춘의 특수한 수요를 창출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두천은 다른 미군 주둔지와는 달리 지역 명칭 자체가 기지촌의 대용어로 쓰일 만큼 미군 의존적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두천은 미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도시로 발전하여 이곳의 시민 대부분은 상업,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두천의 시민들은 미국관계 유흥업소와 위락시설 유치에만 특혜를 주는 한정적 경제개발 정책 뿐만 아니라 시 승격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이나 시민공원등 문화적 사업이 전혀 행해지지 않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동두천에서 기지촌은 미군기지 정문이 있는 보산동과 후문의 광암동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옷가게, 클럽등의 순전 영어 간판이 즐비한 가운데, 휘황한 네온싸인과 어우러져 씨끄러운 밤송속에 요란한 양공주들과 미군 병사들이 어우러져 외견상으로 확연히 기지촌의 진풍경을 이룬다.

2) 혼혈아

기지촌에서는 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난다. 1946년 이후 태어난 혼혈아의 숫자는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지만 약 7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자식의 출생을 초조히 기다리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미군과의 동거관계가 깨어지면서 부양능력이 없는 매춘 여성의, 조국의 버림으로 대부분 해외입양이 되고 있다. 기지촌 지역의 혼혈아들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언어생활, 잦은 부모의 이동에 구타로 인한 정서불안과 애정어린 돌봄의 손길이 없어, 행동이 난폭하고 한국아동과 접촉을 꺼려하고, 말을 잘 못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빈민지역과 다름없는 월세, 전세 단칸방에서 클럽에 나가는 엄마, 미군으로 있는 아빠를 둔 혼혈아는 불안정한 생활이 파경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고아원, 해외입양 되어 나간다. 한국에서 자라는 이들 혼혈아는 우리나라의 타인종을 거부하는 생활 문화에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미군측의 기지촌 주변에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이들 혼혈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매매춘 여성과 혼혈아는 이땅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버림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3) AIDS

AIDS는 폐락위주, 향락위주로 치닫는 퇴폐적인 서구의 문화 풍토에서 증식한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는 성적으로 문란한 서구 사회의 동성 연애자들이나 걸리는 병으로 알아 왔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될줄은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것이다. 즉, 너무도 안일한 생각으로 에이즈의 심각성을 방관해 왔었고 이것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국한 시켰다.

에이즈는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질병으로부터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바이러스가 파괴함으로써 생명을 위협을 주는 병이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흔한 질병조차 심각하게 걸리게 되며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아직 확실한 치료법과 예방 백신이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환자로 판명되면 대략 1년 8개월 후 100% 사망하고 있다. 확실한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사람과의 긴밀한 성적 접촉, 감염된 혈액, 혈액 성분투여, 마약 중독자의 소독하지 않은 바늘이나 주사기,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되는 신생아등이다. 이러한 AIDS가 우리나라에 침입해 오는 경로는 주한 미군이다. 이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들에게 에이즈는 일차로 전파되었다. 다른 감염자 역시 외국인과 성적으로 접촉한 경우 또는 미군 주둔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법안'은 예방법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고 특히 감염자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질병의 특성에 따르면 즉, 감염된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들에 의해서 국내에 유포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외국인 관광객이나 미군에 대한 법적 예방 조치도 없이 본질병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특정 여성들에게만 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인신구속의 강제성을 띤 예방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검진 기피 현상과 환자가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하므로 에이즈 예방의 역작용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에이즈는 미군을 상대하는 하급 위안부들에게 전파되고, 미군과 한국 남성을 접대하는 여성을 통해 한국 남성에게 전파되어 죄없는 여성들에게 전파 감염된 여성들을 통해 신생아에게까지 에이즈가 감염된다. 이러한 에이즈 예방법안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혈액을 철저히 검사하면 봉쇄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한 미군에게 항체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 보균자가 있다면 본국으로 소환 시키면 된다. 이러한 예방법을 살펴볼때 에이즈 예방법안 21조 삭제의 의미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에이즈가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는 열어놓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강제 수용 하겠다는 무방비 책이라 볼 수 있다.

에이즈의 예방 대책은 기본적으로 에이즈가 전염되는 통로를 막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에이즈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인식을 토대로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3. 기지촌여성의 생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CAMP STANLY를 중심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낮과 밤을 바꾸어야 하는 생활, 성병으로부터의 공포와 사회적 편견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매춘 여성들에게서조차 '양놈에게 붙어 먹고 사는 싸구려 양갈보'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가장 열악한 사회 환경에 처해 있다.

기지촌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에 종사하다가 팔려오는 경우와 바로 이곳으로 오는 경우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딸이거나 결혼가정 출신이 많고 강간당한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한 나머지 기지촌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는 순결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과거를 묻지 않는 미국으로 가서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다. 실제로 기지촌 여성들이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지촌 여성들이 매춘행위를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안정되고 건강하게 사회 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90% 이상이 건강한 노동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사회구조의 모순을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은 모두 다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지만, 다소의 차이를 가진 계층으로 나뉘어지는데, 클럽여성, 국제결혼한 여성, 히바리, 뜨내기 등이다.

1) 클럽에 다니는 여성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Camp Stanly를 중심으로 이곳은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9개의 미군부대 중에서 우리가 방문한 스탠리 부대(Camp Stanly)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 부대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송을 위한 헬리콥터와 1,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부대의 후문쪽 약 400m 길가에는 각종 기념품 판매 가게와 Club들이 늘어서 있었고 이 길가의 옆쪽으로 판자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 곳 Club은 내국인 남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미군과 내국인 여성만이 출입할 수 있고, 미군전용 술집으로 바로 기지촌 여성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곳이다. 대체로, 이 Club 지대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에 종사하다가 팔려오는 경우와 바로 이곳으로 오는 경우 두 가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 기지촌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매춘여성들에게조차 양놈에게 붙어먹고 사는 '싸구려 양갈보'라는 욕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해야 하는 Club의 생활과 성병 감염의 공포, 연탄불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하숙방에 기거해야 하는 생활 조건이 이들의 처지이다. 이들 기지촌 여성의 삶의 장소가 되고 있는 미군전용 Club들은 Camp Stanly의 후문 400m 길가가에 전시품 가게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들 Club에 출입하는 여성들은 보통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기준은 Club과의 채무관계 여부라 할 수 있겠다. 대체로 Club에 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기지촌 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빚을 짊어진채 이곳으로 팔려와서 Club에 기거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또 한유형은 Club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통 경제적 관계로 볼때 후자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처지이지만 역시 열악하다 할 수 있겠다. 보통 이들이 활동하는 Club의 영업은 미군의 퇴근시간인 저녁 6-7시에 시작되어 새벽 2-3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지촌 여성들은 이러한 Club의 생활주기에 맞추어 낮과 밤을 바꾸어 생활하게 된다. 이들 기지촌 여성들은 Club에서 파는 술값과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받은 화대가 주수입원이 된다. 보통 한잔 가격이 1,000-5,000원 하는 술을 미군에게 몇잔 팔았는가를 계산해서 총 액수의 50-80%를 Club에 자릿세로 제공하고 나머지 20-50%를 여성이 갖게 된다. 또, 펌프(기지

촌 직업여성중 나이들어 중간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함)에게 주어야 하는 손님 소개료와 하숙비를 제하고 나면 이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영어를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포주들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이들이 판매한 술잔의 수를 속이고 그 액수를 착취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수입은 그야말로 쥐꼬리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수입으로 그들의 자신의 빚과 생활비를 갚고 나면 이들의 경제적인 부를 늘어나갈 방도는 전혀 없고 오히려 Club에 빚(손님끌고, 자신의 몸치장을 위해 지출되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은 더욱 늘게 되어 더욱 더 기지촌을 벗어날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사회에서 받는 그 모멸적 대우 및 인식과 기지촌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졌던 사회경험은 이들이 이곳을 도망쳐 다른곳으로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좋은 미군만나 자신의 빚을 갚고 국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이 최선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의 군대중원 방식이 직업군인으로 변함에 따라 미군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최하층 부류의 사람들도 구성되게 되었고 이러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겪는 고충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룻밤의 화대도 지불하기 싫어서 폭력으로 제압하고 귀대하는 놈, 자신의 항수를 달래기 위해 Club 출입하는 여성의 빚을 갚아주고 국제 결혼해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피어 몇 달 생활하다 심증이 나면 본국으로 도망가는 놈, 욕하면 시비걸어서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놈, 아무튼 미국에서 저질로 불리워지고 있던 놈들이니 만큼 이곳 Club에서의 그들의 행동도 가장 추할수 밖에 없고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고충이란 이루말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기지촌 여성과 미군이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미군 MP가 미군의 일방적인 말만을 듣고 기지촌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예사이고, 국제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어도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집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생활은 이들을 철책없는 곳에 가둔격이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들로부터 갖은 행패를 당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의 경제적 근원이 미군이 팔아주는 술잔과 하룻밤의 화대에 있는 만큼,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 미군을 처벌한다고 해도, 이 미군이 미군부대에 들어가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에 대해 악소문을 퍼트릴 경우 미군이 발길을 끊음으로서 그 여성의 밥줄을 끊어지게 하기때문에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수 없고 다시 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군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신세인 셈이다.

게다가 이들 여성에게도 미군을 서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묘한 경쟁의식이 붙어서 서로에 대해 경원시하며 개인적으로 고립된채 미국식으로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어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매주에 한번씩 성병검사를 받기 위해 검진소를 가야만 하는데 만약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즉, 성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3 - 4일 동안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야 한다. (실제 이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이 될경우 그 생계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게 된다) 이들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빚청산을 위해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Club생활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성병진료소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Camp Stanly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되지만 성병진료소를 찾는 사람은 4-50명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튼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들의 처지와 고립적이고 개인적으로 불안정한 그들의 생활모습은 이들로 하여금 어디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오직 섣달한 미군의 구원의 손길만 기다린채 기지촌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포주가 되거나 혹은 맴프로 혹은 밤에만 자기의 몸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다.

2) 국제결혼한 여성들

기지촌에 해거름이 지면 미군과 외국인들, 그리고 '양키문화'에 물든 한국인이 모여든다. 기지촌의 매춘여성 문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 '매춘관각' 혹은 '기생관장'을 통한 외국인 상대의 매매춘 여성의 문제와 유사하다. 본질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사회적, 민족적 모순이 결부되어 기지촌 매매춘 여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생관장의 경우 단기적인 반면, 기지촌 매매춘 여성은 대부분 장기체류의 군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심지어 계약결혼, 동거를 함으로서 '혼혈아'의 문제가 사회적, 민족적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생활방식의 상이함, 그리고 한미불평등 조약에 기인한 각종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미군을 상대로하는 매매춘여성이 기지촌에 몰려든다. 매매춘 여성의 화대(매춘행위에 대한 보상)가 내국인 상대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도 아닌데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적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의 결혼풍속은 과거가 있는 여자를 멀리하며, 섣달 결혼을 했다가도 과거가 드러나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까닭에 지난 '과거'를 묻지 않

고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미군과의 결혼이 동족과 결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 편하고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정절과 순결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병리현상을 꼽는다. 따라서 그들은 미군과 결혼하여 고국을 떠나면 과거는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 새생활을 꾸려가리라는 기대감으로 미군과의 만남을 한다. 기지촌에서는 보통 계약동거의 기간을 거쳐 한달에 약 3백여쌍, 일년에는 3천여쌍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겪는 언어차이, 생활습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미국인의 우리와 다른 결혼관념에 대부분 70 - 80%가 다시 이혼을 당한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온갖 멸시와 천대속에서 하루를 참혹하게 살아가던 기지촌의 매매춘 여성은 새생활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국제 결혼은 하지만 얼마못가 꿈과 계획은 무너지고, 이들은 이국땅 미국에서 조차 술집, 환락가로 빠져들어 국내에서와 같이 가난과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 허바리, 뜨내기 여성들

나이가 들어 클럽에 나갈 수 없는 여성들 중에는 미군과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중간 소개자인 팸퍼가 있지만, 직접 개별적으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들을 흔히 허바리라고 한다. 이미 육체적으로 건강은 나빠져 있고 건강한 노동으로의 길이 차단된 이 여성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춘행위를 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미군으로부터 버림받고 혼혈아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

클럽여성들의 경우는 패스가 있어 성병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 빠져 있을 뿐이다.

뜨내기는 기지촌을 근거지로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하여 미군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지촌 여성은 분단국가의 현실이 낳은 이 시대의 정신대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 여성들은 미군을 따라 훈련장으로 이동을 한다. 포주에게 묶여 있어 자유롭지 못한 다수의 여성들은 심한 감시와 계약 속에 하루 10명 이상의 미군을 상대한다. 또한 대부분의 미군은 저질 계층으로 여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의 강간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어 번태, 퇴폐를 일삼고 있다. 여성들은 미군의 번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클럽가나 여관가에서 테크닉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포르노 비디오까지 보아야 하는 여성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한 것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미군으로부터 온갖 피해를 당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마땅히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돈을 벌려고 들어온 곳에서 빚만 짊어진 채 남는 것은 병과 빚 뿐이다.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미군과 국제결혼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의 사고는 클럽에 빚져 있는 여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소유의 의식이 강해 부부관계 또한 불평등하다.

이처럼 우리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파도림 당하고 버려진 기지촌에서도 미군에게 철저히 예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여성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는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제도와 체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여성 해방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제국주의의 침탈에 의한 식민지라는 상황, 거기에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의해 자주적 발전이 차단되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여성 해방 운동의 이념과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대외 종속적인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야기된 산업형 매매춘에 의해 비로소 매매춘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적 착취 관계를 벗어난 자립 경제의 구축, 남북 분단의 대치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 민족 통일을 위한 제반조건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용산 미군기지

1. 용산 미군기지의 역사

'용산'이라는 이름은 인왕산의 한줄기가 남쪽으로 뻗으면서 만리동 고개를 거쳐 원효로까지 내려와 고개를 비튼 것이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오늘날의 용산구는 그 용의 목덜미와 허리에 해당한다.

이곳이 외국군에 의해 짓밟힌 역사는 고려시대 몽고군이 주둔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우리의 근대사에서 용산이 외국군 기지로 둔갑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발생한 갑오동민전쟁을 진압 한다구실로 진주한 제국주의 일본군대가 주둔 하면서 이다. 일본군은 효창동 일대와 둔지리(이태원동) 서빙고 등지에 분산 주둔 하였는데 현재의 원효로 4가에는 병참사령부를 설치하여 이 땅의 갑오개화를 강요하고 청일전쟁 수행의 선도 주력부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후 일본은 1906년 4월 지금 대우빌딩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남산 기슭일대와 이태원, 옥천에서 한강변에 이르는 일대의 대지역을 군용기지로 수용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 있던 46개 마을은 모두 일본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병영으로 개조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 군대가 그들의 대동아 건설을 위해 전방 전투사단으로 나남에 19사단을 두고 용산에 20사단을 두어 '후방대전' 즉 반일운동 저지와 전방에 대한 병력 보급소 역할을 담당케 했던 것이다.

이 때부터 내 땅이면서도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땅은 한국인들에게 치욕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기억되어졌다. 이 처럼 용산은 한반도를 유린하고 거대한 대륙,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남의 땅으로 사용되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8.15를 맞았지만 여전히 용산은 '내 땅 아닌 남의 땅'이었다. 일제로부터 '해방군'으로 서울에 입성한 미 보병 7사단이 그 땅을 병영으로 정한 것이다. 결국 용산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예속의 길을 걷는 식민지 1번지가 남게 된 것이다.

1949년 미국은 한국이 그들의 극동방위선 밖이라는 애치슨 선언에 따라 일시 철수 하였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들어와 1953년 8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20일 만에 다시 용산을 차지했다. 뒤에 이어 57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이곳에서 발족했고, 동경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도 이곳으로 옮겨 왔다.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연합사가 발족하여 용산기지는 남한에 존재하는 전체 군사력(주한미군, 유엔군,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명실 상부한 남한 내 무력의 중심이 되었다.

2. 용산 미군기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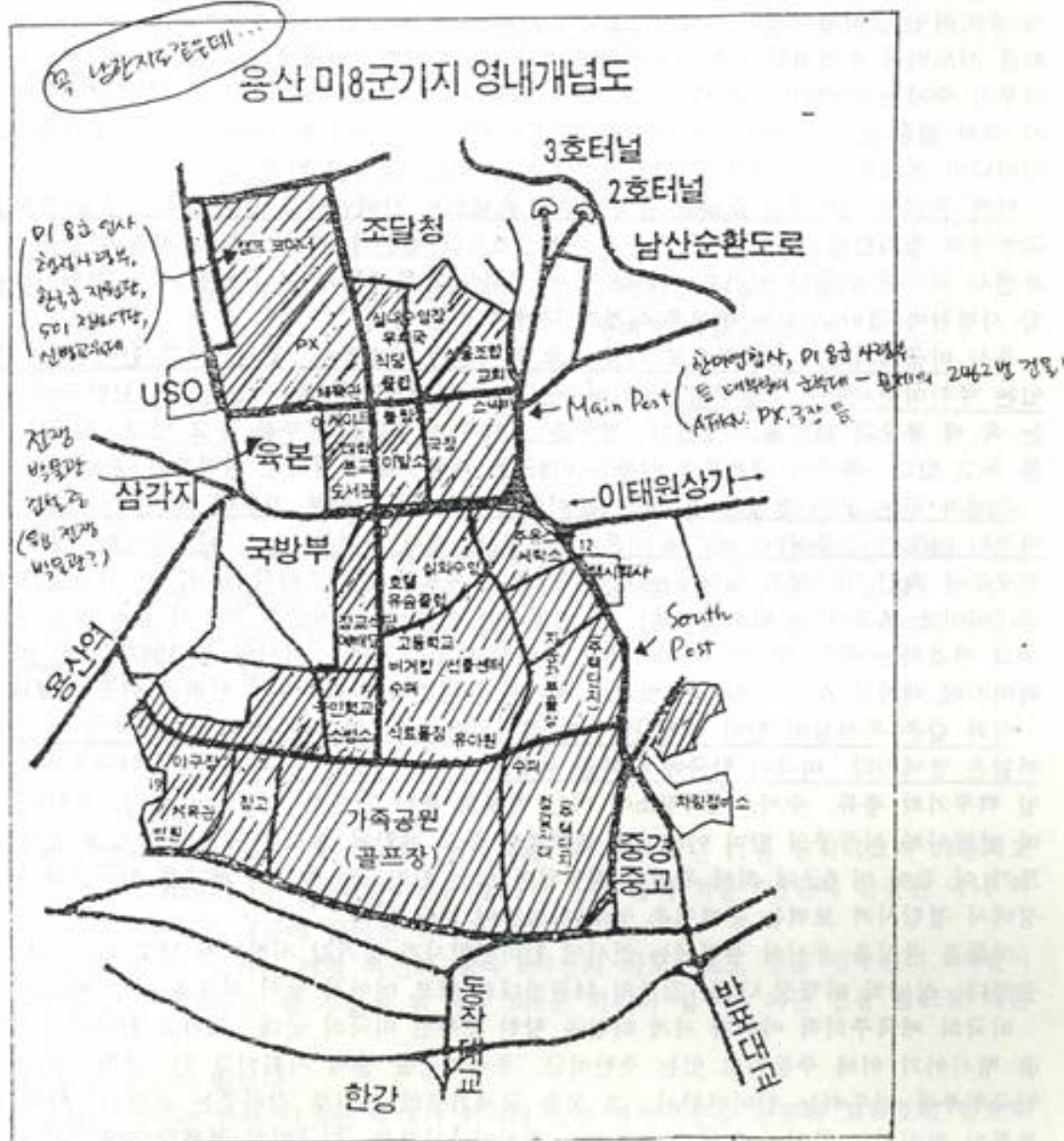
1) 민족의 자존과 용산미군기지

무궁화 모양을 띤 서울시 지도에서 보면 용산은 꽃술에 해당 한다. 미 8군 기지는 용산 중에서 노른자위에 해당한다. 이 금싸라기 별판이 '잃어버린 땅'이라는 증거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미군기지 철조망 담벼락에는 '미 군용 시설(US MILITARY FACILITIES) 무단 출입금지(TRESPASSING PROHIBITED)'라는 경고문이 20m마다 있다. 3~4m나 되는 높은 벽돌담 위로 둘러쳐진 2m 정도의 철조망이 날카로운 침을 돋우고 있다. 한편 담 밑에는 폭 1m의 화단에 철쭉, 장미 등 10여 가지의 꽃들 심어져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청식명칭이 '미 육군 용산 위수 사령부(US ARMY GARRISON-YONGSAN)'인 미군기지의 점유면적은 미 1 공보국 자료에 의하면 6백 99 에이커이다.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85만 5천 3백여평, 주위의 금싸라기 땅(평당 1천만원 이상)과 비교하여 시가로 계산하면 미군기지의 시가는 무려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의 절반에 가깝다.

용산을 찾으려면 녹지대를 찾으려면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미 8군 영내는 집들이 뿔뿔하지 않고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서울의 어느 공원도 그 좋은 경치를 감히 따르지 못한다. 용산 미8군 기지가 르른 녹지인 이유는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아카시아를 비롯한 나무들을 심어 숲을 조성 했고, 미 골프장으로 쓰이던 곳은(현 용산가족공원) 일본군이 연병장과 헬기장으로 쓰기 위해 잔디밭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땅' 용산 미군기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미연합사, 미8군사령부 등 부분의 군부대와 AFKN, PX, 극장 등 각종 비세출자금기관(운용자금을 정부자금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몰려 있는 곳이 메인 포스트로 이태원로 북쪽에 위치한다.

그 맞은 편에 있는 것이 주한 미군사령부가 들어 있는 사우스 포스트로 골프장과 고급 클럽, 대학교, 미군장교 주택들이 있다. 그리고 맨 북쪽엔 미8군 인사행정사령부와 한국군 지원단, 501 정여단, 신병 교육대 등이 있는 캠프 코이너가 자리잡고 있다.

용산기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미연합사이다. 1978년 연합사 창립 당 한국정부가 건축비를 부담, 한식 기와 지붕의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지은 것인데, 연건평 1천 백여 규모다. 건물 앞에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필인 '평화수호의 보루'라는 글씨가 새겨진 흑요석을 '미 양국간의 결속을 의미한다'는 두 마리의 사자상이 받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미연합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문제 때문이었다. 80년대 반미동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높아지자 미국은 한미 사령부의 체계를 수직적인 체계에서 수직적인 지휘체계로 재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유엔군 사령관에게 내려오던 중의 수직적인 군지휘체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모방한 군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형식적인 화를 시도하여 수평적인 지휘체계로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는 연합사령부의 수뇌는 여전히 미군 대장인 것이다. 군부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실세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군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미군이 한국에서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을 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는 오늘날 유명무실한 존재로서 한미연합사 건물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다. 국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유엔 당사국이 철수했거나 일본에 건너가 있고 지금은 간혹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이에 마찰이 있기도 하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사령관이 한미합 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의 구체적인 한 증거이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연병장을 사이에 두고 한미연합사와 마주 보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건물이다. 주한미군은 미 태평양지역 사령부 산하로서 한반도에 주둔 하고는 육, 해, 공군과 해병을 구성된다. 공군은 오산에 제 7공군 본부를 두고 있고, 해군은 진해에 기를 두고 있다. 육군의 대부분을 이루는 미8군은 사령부를 주한미군 사령부와 공유한다.

문제가 되는 곳은 몇 개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진 미8군 사령부 가운데 최근 들어 "헤이즈 보고서" 지정한 2462번 건물이다. 여기에 이른바 <주한 핵 계획 작전부>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제3협참모부에 속한 이곳에서 담당하는 것은 핵 공격 목표의 분석, 핵의 발사, 핵 사용 계획의 작성이고 "헤이즈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건물에는 이 밖에도 미군의 핵무기 관리 조직과 기능을 한 군과 연결하는 주한 무기지원 파견대도 자리잡고 있다. 랜스 미사일은 1987년 2월 9일 춘천 캠프 페이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기지원 파견대도 대부분의 인력을 이곳에 보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부서들이 한미 연합사령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미 8군 사령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 까닭은 명백하다. 미국이 한국에서 핵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일 핵무기의 종류, 숫자, 배치장소에 대한 정보로 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오직 미 연합사와 의정부의 한미 야전사에 연락조를 두고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틱스피 트가 이 같이 미 8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한반도의 핵무기 체계를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정에서 결합시켜 보려는 훈련임은 누누한 설명이 필요 없다.

이들을 중심으로 용산의 주변에는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옮겨갈 지하기지 탱고(Tango)와 울지로의 공병대, 성남의 비행장 K-16, 김포의 44공병대와 캠프 머어서 등이 서울을 에워 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세계 패권을 향한 보루인 미국의 군대,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의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한미군을 통제 지휘하고 한국군의 작전권을 장악한 한국정부를 좌우하는 한미연합사. 그 곳을 국제기구의 권위로 감싸주는 유엔사. 한국 민중은 커 정부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핵을 주무르는 주한미군사령부, 한국민의 전체의 자존심이나 생존권을

에서 지극히 해로운 이들 삼자가 용산기지 문제의 핵심이고 그것은 여러가지 장점을 고려하여 '용산'에 자리잡음으로써 온갖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온갖 문 는 한국을 지배하려는 저들의 의도와 부합된 것이지, 결코 배치되는 것이거나 우연찮게 파생된 것 는 아니다.

2) 주택, 교통, 환경, 문화 등 서울 발전의 질곡

(1) 용산지역의 건축 규제 현황

용산구가 발행하는 '통계연보'(87년)를 보면 지역특성란에 '군사의 중추지역, 외국공간 및 주거밀 집지역, 도심 개발 취약지역'으로 나와있다. '도심 개발 취약지역'에서 보여지듯이 미8군 기지는 교 난 뿐 아니라 용산발전 자체를 방해하는 거대한 방벽이 되고 있다.

서울시 통계연보(1987년)에는 각 구별 비교 분석이 나오는데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구가 거의 모든 항목의 발전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 하고 있다. 용산구 통계연보에는 서울시 통계연보 항목에 는 없는 '지역별 건축 규제 상황'이 별도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미군기지 때문에 용산의 재개발이 급적으로 방해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지역별 건축 규제 >

단위 평방 m

지역별	건축최소면적	높이제한	해당지역
2종미관지구	300	3층이상	이태원로, 원효로, 한남로 청파로, 백범로, 한강로
3종미관지구	300	1층이상	소월길, 강변로

위 표는 용산 아래의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기지 영내를 내려다 볼 수 있을 만한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남영동 쪽 미군기지 주변의 주택들은 아직도 일본식 집들이 그대로 남아 일제 식민지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도심에서 반경 5Km 안에 드 는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보면 수 많은 빌딩들이 들어섰을 터이지만 아직도 남영동은 덕지덕지 손질아 해진 흥척스런 일본식 집들이 많이 남아 있다.

(2)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용산미군기지

① 끊어진 다리 - 동작대교

용산미군기지가 서울시민의 비위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게 된 것은 84년 11월 동작대교가 개통되고 부터이다. 서울시 예산의 40분의 1인 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착공 6년만에 완공된 국내 최 의 '랭거 아치고'가 미군기지 때문에 끊어진 다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길이 1,330m, 폭 40m의 이 다리는 전철 복선과 왕복 6차선의 차도, 보도 등을 갖추었다. 이같이 1억을 들여 만든 다리가 제구실을 할 수없게 된 것은 미8군 기지의 일부인 미군 전용 골프장 때문 이다.

당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작대교를 설계할 당시는 현재 미 8군 부대가 위치해 있는 중앙부분을 관통해 토쿄호텔 앞으로

빠지는 폭 50m의 도로를 개설 할 예정이었으나 미군 당국에서도 개설 협의에 응하지 않아 궁여지책 끝에 나중에 도로를 만들 것에 대비, 다리 끝부분을 잘라 놓은 채 셋길을 만들었다.”(중앙일보 84.10.18)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리 북쪽 부분에 입차 교차로 시설도 하지 못하고 다리 끝부분을 잘라 놓은 채, 동부이촌동에서 제3한강교 쪽으로 2차선의 셋길만을 만들어 놓고 있어, 다리를 건너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 부분에서 심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벌어지는 서울 도심의 교통지옥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비롯된다.

② 돌아가는 삼각지 - 지하철 4호선의 선로 변경

용산구를 지나는 지하철 4호선도 직선으로 뻗지 못하고 미군기지를 피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남영동에는 남영역(1호선)과 숙대입구역(4호선)이 인접해서 있다. 애초 지하철 4호선 건설 계획은 서울역에서 후암동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으나 미군기지 지하를 통과 하게 된다는 이유로 미군의 반대에 부딪쳐 그 계획은 수정되고 말았다. 4호선의 선로 진행 방향은 서울역에서 후암동을 거쳐 동작대교를 건너 사당동으로 연결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반대로 4호선은 도로를 변경하여 남영동, 삼각지, 동부이촌동을 돌아가고 있다. 유행가의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 말은 지하철 4호선을 두고 한 말이 되어 버렸다.

3) 미군 기지가 물고온 '양키문화'의 이방지대

미군의 주둔은 이땅의 곳곳에 국적불명의 이방지대를 만들어 놓았다. 그 가운데 용산은 '양키문화'의 제1호의 전염터이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개척도시보다 더욱 미국적인 이태원, 그 기지촌은 조기가 하강하면서부터 활기를 띤다. 해거름이 되면 미군과 외국인들, 그리고 '양키문화'에 물든 국민들이 속속 '배다른 동네'로 모여 든다. 가게마다 이마에 걸린 간판이, 거리를 오가는 말이 거의 다 영어다. 이태원 상가에는 현재 1천 5백여개의 상점과 3백여개의 유흥업소가 들어서 대형 영어판과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이국적 풍토를 연출, '식민 1번지'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토요일 밤이 깊어지면 이태원 일대에서는 반드시 미군들 사이에 혹은 미군과 한국인 간에 패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했던 한 카투사는 "경찰들도 미군 행패에 질려 반미적 주주의자가 될 정도"라면서 "미군들을 지켜보아온 용산주민들이야말로 일상 생활 속에서 높은 반미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미군은 또한 한국에 이른바 '혼혈아'와 '양공주'를 만들어 냈다. 그 가운데 1946년 이후에 태어난 혼혈아의 숫자는 정확히 조사된 적은 없지만 약 7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자식의 출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버지도, 손자의 출생을 마음줄여 지켜보는 할머니도 그들 곁엔 없었다. 가난한 가정, 낮은 학력, 얻기 힘든 직장, 곳곳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나선 벽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들의 '실'은 범죄와 한탕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양키문화'의 전파도구로 사용되왔던 것 중의 하나는 AFKN이다. 1957년부터 방송을 시작 AFKN-TV의 방영내용은 외설, 폭력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더욱 이것은 미국에 대한 사대사상을 연중에 주입시키는 데 큰 도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과 5만명에도 못미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방송인 AFKN이 국내방영 TV 중 가장 선명한 채널인 VHF 2번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서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미군이 차지한 것에 견줄만한 일이다.

이러한 미군주둔의 부산물들은 비단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40여개에 달하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거의 같은 양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4)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지원과 외국에서 미군기지 사례

(1)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미군지원 사례

용산기지를 밖에서 바라보면 철조망 담벽 너머에 산뜻하게 지어올려진 미군장교 주택에 대한주택사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이 보인다. 이 고급주택들은 지난 86년 주공에서 지어준 것으로 3인천사건 등을 시발로 그해 반미 기운이 높아지자, 원래 있었던 서초동 미군장교주택지에서 쫓겨나 미8군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용산 미군 기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기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일 만큼 한국정부로부터 후한 지과 특혜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87년 5월 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6백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원실태 ('87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비용요소	내 용	간접비	직접비
부동산지원	토지, 시설제공	1,050.0	150.0
인력지원	카투사, 노무단, 경제지원인력 한미연합사와 야전사지원인력	400.7	7.4
운영유지비 지원	미군사지원단 경비, 한미연합사 경비분담, 제공 훈련장 지원	---	6.6
CDIP 사업	한미연합군사용 군사시설 건립등 한국:시설, 토지, 미국: 무기, 장비투자	---	34.2 (연평균)
군수지원	탄약저장관리, 유통지원용역비	95.5	67.0
한국군 시설 제공	훈련장, 사격장, 항공관제지원 체신부 전신망 계획	---	21.9
감면혜택	관세, 고속도로통행세, 통신 및 공공요금할인	72.3	5.0
소 계		1,618.5	287.6
계		1,9061	

<출처>국방부(88.5.7)

주한미군은 한국인이 내는 전기요금의 43%만 내면 된다. 그들의 휘발유 구입비는 한국인들에 비해 4분의 1밖에 안 된다. 또한 사적으로 소유하는 차량들도 한국의 도로세를 면제 받는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도 붙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이러한 각종 특혜는 한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계산을 해보면 우 국민들은 주한미군 1명에게 2만7천달러, 약 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매년 쥐어주고 있는 셈이

다.

그런데도 미국은 88년 6월 7일 열린 서울의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계속 방위비 분담 중역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외국의 미군기지의 사례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굴욕적인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명백히 불평등 조처에 순응하는 자주적이지 못한 자세이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88년 4월 클라크 미공군기지과 수빅만 등 미군의 압호 사용지역에서의 압해독권을 요구 했으며, 미군기지 주변의 접근금지 구역에서 자유로이 검색하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연 19억달러를 주는데 반해 필리핀은 미에게 연 12억달러의 기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필리핀을 떠나라 '주인'다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질랜드도 지난 86년 자기나라 주변 해역의 모든 미군함이 핵무기를 탑재 했는지 여부와 핵에 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 미국과 38년간 맺어왔던 군사조약의 파기도 불사 했었다 그밖에도 미군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의 미군기지에서부터 밀려났으며, 그리스에서도 어려움을 고 있다.

3.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보류와 한·미 불평등 조약

1)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과 한·미불평등 관계

한국정부는 6공 들면서 국민들의 반미의식과 관련하여 비공식 논의를 계속한 끝에 88년 6월 25일 제2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용산 미8군기지를 이전하기로 미국과 합의 하였다.

이에 앞서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전비용의 한국정부 부담, 새 기지의 생활여건을 현수준으로 보장, 작전능력의 유지 등 세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미 8군기지의 이전에 합의 하면서, 시설유지 및 운영비를 제외한 이전비용의 전액 부담하기로 약속 했으며, 이는 2조원에 이르는 액수이다. 이전비용 2조원 중 부지 매입비로 8천원, 매년 부담하고 있는 직접 경비 22억달러(1조6천억원), 그리고 기타 경비를 더하면 미군에 들어가는 돈이 내년 한해에만도 3조원에 달한다. (확인사항)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예산의 50% 이상 미군 주둔경비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은 김영삼 정권이 수립되면서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해 있다.

'97년까지 지방으로 옮기기로 한 미간에 합의 했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과다한 비용부담·전략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 또는 보류될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부 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전 계획을 재검토 할 용의가 있음을 비준 것으로 알려 졌다. 한미 군사 및 외교 관계자들은 그동안 일련의 협의를 통해 기지이전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많다는 미국측의 입장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이전비용이 부담스럽다는 한국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 7월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전 계획을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측은 그간의 접촉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기지 전체의 통폐합과 연계되 추진되어야 하며 종합계획 기간을 4년 더 연장하자고 주장. 사실상 97년 이전 시한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

기측은 또 91년 초 17억달러로 제시했던 이전에 따르는 행정소요비용을 92년 4월에는 95억달러로 정 제의 하였다. 이같은 계산대로라면 당초 1조8천억원으로 계상되었던 전체 이전비용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비용은 한국측이 전액 부담케 되어 있다. (중앙일보 93.5.11)

2) 한국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인 '한미행정협정'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보류에 대한 보도를 보면 미국측은 군사전략상의 문제 때문으로 한국정부는 전비용의 과다함 때문이라 주장 한다. 앞서 살펴 본 필리핀에서는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반면 국은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미 굴욕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근거를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은 53년 미군사령부가 동송동 구서울대에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85만여평의 땅이 다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 미8군 용산기지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에 토지사용권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규정 미군의 법적 지위, 관할권, 시설물과 땅의 사용권에 따르는 일체의 세부규약이다. 따라서 한국내 있는 땅과 시설물의 사용권 및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에 의해 규정된 내규이다.

미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 장 설비 일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 지역과 시설물 일체가 군사목적에 더이상 필요하지 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국정부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그 반환 절차도 물론 명기되어 있는데 두 나라 합동위원회가 합의를 보고 결의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합의라는 것은 한쪽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한미정부에 국제적으로 맺은 협정이니 쌍방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그 사용권, 반환권에 대한 일체의 문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용산일대를 차지 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서울시 행정상 명칭은 용산구 용산동다. 이 방대한 땅의 소유권은 물론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다. 관리권 역시 국방부가 갖고 있는데 국정부는 단지 그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엄존하는 한 용산일의 '알토란같은 땅'은 엄연히 치외법권지역이다. 소유권과 관리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력이 조금도 먹혀들지 않는 땅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이 한국이 미군을 터문이 없이 지원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되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전담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예측적인 장치가 되고 있는 것 다.

4.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계획과 전망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후, 그에 따르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동과 함께 마련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미 92년 말에는 용산미군기지의 일부인 미군전용골프장 12평 중 9만평의 부지가 '용산가족공원'으로 서울시민에게 돌려졌다. 미군전용 골프장 12만평 중 헬 장, AFKN 안테나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9만평이 용산가족공원으로 조성, 시민에게 공개 된 것이

최근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이 조성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결과 개관을 앞두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부지 활용 계획은 국민과 서울시민의 공감대와 환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자의 서민을 위해 활용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이전운동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으로 살아 이전 후 계획과 전망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과제로 남기면서 신문 기사를 참고 자료로 삼고자 용하기로 한다.

'이 용산부지가 되찾아 질 때 우선 뒤물린 서울의 도시사업 계획이 회복되리라 본다. 첫째, 4호 지하철이 직선으로 곧게 뻗게 되고, 동작대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다리를 건너 시내 쪽으로 진하는 차량의 병목현상이 없어 질 것이다. 둘째, 북한산 남산의 산림, 녹지 공간이 이 곳 용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녹지접근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서울의 산술적 녹지 공원율은 세계 대도시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셋째, 이 부지 도심에 살고 있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건설한다면 이들의 철거, 강제추출, 재개발에 의한 계층 문제가 해결된다. 1백 10만명 용산 땅의 높은 녹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도 30만평(현 미군주택지)만 3만호, 15만여 명 이상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의 미군건물과 시설까지 고려한다면 30만평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철거-무허가, 건축-철거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넷째,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음으로써 용산구의 원활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날마다 철망 담벽을 답답하게 피해 다녀야 했던 용산구민, 서울시민은 이제 주체로 나서서 우리 공간의 자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988년 8월 서울시는 용산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성하겠다는 것이다. 더 시급한 서울시민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가히 선진국 대도시다운 발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부지의 용도를 미국식의 시민공원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더러 그 의사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번의 시론적 계획안에는 현 골프장 터에 '민족의 광장'을 두어 남산의 녹지축을 한강까지 연 시켜 '평화의 공원'이라 이름 붙였고, 또한 이 부지를 되찾은 힘의 큰부분을 담당해 왔고 이 부지 그 동안의 억압적 질서의 가장 큰피해를 입어왔던 계층이 도시빈민, 저소득, 근로계층이라는 인 아래 그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도입하였다. (한겨레신문, 89.1.11)



미군복합과 한국경찰의 밀조를 규탄하는 이태원 시민들

미국측은 또 91년 초 17억달러로 제시했던 이전에 따르는 행정소요비용을 92년 4월에는 95억달러로 정 제의 하였다. 이같은 계산대로라면 당초 1조8천억원으로 계상되었던 전체 이전비용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비용은 한국측이 전액 부담케 되어 있다. (중앙일보 93.5.11)

2) 한국정부의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인 「한미행정협정」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보류에 대한 보도를 보면 미국측은 군사전략상의 문제 때문으로 한국정부는 전비용의 과다함 때문이라 주장 한다. 앞서 살펴 본 필리핀에서는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반면 국은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대미 굴욕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근거를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은 53년 미군사령부가 동송동 구서울대에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85만여평의 땅이 다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 미8군 용산기지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에 토지사용권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규정 미군의 법적 지위, 관할권, 시설물과 땅의 사용권에 따르는 일체의 세부규약이다. 따라서 한국내 있는 땅과 시설물의 사용권 및 반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규정된 내규이다.

미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 장비, 설비 일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 지역과 시설물 일체가 군사목적에 더이상 필요하지 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국정부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그 반환 절차도 물론 명기되어 있는데 두 나라 합동위원회가 합의를 보고 결의해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합의라는 것은 한쪽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한미정부에 국제적으로 맺은 협정이니 쌍방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그 사용권, 반환권에 대한 일체의 문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미행정협정에 의거 용산일대를 차지 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서울시 행정상 명칭은 용산구 용산동 다. 이 방대한 땅의 소유권은 물론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다. 관리권 역시 국방부가 갖고 있는데 국정부는 단지 그 사용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엄존하는 한 용산일의 '알토란같은 땅'은 엄연히 치외법권지역이다. 소유권과 관리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력이 조금도 먹혀들지 않는 땅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이 한국이 미군을 터문이 없이 지원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되 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을 전담해야 하는 굴욕적이고, 예측적인 장치가 되고 있는 것

4.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계획과 전망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후, 그에 따르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동과 함께 마련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미 92년 말에는 용산미군기지의 일부인 미군전용골프장 12평 중 9만평의 부지가 '용산가족공원'으로 서울시민에게 돌려졌다. 미군전용 골프장 12만평 중 헬 장, AFKN 안테나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9만평이 용산가족공원으로 조성, 시민에게 공개 된 것이

최근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이 조성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쟁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결과 개관을 앞두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부지 활용 계획은 국민과 서울시민의 공감대와 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자의 서민을 위해 활용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이전운동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으로 삼아 이전 후 계획과 전망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과제로 남기면서 신문 기사를 참고 자료로 삼고자 용하기로 한다.

'이 용산부지가 되찾아 질 때 우선 뒤물린 서울의 도시사업 계획이 회복되리라 본다. 첫째, 4호 지하철이 직선으로 곧게 뻗게 되고, 동작대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다리를 건너 시내 쪽으로 전하는 차량의 병목현상이 없어 질 것이다. 둘째, 북한산 남산의 산림, 녹지 공간이 이곳 용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녹지접근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서울의 산술적 녹지 공원율은 세계 대도시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셋째, 이 부지 도심에 살고 있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건설한다면 이들의 철거, 강제추출, 재개발에 의한 제 문제가 해결된다. 1백 10만평 용산 땅의 높은 녹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도 30만평(현 미군주택지)만 3만호, 15만여 명 이상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의 미군건물과 시설까지 고려한다면 30명의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철거-무허가, 건축-철거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넷째,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음으로써 용산구의 원활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날마다 철망 담벽을 답답하게 피해 다녀야 했던 용산구민, 서울시민은 이제 주체로 나서서 우리 공간의 자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988년 8월 서울시는 용산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성하겠다는 것이다. 더 시급한 서울시민의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킨, 가히 선진국 대도시다운 발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부지의 용도를 미국식의 시민공원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더러 그 의사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번의 시론적 계획안에는 현 골프장 터에 '민족의 광장'을 두어 남산의 녹지축을 한강까지 연시켜 '평화의 공원'이라 이름 붙였고, 또한 이 부지를 되찾은 힘의 큰부분을 담당해 왔고 이 부지 그 동안의 억압적 질서의 가장 큰피해를 입어왔던 계층이 도시민민, 저소득, 근로계층이라는 인 아래 그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도입하였다.' (한겨레신문, 89.1.11)



미군특별과 한국경찰의 방조를 규탄하는 이태원 시민들

대북 선제공격대, 한국인 폭행부대 의정부, 동두천 미 제 2사단

의정부, 동두천에는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케이시 등 모두 14개(의정부 9개, 동두천 5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의정부, 동두천에 주둔한 병력은 주한미군 보병 제 2사단 1만 5천명이고, 의정부에는 한미연합 야전군 사령부(한국육군 일부와 미 2사단을 동시에 지휘)가 있다.

미 2사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레이건 정권이 등장한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세계 동시다발 보복전략과 공지전 독트린'으로 바뀌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베트남등 소련의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세계 동시다발 보복전략'이며, 전선과 함께 적의 후방지역을(중심지역)을 선제공격하여 적의 무력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선제 격멸' 전략이 공지전 독트린이다.

소련 몰락이후 이 군사전략이 차츰 바뀌어 가면서 유럽에서 미군기지철수, 전략핵무기 감축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은 제 3세계에 대해서 더욱 예봉을 들이대고 있고 최근년간 그 예봉은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 문제를 전쟁까지 감수하더라도 자신들 방식으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사실 전쟁까지 감수할 국내외적 조건이 안되는데도) 아직까지 공지전 독트린과 세계 동시다발 보복 전략은 한반도에서는 유효한 것이다.

미 2사단이 전쟁시에, 또 매년 계속되는 틱스피리트 훈련 속에서 하는 역할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북의 중심(평양, 대동강 철교, 신의주 철교등)을 공격하는 것이다.

원산-사리원 이북에 주둔했을 북한의 후방부대를 공격 섬멸하고 혼란시켜 휴전선에 나와 있는 부대를 고립시키고 지원을 끊는 것이다.

공격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랜스미사일로 평양, 함흥일대에 핵폭격을 가하는 것이다. 87년에 한국에 배치된 랜스 미사일은 그냥, 또는 핵폭탄, 중성자탄을 싣고 갈 수 있는 무기인데, 사정거리 120Km로 평양까지 공격할 수 있으며, 2사단 33야전 포병대대와 2사단 포병대 사령부에 있는 M-109, M-198 모두 3개포대에 설치되어 있다. 발사대가 두 대 있고 미사일도 1개중대 있다고 한다.(이들 부대가 어느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지는 미처 조사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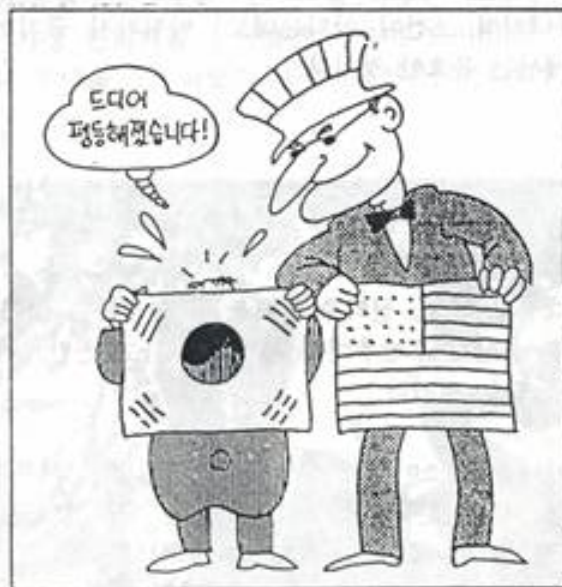
또하나의 방법은 특수부대가 핵배낭을 지고 북한 깊숙히 들어가 북한의 주요시설(특히 군사지휘 중추부)을 파괴 교란하는 것이다. 미국이 85년에 의정부에 300개의 핵배낭을 배치한 것도 이 전술을 위해서였다. 이 작전은 85년부터 매년 연습되고 있다. 특히 88년의 훈련은 미국 특수부대 10개와 한국 특수부대 7개가 참가한 아주 큰 대규모 훈련이었다고 한다.

두번째 2사단의 역할은 중심공격이 이루어질 때 휴전선에서 일대 공격작전을 펴는 것이다. 미 2사단은 이를 위해 매년 본토병력과 함께 폭격훈련, 도하훈련, 산악전훈련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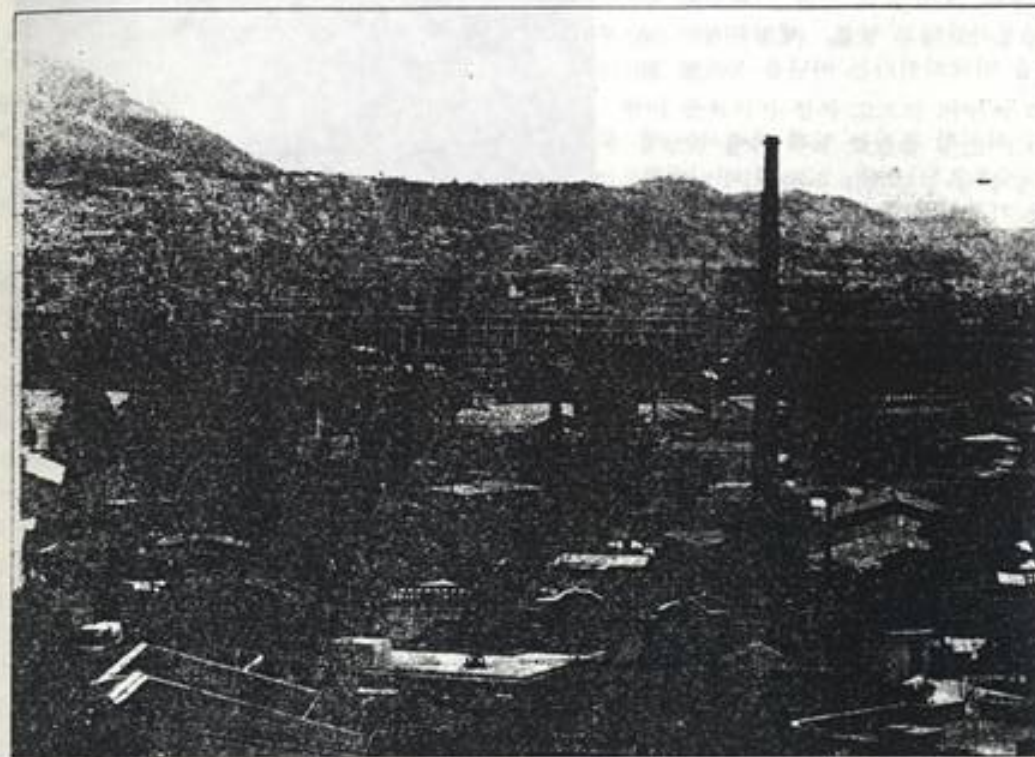
이렇게 의정부, 동두천에 주둔한 미2사단은 군사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부대이다.

또 미 제 2사단은 한국인에 대한 잔인한 폭력으로 유명해진 부대이다. 윤금이 누이를 살해한 케네스 마를 일병은 귀국 1주일을 남겨놓은 2사단 의무병이었고, 김국혜씨를 폭행한 살로이. 존. 로저 병장은 2사단으로 한국에 전입한 첫날밤에 사건을 일으켰다.

해마다 이북에 대해 공격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부대인 2사단에 이들 두 미군이 속해있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시민의 눈중받는 부산 미군기지



하야리아부대 주변의 주택가는 군사보호법에 의해 빈민가로 전락하였다.

일제 때의 경마장 하야리아부대

부산의 미국 관련 시설은 하야리아부대, 미군 제 55보급창, 제8부대의 미육군 부산항만관리사령부 등 군사시설과 미문화원(영사관 겸용) 등 네 곳이다.

부산진구 범전동 64의 3 일대와 연지동 130 일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하야리아부대의 정식 이름은 미육군 34지원단 및 제7관구 사령부.

그 규모가 작아 캠프(camp) 대신 컴파운드(Compound)로 분류되며 병참임무를 맡고 있다.

하야리아부대는 서울 용산과 같은 골프장만 없을 뿐, AFKN방송국, 수영장, 테니스장, 체육관, 볼링장, 야구장, 병원, 동물병원, 교회, 극장, 이·미용실, 생

필품코너, 자동차수리소, 양복점, 장교클럽, 사병클럽 등 미군들의 주거시설과 그에 딸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유아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시설(DOD)도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도 갖추어져 있다.

하야리아부대 안에는 해관 이남에 위치한 미군부대에 빵을 만들어 공급하는 빵공장이 그나마 군시설로 손꼽아질 정도여서 부대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기능을 갖춘 미국인 주거지역으로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이다.

범전동 산동네에서 내려다 보면 16만8천평의 넓은 평지의 대부분이 잔디밭으로, 부대안에는 거니는 인적도 드문 한산한 곳이다.

하야리아부대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3개로 그린 패스(녹색통행증)를 가진 한·미친선협회 한국인 회원들은 4명까지 동행·출입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다.

제4문 연지동쪽에 현재 미군 재향군인회에서 영업하는 미군전용 바 5개소가 성업중이며, 제3문에는 17개소의 가게와 10여곳의 노점상이 미군들이 즐겨 찾는 운동화·캐주얼복·담요·공예품 등을 팔고 있다.

필요 이상의 엄청난 공간

부산진구청은 올해 제2문쪽에 서울 이태원과 같은 쇼핑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행정관청이 앞장서서 주거지역을 미국화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하야리아부대가 위치한 부지는 일제 하에서는 일본 관리들의 경마장으로 사용돼 2.2km의 잔디위를 일본에서 싣고 온 기름진 말들이 경주를 벌였다. 해방 후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들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마장이 있는 소도시 '하이얼리어'의 이름을 따 애칭으로 불러 왔다.

50년대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야리아 부대 주둔 미군이 1만여명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천명도 채 안돼 필요 이상의 엄청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땅은 원래 사유지였으나 6·25이후 미군이 대거 주둔하면서 무단 점령해 사용하다 70년 정부에서 징발보상법을 적용, 징발해 미군쪽에 사용권을 넘겨 주었다.

국방부는 징발보상법에 따라 지주들에게 싯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보상증권을 일시에 교부, 다음해부터 10년동안 한 해에 10분의 1씩 나누어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가도록 조치했다. 그때 이후로 국가재산으로 귀속돼 국방부 소유가 되었으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

학교를 짓기 위해 경마장 부지 4만 2천평을 구입한 동아대의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60년 취득당기를 마쳤으나 강제로 징발되기도 했다. 이 땅은 현재의 싯가인 평당 3백만원씩 쳐도 5천억에 이르며 하야리아부대가 옮겨 갈 경우 땅값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 "납득이 안되는 일"

부대가 위치한 이 지역은 주택가로서 최적지인 노른자위 땅인 데다, 서면지역과 동래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 부산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택지가 부족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데다 도로유량



저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부산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하야리아부대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다급한 문제이다.

6·25때 이 땅을 강제 징발 당한 지주들은 "당시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강제 징발해 미군들이 사용토록 한 뒤 지난 70년에야 비로서 징발보상법에 의거, 싯가에 훨씬 못치는 보상증권을 주고 매입한 뒤 국유지로 귀속시켰다"며 "하루 빨리 미군들이 옮겨가 우선 분양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뿐 아니라 부산의 많은 시민들은 하야리아부대의 이전 문제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하야리아부대를 둘러본 시민들은 2백평 정도면 충분히 부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에도 17만평이 넘는 금싸라기땅에 미군들이 눌러 앉아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쪽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야리아부대는 매년 9월 말에서 10월초에 걸쳐 '스펙타클러축제'라는 행사를 열어 많은 부산시민들에게 미국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른바 '한·미유대 중진'과 '미군복지 기금 마련'을 명목으로 매년 이 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매년 9월이면 14차례에 걸쳐 한·미친선의

밤 행사도 열고 있으며, 봄철의 이자미와 3개월마다 여는 사명관배 한·미친선 볼링대회 등을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범전동 산동네 주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는 산 비탈에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 푸른 잔디위에서 필요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납득이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부산항의 요지 제55보급창

부산 동구 범일1동 40여 필지 7만1천여평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제55보급창은 제8부대를 통해 들어 오는 미군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이 지역은 주변 땅값이 평당 3백만원을 넘어서 땅값만도 2천 1백여원에 이른다.

제55보급창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제6부대 근처로 부산항 부두 가운데서 컨테이너 화물부두로 사용되기에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곳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만성적인 화물체증(체중)을 보이고있는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급창은 불목으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철조망을 치해 두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다.

미육군 부산항만관리사령부가 들어 있는 제8부대 전체 규모가 부두 1천20m, 하역장 2만1천6백90㎡ 이 가운데 미육군 항만관리사령부는 부두 4백20와 하역장 9천9백50평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은 이곳을 통해 평상시 미군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들여 오고 있으며 텀스피리트훈련 때는 병력과 사장이 이곳을 통해 2~3개월 동안 조달된다. 아시안게임 때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때는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미드웨이호가 입항하기 했다. 미 제7함대 소속으로 8만1천6백t급 니미츠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공모함단과 6만7천t급 미드웨이호가 올림픽 기간인 19일과 17일 한반도의 경제강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제8부대에 입했던 것.

니미츠호는 칼빈슨호와 더불어 세계 3대 항공모함의 하나로 미드웨이와 함께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 있거나 위기상황이 전개될 때면 어김없이 제8부대에 입항, 미국이 한국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을 과시하기도 했다.

미 항공모함이 제8부두나 부산항 외항에 정박, 미인들이 상륙 허가를 받는 날이면 부산역 앞 텍사스와 완월동은 여자가 모자라 동래 온천장지역에서 대거 동원시키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알려 사실.

부산지역 학생들의 경고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 에이즈 환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검역조차 받지 않고 상륙하는 미군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부산지역총학생협의회가 10~21일 열린 부산통일문화대동계 기간(10일에서 21일까지)인 19일 '부산지역 에이즈 추방 비상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은 갖고 에이즈 추방 운동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부산미문화원은 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대학생들에 점거되기도 한 수난을 겪고 있다. 48년부터 미문화원 겸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6·25 때 피난으로 부산에 임시수도가 옮겨 왔을 때 대사관 건물로 쓰이기도 했다.

반미 분위기가 점차 고조돼 가면서 미문화원은 한국 경찰에 둘러 싸여 보호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문화원은 시민들에 위화감과 함께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시민들은 항만과 관련돼 있는 하야리아부대를 제8부대로 이전시키고 제8부대와 보급창의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한·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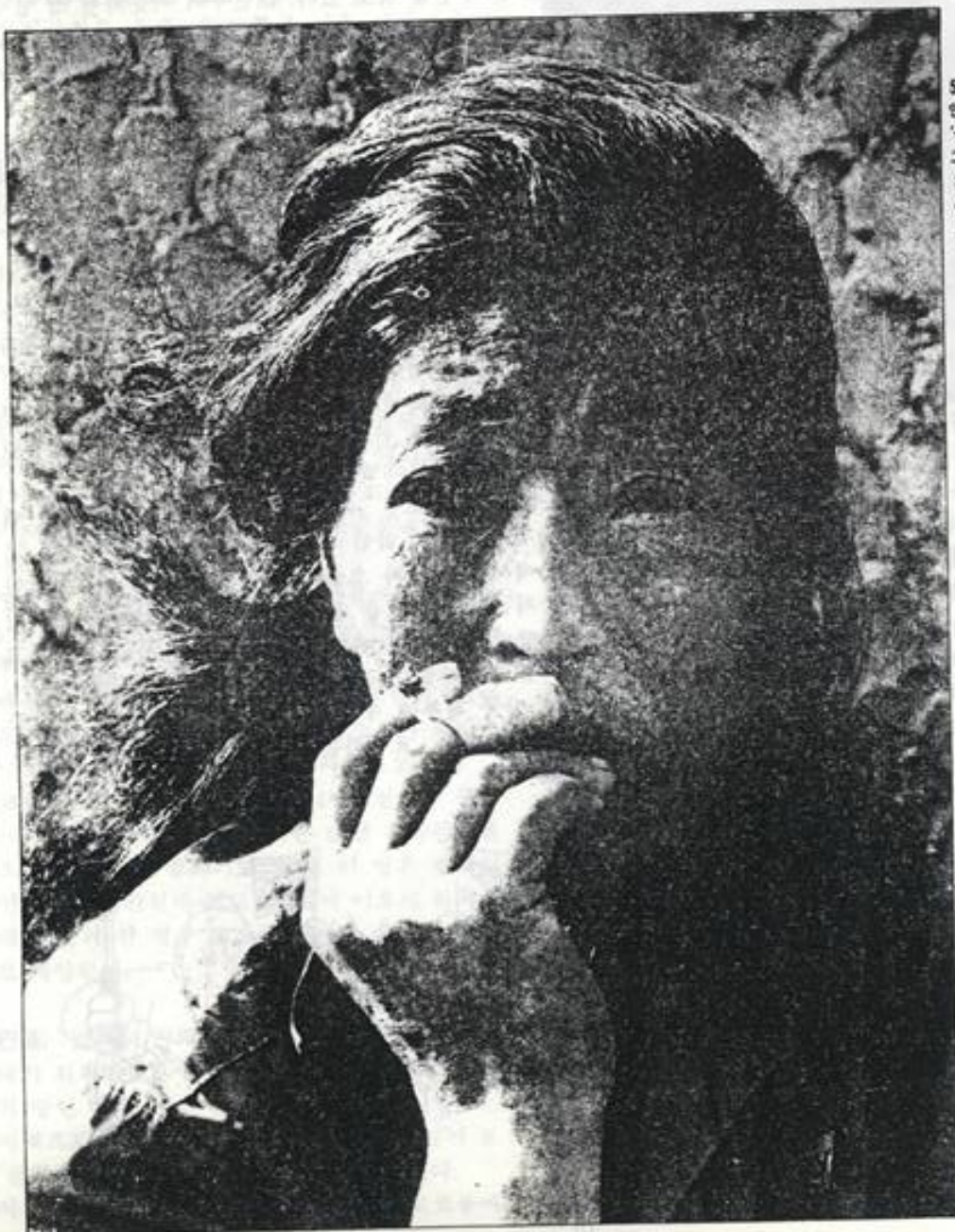
한편 우리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눌러 붙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미문화원도 돌려주든가 적절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경 '부산지역 청년학생 애국결사대'라고 밝힌 대학생 3명이 하야리아부대 정문에서 화염병과 오물이 담긴 병을 던지며 '미국인들의 폭행·만행을 용서하자'며 '미국인들의 폭력이 이땅에서 추방될 때까지 배달겨레의 자존심을 걸고 이를 용서하겠다'고 유인물을 뿌렸다. 이 사건은 한·미 양국 정부에 주한미군을 보는 그동안의 시각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한 미 7공군과 한국민중들

송탄, 군산 미공군기지



51세의 양공주, 군산 A 안미달, 15세부터 38년 '성조기'라 불리며 '후시'라 불리며 한미리 뿐. 이젠 살고 별들어 산니 팔아 생계를 잇고 있다

주목받는 주한미7공군

해와 조기경보기— 주한미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거론하는 무기들이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조기경보기는 눈과 귀다. 핵은 최후의 보신술이자 최악의 공격술이다. 그 핵심적인 두가지를 자기 아닌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 지 닥쳐올 수 있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도움받기 시작한 때부터 너무나도 확실한 군사적 예측의 늪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한미7공군이 요즘 들어 주목을 받는 것도 그러한 예측이 가져다줄 수 있는 엄청난 민족적 전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터이다.

미태평양공군사령부 예하의 하나인 주한 미7공군의 주전력은 오산기지의 제51전투비행대대와 군산기지의 제8전투비행대대이다. 1만2천여명의 미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18개의 크고작은 주한미공군기지 중에서도 취재진이 현장취재

시의버스를 타면 1시간 남짓 달려 송탄시에 이른다. 인구 7만의 이 소도시는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부선에 의해 반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철로를 기점으로 좌변에 들어서면 마치 미국의 한 도시에 선 느낌이 든다. 화려한 영문 간판을 내건 상점들 앞에는 포장마차 대신 햄버거를 파는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송탄 하늘을 드나드는 미공군 비행사들이 송탄시를 항공촬영한다면, 송탄시는 드넓은 비행장 한 귀퉁이에 돌아난 한 덩이의 부스럼딱지처럼 보일 것이다.

한 맺힌 땅의 미공군본부

흔히 '오산미공군기지'라 불리는 송탄의 미군기지는 용산기지의 2배나 되는 국내 최대의 단일기지. 약 2백만 평인 이 기지는 태평양 지역에서도 필리핀 클라크공군기지에 이어 두번째로 큰 미공군기지다. 8천여명의 미군과 2천2백여명의 가족들이 그곳에 있다.

그러나 이 기지가 2.7km나 되는 활주로를 자랑하면서 주한미군의

3백여호 남짓의 농가가 평택평야의 언저리에 모여 농사와 함께 숲을 굽는 이름없는 한촌(寒村)이었다. 숲을 굽는 언덕배기라 하여 숲고개라 불린 이 마을은 6·25를 치르면서부터 미공군과 악연(?)을 맺고 '쑥밭'이 되어 '쑥고개'로 바뀌어 불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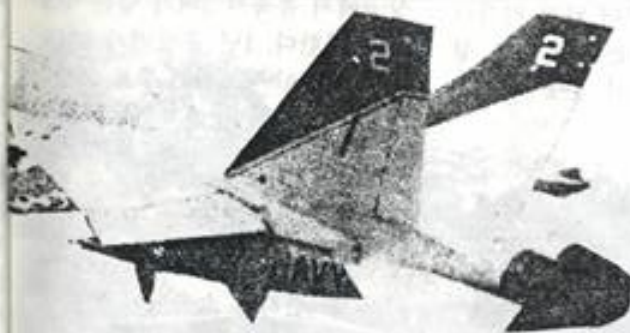
한국전 초기에 참전했던 21전투사단 소속 스미스 부대가 죽미령(쑥고개와 오산의 중간지점) 고개에서 인민군과 치른 첫전투에서 대패한 후 평택쪽으로 패주할 때였다. 미공군은 미군의 후퇴와 인민군의 전진속도를 계산하는 도상체크의 잘못으로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엉뚱한 지역에 맹목을 가해 숲고개를 쑥밭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

쑥고개에서 태어난 소설가 박석수씨(40세, 『철조망 속 휘파람』의 작가)는 "그 오복으로 마을사람들이 매죽음을 당했지만 보상은 커녕 정확한 피해 조차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전사(戰死)에서조차 당시의 피해상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서 생존자의 원한을 말했다.

실제로 전쟁 초기의 미공군 조종사들은 한국지형에 익숙지 못하다가 전황이 자주 바뀌어 여러 차례의 오폭사고를 빚어 한국군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서울신문사 편 『주한미군 40년』 p. 162).

미공군의 오폭과 보상 없는 이주

1951년 7월 9일, 불도저를 앞세운 미군 417공병대가 쑥고개에 물려들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마을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과 산, 가옥들이 무너뜨려지는 것을 보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다. 미공군 비행장 건설을 위한



최신예 전투기 F-105

한 곳이 앞의 두 기지다. 왜냐하면 오산기지는 대미 정보예측의 산실이라 할 수 있으며, 군산기지는 주한미군의 핵무기저장소이기 때문이다.

중추신경이 되기까지는 한국인 원주민들이 흘린 '원한의 피눈물'을 파묻고 또 묻었어야 하는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

현재의 송탄기지는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평택군 신장리 일대로

군용지 정발로 1천가구 5천여명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한글과 영문이 타이핑되어진 수상벽은 종이조각 하나였다. 즉, 1년 거치 10년 상환, 그것도 현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값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채권이 고향을 빼앗는 자들이 내미는 것의 전부였다.

현재 미군기지 철조망 옆에 사는 이용태씨(70, 신장1동 595번지)는 당시의 '강탈'을 회고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논밭이 5천평이었는데, 홀랑다 뺏겼지. 날벼락을 고스란히 맞았어. 몇년 후 힘들어서 논 2천평을 다시 마련했는데, 그것도 비행장 확장공사한다고 또 뺏더라구. 속병이 안날 수가 없었제."

52년 12월, 원주민들의 쌓여지는 원한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고속으로 6개월만에 완공된 비행장과 그 주변은 어느새 성조기의 나라가 되었다. 초가지붕은 원색의 영자간판이 걸린 각종의 상점에 밀려나고 바가지는 깡통으로 변하고, 덩기만 수줍은 처녀들만 있던 마을은 삼시간에 양공주의 마을로 변했다.

전쟁이 쑥밭을 만든 쑥고개의 순결.
쑥고개를 씌고개로 발음하는 외지 친구야.
우린 모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알파벳같은 썩푸가 되고
양갈보가 되고
짜도 짜도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이처럼 캄캄한 절망이 됐다.

박석수씨는 그의 시집 『쑥고개』에서 자기 고향이 '쑥고개'로까지 불리워지게 된 한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빼앗긴 자들의 수난은 꺾이나 지리한 것이었다. 앞의 이용태씨를 비롯한 수십명의 피해주민들은 완전보상 전까지는 땅사용료를 내야 한다면서 법정투쟁을 벌여 일정한 돈을 받았었다. 그러나 1966년 그들은 한·미행정협정 체결이라는 뉘서리를 맞게 된다. 한·미행정협 2조1항(나)는 주한미군에게 토지 무료사용권을 소급해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법이 바뀌었으니깐 받았던 사용료를 물어내라는 거야. 난 백오십만원 받았는데 오백만 원을 내라면서 전 재산에 차압을 부치더라구. 무식하고 힘이 없으니 할 수 있나…… 땅 뺏기고 고향 뺏기고 생돈 뺏기고"

7순의 이씨 노인은, 필리핀 사람들은 미군들로부터 되레 기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그저 시름없이 웃을 따름이었다.

정보예속의 실상

한 농부의 논밭이었을 송탄기지 힐(Hill) 180에는 미7공군본부와 제51전투비행단본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송탄기지에 있는 전투기들은 핵탄제가 가능한 F-4E(팬텀) 14대와 제5전술항공통제단 소속의 OV-10기 16대로 알려져 있다. OV-10은 폭격점 설정 및 폭격임무를 띤 비행기로서 지상지원작전 때 전방통제소 역할을 하는데, 평화시에는 폭동진압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비행장 부지로 땅을 빼앗긴 송탄의 아픔이 새겨져 있다.

무엇보다도 송탄기지가 다른 주한미군기지과 비교되는 특징은 대미정보예속의 현주소라는 점이다. 송탄에는 미전략공군사령부(SAC) 소속의 U-2첩보기 2대가 상주하고 있고 오기나와의 카데나기지 등에서 가끔 SR-71첩보기와 E-3A 공중관제 및 조기경보기가 날아오고 있다. 요사이에는 팬텀기를 정찰기로 개조한 RF-4C 3대가 오기나와에서 파견나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인 전자정찰기 SR-71은 2만5천미터 상공에서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한다. 1년 운임비가 2억달러나 되는 이 정찰기는 주로 영상·사진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에 25만여 이상의 판독과 촬영이 가능하다.

송탄기지에 있는 또 하나의 정보센터는 미공군 전자 보안사령관(ESC)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ESC는 전자통신보안, 전자첩보전쟁(감청·전자방해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김일성 사망시의 진원지가 바로 이 부대였다. 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한바탕의 해프닝은 대미정보예속의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줄 것이었다.

주한미군과 미태평양 지구사

부의 정보부대 등에서 수집한 한반도 관련 정보는 한·미연합사로 집중된다. 그러나 연합사의 모든 업무가 한·미군 장교들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장교들이 근접할 수 없는 사무실이나 비밀문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송탄의 미군정보분석실 중에는 한국공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군출입금지' 실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공군에 대한 정보예속은 이미 한·미연합사의 지휘체제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다. 미7공군 사령관인 로저스 중장은 한국공군까지 작전통제 하에 두고 있다. 송탄에서는 정례 한·미공군지휘관 회의가 자주 열린다. 그런데 정보예속은 미국이 한국의 군수산업에 전략적으로 예측시키려는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미해군대학원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에드워드 올센은 「한국: 과대노출된 반도」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가는

단골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워싱턴당국은 한국이 독립된 무기생산국이 되려는 자세를 버리고, 미국회사들과 함께 무기를 공동제작하고 미국의 부품을 사다가 쓰는 상대로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은 거의 영구히 최신품기체제의 소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대국의 국방위에서 당시 신민당의 허경구의원은 "미국의 국방성과 국무성이 거미줄 같은 검열제도를 뒀 한국의 방위산업에 갖가지 제한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골프장과 미군자녀 국민학교

송탄시내 한 택기기사 취재진이 기지 주변을 돌아보고 싶다고 말하자 깜짝 놀라며 승차를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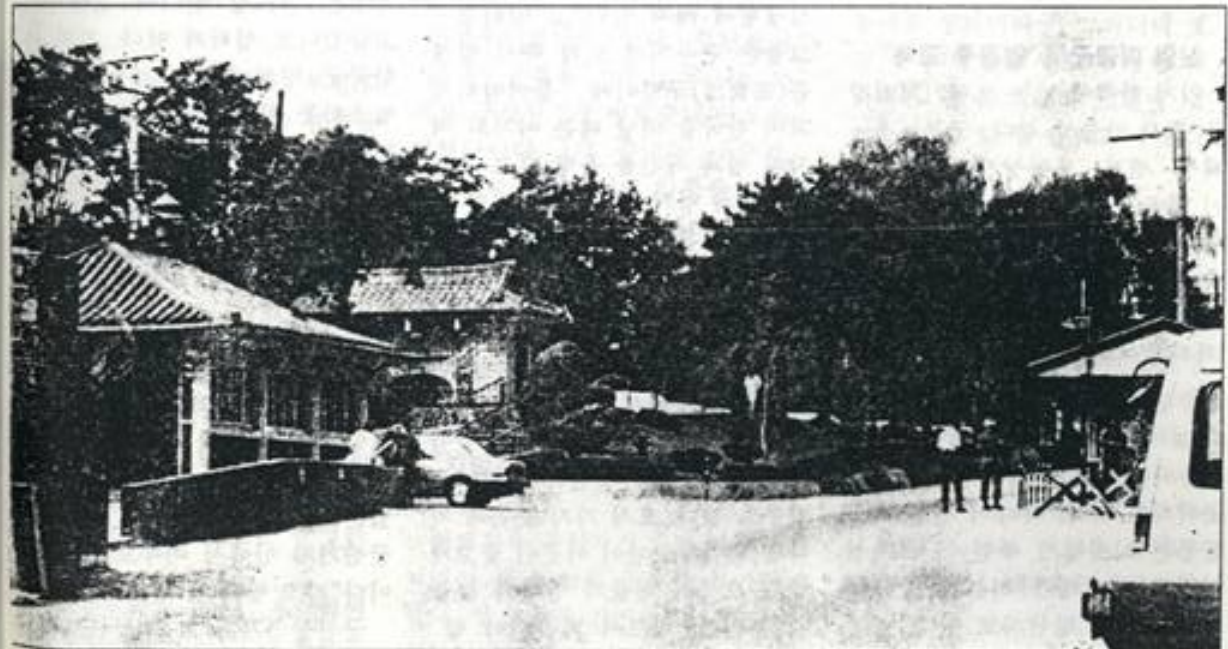
"사진 한 방 찍는 것이 곧 총한방 맞는 것이여. 한국부대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나."

송탄기지 내부는 군시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공간이 미국식으로 꾸며진 소도시를 이루고 있다. 도로의 신호등 작동체계까지도 미국식이다. 이발소·체육관·영화관·클럽 등의 위락시설 외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홀짜리 미군전용 골프장이다. 미군하사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골프장에는 한국군대령 이하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기지 안에는 미군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학교도 있다. 학생 수는 4백명 정도. 특이한 것은 학교 건물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이다. 혹시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사고가 날까봐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한다. 학생용 점심식사는 2달러씩 받는데 그 수준이 우리나라의 호텔급이다. 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그런 호화시설들을 보면 "이따금씩 우리나라 국민학교 생각이 나 분통이 터지다 못해 한심했다"고 말했다.

기지의 주요건물 앞에 설치된

송탄기지 정문.





송탄기지 주변 사진관에 찍힌 사진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하기식 시간이 되면 먼저 애국가가 나오면서 태극기가 내려진다. 그 다음이 성조기다. 우천시에는 태극기는 내려지지만 성조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걸려 있다. 송탄기지에서 미공군을 지원하는 병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한국인은 "태극기가 먼저 내려질 때나 성조기만 나부낄 때는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신입 미공군의 '양공주 교육'

기지 한쪽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은 흡사 만물상 같다. 구두·옷·책상·엔진·포탄상자·파지 등이 썰렁고 있다. 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인 아주머니가 쓰레기더미 속에서 통닭을 골라내 먹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처리장'이다.

송탄기지는 텅스퍼리트훈련에서 보여지듯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송되는 병력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입 미공군들은 이곳에서 주한미군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종종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

데 이들이 받는 교육내용 중에는 '한국여자와 어떻게 사귀어야 무리 없이, 귀찮지 않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도 포함되어 있다(한 한국군 병사가 확인해준 내용).

그러한 교육이 굳이 필요했던 것은 주한미군의 문란한 성생활이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주한미군 군목(軍牧) 언스트 W. 카스튼씨는 64년 10월 본국에 낸 보고서에서 "주한미군들의 90%는 비도덕적인 성생활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근무지에 도착 즉시 밀매음(密賣淫)구덩이에 들어박히게 되며 한국을 떠날 때는 여자와 여자의 집과 세간을 몽땅 새로 오는 사람에게 넘겨파는 비도덕적인 일까지 저지른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현재 송탄에는 약 1천5백여명의 양공주가 있다.

37년째 미국의 소도시가 돼버린 송탄기지 안에서 이땅이 원래 한국인의 땅이었고 한국인이 살았다는 것을 새삼 강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기지 곳곳에 자라난 참나무들만이 이곳이 숲고개였고 오향의 핏물과 실향의 눈물이 뿌려진, 반드시 되찾아야 할

땅이란 것을 떠오르게 해주고 있다.

군산 핵기지의 수수께끼들

군산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미국의 핵무기고 노릇을 하고 있는 군산미공군기지가 나타난다. 핵구역상 옥구군 옥봉리 일대인 기지의 둘레는 약 8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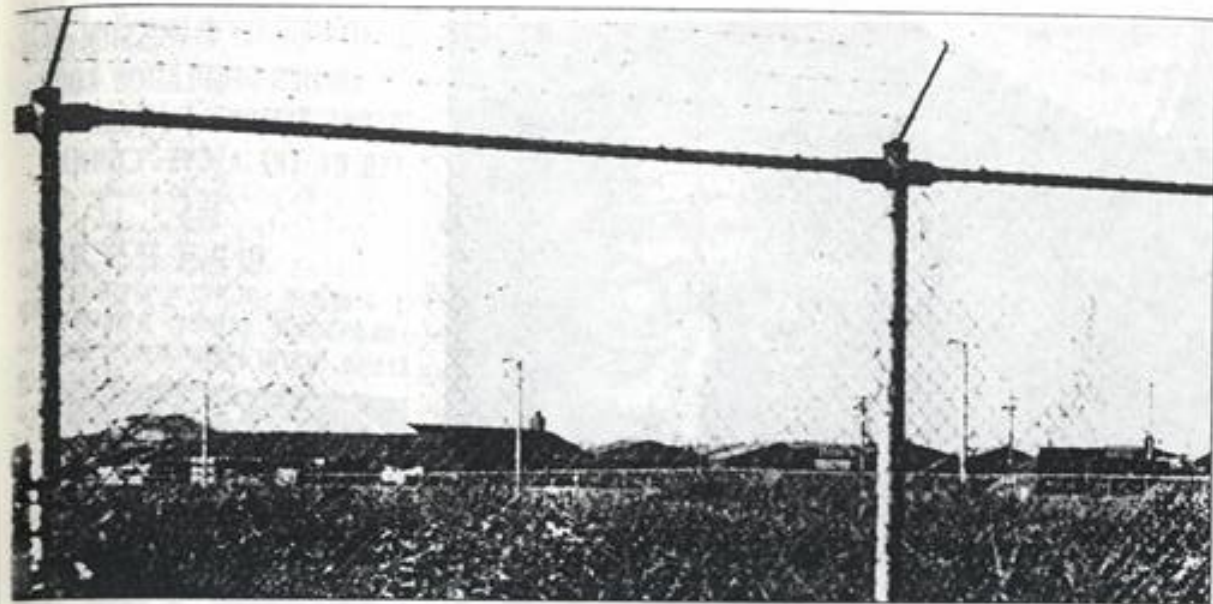
미공군 2천여명과 그 가족, 그리고 미군기지를 보호해주는 한 육군포대, 해안대대가 주둔해 있다.

옥구평야를 가로질러 쳐져 있는 미군기지 철조망을 따라 차를 달리다 보면 기지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이 있다. 여러 시설물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탄약로 보이는 지하시설물들이다. 지 전체에 산재해 있는 이 지하시설물의 지상으로 돌출된 부분 마치 거대한 왕룡 같아 보인다.

수십개에 달하는 이 시설물 정식 명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지 내의 한국군들 사이에서 '목장'이라는 은어로 불린다. 목장은 골프장 잔디에 견줄만 고급잔디로 임혀져 있다. 기지 한국군 방위병들은 조상의 묘별초하듯 한달에도 몇번씩 이 밀에 싸인 '목장'을 다듬는다.

새로운 '목장' 들은 최근까지 계속 만들어져 왔다. 작년 옥구 당대부터 10여호의 농가가 철거되어 인근마을로 이주한 것도 새 들어선 '목장' 때문이었다고 한다. 목장이 "핵무기 저장소가 아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지 매일 드나드는 한 한국인은 "탄고인 것 같은데, 그곳에 핵무기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한국인 군산기지 안에서 아무도 없을 이다"라고 답했다.

군산공군기지가 주한미군의



기 저장소라는 사실들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85년 초 군산기지에는 F-4, F-16 핵전기에 탑재할 수 있는 60발의 핵탄두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미 육군 관할의 원자와탄(핵지뢰) 21기와 야포용 핵탄 70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스트 존 미사일의 핵탄두 역시 군산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핵무기 유무를 긍정도 부정도 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취해왔 미국은 지난 86년 3월 미하원 공개 청문회에서 군산의 핵무기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다. 내용인즉 군산미군기지에 핵기를 저장할 수 있는 탄약고(무저장안전시스템: WS)를 건설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설은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군산 유일하게 선택되었다. 어쨌든 많은 목장들은 핵무기저장탄약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하겠다.

기지 주변에서 만난 홍재희씨(3 옥구군 해성리)는 "왜 핵무기

같은 위험천만한 미국의 괴물이 내 고장에 있어야 하느냐"면서 "저 지하시설들을 볼 때마다 원폭피해자들의 흉칙한 물결이 생각나 섬짓섬жит 해진다"고 불안해했다.

그런데 군산기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불안의 그림자는 비단군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한민족 모두에게 드리워지고 있다. 군산기지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미 제8전투비행단이 있다. 핵탄재가 가능한 공격용 전투기 F-16 48대로 구성된 2개 비행중대 규모의 비행단이다. 1개 중대는 공중전, 1개 중대는 지상지원 임무를 띠고 있다. F-16은 미국의 제너럴다이내믹스 회사에서 생산되는데, 기체 외부에 9개의 병기고가 달려 있다. 동체 아래에 하나, 날개 아래 여섯개, 양 날개 끝에 하나씩의 병기저장고가 있다.

"지랄같은 해방이 내 신세를 조졌다"

취재진은 군산기지 주변을 취재하면서 세 노인의 눈물을 보아야 했다. 첫 눈물은 기지의 역사를 들으면서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는 호남쌀을 수탈하기 위해 군산을 근대적인 항구로 개발하고 창고·정미소·철도 등을 세웠다. 1932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대륙병참의 목적 하에 군산에 비행장 건설을 시작했다(1937년).

"어느날 갑자기 긴 칼한 일본군 네다섯명이 망원경을 가져와 동네를 살피더라구, 그러더니 몇달 후 비행장을 만드니 당장 떠나라는 거야. 식솔이 열명이 넘었는데 땅 한 뼨 안주고 다 쫓더라구"

당시 옥구군 중재마을에 살았던 장진규씨(81, 옥구군 장천리)는 일본군에게 집과 1만평의 논밭과 산을 빼앗겼다. 인근 마을에 살던 1백40가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신세가 되어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다.

"쫓겨나서는 보국대로 동원돼서 비행장 닦는 작업을 강제로 했재. 내 동네, 내 집을 파뒤집어 없는데…… 차라리 같이 묻히고 싶었어. 동네가 사라지고 환주로



"그 지랄같은 해방이 내 신세를 조진 것이여" 한세의 군산할아버지가 일제에 비행장부지로 빼앗긴 땅을 제정되고 찾을 줄 있었는데 다시 미군이 빼앗아 갔다며 뚝뚝 눈물을 흘린다.

WITHOUT THE PERMISSION OF
TY DUTIES REGULATION KORE
PERSONS ENTERING THIS AREA A
TED BY THE ABOVE COMMAN

김 고 미공군 군산기지

이 사람의 해방이 내 신세를 조진 것이여
이 사람의 해방이 내 신세를 조진 것이여
이 사람의 해방이 내 신세를 조진 것이여



가 들어서고 일본놈들이 설쳐도
한시도 그 땅을 잊은 적이 없었
구만. 일본놈들이 언젠간 망할거
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다……"

입을 열 때부터 눈시울을 붉히
던 팔순의 노인은 끝내 꾸글꾸글
한 주먹으로 눈등을 닦았다.

"그 지랄같은 해방이 내 신세
를 조진 것이여. 천황목소리 들
자마자 일본군 뺨대기 때린 사
람이 나여. 일반평의 내똥을 찾
게 된다 싶으니 밥을 안먹어도
배가 불렀제. 그런디 그것이 딱
한 달을 못 넘기드라구. 9월 8일,
미군놈들이 총 들고 몰려오더니
자기를 땅이래. 니기미놈의 해방,
이놈의 땅이 언제나 조선땅이 될
른지."

노인은 아직까지도 꿈속에서 일

어버린 땅들이 보이고 미군기지를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와 가뜩이
나 새벽잠이 짧아 졌다면서 "나는
신세 조진 것이여"라는 말을 되뇌
었다.

해방의 기쁨을 맛아가면서 군산
기지를 점령한 미군은 서둘러 기
지확장공사를 했다. 또다시 몇명
의 농부들이 한(恨)을 간직하게
되었다. 현재의 미군기지가 바라
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옥구군 선
연리 선연노인회관에 모여드는 노
인네들은 거의가 '동병상련'(同病
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

미군에 사실당한 군산 소년

옥구군 옥봉리 하계부락 뒤 공
동묘지. 미군기지가 흰히 보이는
이 민둥산에는 15살의 어린 나이
에 미군에게 총살당한 한 학생이
묻혀져 있다. '1971년 4월 25일 줄
(卒), 서흥석의 묘'라고 쓰여진 묘

비명 주위엔 들꽃과 잡초가 무
하다.

"군산고등학교 2학년 다녔
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여자에
이 착했제라. 반에 매어둔 열
가지로 나가더니 총소리와 함
미군 철조망 근처의 눈에 쓰러
부엌어라."

자식의 묘지 앞에 선 서정록(6
씨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눈물
주주룩 흘린다. 두번째 군산 노
의 눈물이었다.

서군의 죽음은 참으로 어처구
없는 것이었다. 서군을 과녁으
삼았던 미공군 철조망 보조병
사건 직전 서군의 친구 2명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한다. 화가 난
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철조
에서 50m 떨어진 눈에 있던 서
을 정조준, 사살해버린 것이다.

사건에 접한 마을사람들은 "미
놈 때려 죽이자"며 쟁이와 삼을
고 철조망으로 몰려가 천막을
고 이틀간 농성을 벌였다.

"총 쏜 놈 쌍팔대기나 보자고
했더니 보여줄 수 없다고,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 미군
한테서 보상비로 백팔십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국정부가 절
반을 분담한 것이었어. 참 후대
아들놈들이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그 진가를
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한국
부의 재판권 포기, 범인 신병화
의 포기는 물론 보상에 있어서
그랬다. 행정협정 5조 <마>항
상규정에는—

①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
에는…… 한국이 25%를, 미국이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피해보
상 한다.

② …… 피해가 한국군이나 미
국군에게 의해 일어나고 그 손해
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은 한
국과 미국이 균등히 분담한다.

위 협정을 읽는 한국인이면 누
나 분노의 질문을 던지고 싶을
이다. 왜 미군만이 책임이 있는
죄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25%나
담을 해야 하는가. 더군다나 서
사건의 경우에는 분명하고도 명
하게 미군만이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부는 절반을 분담했다. "어
일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
경우"라면서.

아직까지도 아들모습이 잊혀지
않는다는 서군의 아버지는 "아
이 사건도 당시 언론에 보도되

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나 같이
숨죽여 흐느끼고만 있는 미군 피
해자가족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과 나라가 아쉽다"고
말했다.

핵기지에 날아든 분노의 화염병

군산기지 주변의 한국인에 대한
미군만행은 오래 전부터 심심찮게
일어났었다. 57년 9월10일에는 미
군비행장에서 물을 빼는 소녀 7명
에게 미군이 카빈총을 난사, 2명
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미군은
소녀들에게 물을 빼도 좋다고 비
행장 안으로 들어오라면서 손짓까
지 해놓고는 총격을 가했다. 그리
고 달아나는 소녀들을 잡아 발길
질을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가해자인 테일러 하사와 영 이병
은 고작 3개월 중노동과 감봉처분
을 받았을 뿐이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지난 6
월 19일 술취한 미군병사 4명이
옥구택시기사 고재영씨(34)를 차
를 늦게 몬다고 집단폭행한 만행
이었다. 이 사건은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군산미군기지
에 사상 처음으로 화염병이 날아
들기도 했다.

결국 군산시민들의 강력한 대응
으로 군산기지사령관인 브루스 A.

샌더스 미공군대령이 도지사과 시
장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피해자들
에게 10만원씩의 위로금을 전달하
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미군
측은 항의 시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여전히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
였다.

시민대표: 가해자인 미군 병
사의 신원을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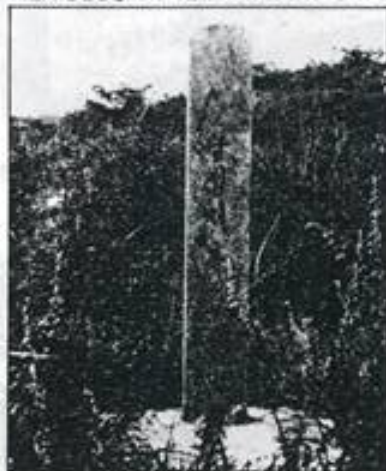
미군대표: 그 사항은 한·미
협정에 위반되므로 알려 줄 수
없다.

주민: 작전권 밖에 있는 택시
기사에게 위협사격 자세를 취한
미헌병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
는가.

미군: 기지 주변은 군 작전권
지역이다. 미헌병의 의무는 미군
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택
시기사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없
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총격과 폭행에 의한 피
해 외에도 기지 주변 주민들은 적
지않은 재산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다. 옥구군 옥봉리 남대옥(63)
씨는 비가 올 때 기지 안 변전소
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때문에 7백
여평의 논 수확이 격감하고 있다
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윤

미군에 총살당한 15세 소년의 묘지 원한의 눈이 환한데 감칠 때는 언제?





장하고 경찰서장한테 전의했더니, 글씨 고쳐주지는 않고 전방 한 상자 보내주지만"하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옥봉리 주민들은 또 올해 미군기지에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아파트 1백44세대가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다량의 지하수 때문에 식수난을 겪고 있다.

성조기 따라 3만리, 그러나……

옥구군 미성읍 산북리 505번지. 이곳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모두 한국인데도 '내국인 출입금지' 경고판이 붙어있는 곳이다. 실버타운, 혹은 A타운이라고도 불리는 이 미군전용 기지촌에는 6백명 정도의 양공주가 있다. 경비원과 실갱이 끝에 가까스로 들어가 본 A타운 안에는 약 22개의 휴과 양공주 집단수용소가 몇동, 그리고 이발소·세탁소·약국·오락실·상점 등이 밀집해 있었다.

취재진은 A타운 한 약국 앞에서 우연히 '양공주 할머니'를 만났

다. 그는 안마담이라고 했다.

"내 나이 오십이 넘었으니 기지촌 생활이 36년째구만. 파주·이태원·부평·대구·송탄, 미군 따라 안가본 데가 없어. 그러나 이젠 늙고 병들고……"

취재를 거부하던 안씨는 차츰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눈망울이 흐려졌다. 군산에서 본 세번째 노인의 눈물이었다.

"열 다섯살 때 씨커스 따라다니다 힘들어 도망쳤는데, 경찰한테 잡혔지. 그 경찰이 날 포주에게 팔아넘긴거야. 맨 정신에 누가 이것 하겠어. 마약도 참 많이 먹었지."

안씨는 젊었을 때 미군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뒀지만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얼굴조차도 모른다고 했다. 미군 남편은 월남

전에서 죽었고 현재 안씨와 가족가깝게 지내는 가족은 루시라는 이름의 강아지 한마리뿐이라 했다. 심각한 위염증세로 고생하고 있는 그는 요즈음 산나물을 뜯어 시장에 내다팔아 식월세 방값을 치르며 살고 있다.

'성조기 따라 3만리'였건만 미군이 그녀에게 남겨 준것은 병약한 몸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주름살이 가득찬 그 얼굴은 아직도 미국을 맹신하고 성조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예속정부의 앞날을 경고하고 있는듯이 보였다.

취재진을 줄곧 안내해준 옥구군의 한 젊은 농민은 A타운을 나오면서 "저들을 군산에서 몰아내이지만이 군산 노인네들의 눈물이 마를꺼려"라며 하늘을 가리켰다. F-16 전투기 한대가 굉음을 내면서 한국의 새파란 가을 하늘을 찢고 있었다.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미군에게 속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클럽여성

"저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게 해주세요." 커다랗고 매력적인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한구석에 앉아 있다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얘기를 시작했다. 기지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두려방에서 자주 가보는 송산 성병 진로소에서의 일이었다. 방에는 열다섯 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성병 검진을 받으러 나오는 여성들이었다.

순옥은 청주가 고향이며 상업고교를 졸업했고 송산에 온 지 3~4개월쯤 되었다. 그녀는 송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스무살의 백인 미군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은 빚을 안고 클럽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때문에 주인에게 묶임 뿐 아니라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순옥의 예인인 조이(가명)는 동거하기를 원했다. 순옥은 주변에 있는 고리대금업자 아줌마에게 달려 이자로 사채를 얻어 클럽 주인에게 전 빚을 갚았다. 클럽입도 그만 두고 방을 얻었다. 조이는 사채를 다달이 갚기 시작했으나 워낙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월급도 작았으므로 살기가 벅찼다. 그래서 순옥은 만두집에서 일도 하고 양말을 짜서 생계를 보강했는데, 그래도 마냥 행복했다. 그러던 중 동거 상대가 되는 어느날 순옥은 고향에 들르러 갔다. 그 사이 조이는 이태원에 놀러갔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그녀는 순옥이 고향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나가버렸다. 순옥은 사채를 혼자 갚을 길이 없어 클럽에 다시 들어가면서 또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처음 송산에 왔을 때 빌린 것보다 두 배나 되었다.

사채를 얻을 때 조이와 그녀는 이름을 같이 증서에 넣었다. 또한 조이는 내년 유월까지 모두 갚는다고 서약했는데 실제로 그는 내년 오월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빚을 다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녀가 갚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종 빚을 갚지 않고 떠나는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순옥이 일하는 클럽에는 조이의 친구 여러 명이 오곤 했는데, 순옥은 그들에게 조이에 대한 불만을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순옥의 서투른 영어보다는 조이의 말을 더 믿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이에게 불평을 하면 다른 미군들이 그녀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클럽측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순옥은 생계를 위해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성들이 분개하거나 안타까와 하면서 이런 사설들이 가끔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 우리는 약소국민이며 또한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후에 순옥이 사는 클럽 방에 찾아가 좀더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조이의 상사나 미군 당국에 이런 사설들을 알리려고 생각하며 순옥이

사채를 얻을 때 받았던 증서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그녀는 조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채를 갚은 후 그의 앞에서 증서를 벗어버렸다고 한다. 실사 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조이가 그런 일로 인해 계급이 강등되거나 빚을 받으면, 그는 보복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순옥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쉽고, 결국 순옥은 영입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순옥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경우, 돈이야 갚으면 되지만 어떻게 다른 미군을 믿을 수 있는나고 하소연했다. 또다시 어떤 미군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해도 그녀는 믿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미군도 불신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서로간의 불신의 벽은 점점 두터워지게 되고, 순옥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미군은 답답한 군대 생활에서 일시나마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순옥의 경우, 상처가 그녀의 가슴 속에 굳어지기 전에 우리와 만남으로써 그녀의 한이 터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순옥과 비슷한 처지의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면 많은 상처로 인해 굳어진 얼굴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순옥은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좀더 진실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곳이 살이든 나는 한국여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미군과 결혼, 미국으로 떠나는 여성

그날도 폭죽 찢어대는 더운 날씨였다.

작년 어느 여름날, 두레방 영어교실에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총명하고 빠른 판단력을 발휘해 우리를 감탄케 했던 Ms. Hen Son (미스헨슨)이 불쑥 찾아왔다.

많이 울었던듯 눈가에 불그레한 눈물자국이 남아있었다.

늘 쾌활하고 생기에 넘치는 결혼한살의 여성이었기에 더욱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조금 진정시킨 다음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날은 밤 12시까지 마쳤지만 울음 그녀가 남편 (Mr. Henson)을 따라 미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나눈 그녀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참 많이도 같이 울었다.

강원도 어느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현자는 8남매의 6째였다. 아버지는 시골장을 돌며 소를 팔고사는 소장사였다.

시골살림치고는 어렵지 않아서였는지 아버지는 돈을 버는 족족 노름판을 찾았고 여자를 바꾸어 댔다.

어머니와 불화가 심했을 것은 물론이었고 현자가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늘 상 싸우고 울고 (어머니) 마시고 취해있는 모습이였다.

상담이 한창 무르익은 어느날 현자가 스스로 진단한 바에 의하면 자신의 성격이 호전적인 이유가 (현자는 싸우

지 않고 오랫동안 평화로우면 오히려 불안하다고 했다) 아마도 어렸을적 항상 싸움이 계속되는 집안에서 자란 때문인것 같다고 했다.

그래도 형제자매들 모두 머리가 총명해서였는지 오빠들은 고등학교를, 언니와 여동생들은 중학교를 각각 졸업하게 되었다.

현자만 유일하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 많은 집안일을 혼자 꾸려가고 있었다.

살림에서 일찍이 손을 놓아버린 어머니를 대신해서 많은 가족들의 취치와 거리는 물론 청소, 빨래, 밭일에 서부터 커다란 외양간을 깔입없이 드나드는 소들의 여물먹이기 돌보기 등등 정말 억척같이 일했다.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일잘하는것 하나만큼은 인정받았다. 열아홉되던 해 혼담이 들어왔다.

이웃마을의 포실한 중농이었는데 그 집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접하게 되자 부러움과 아울러 묘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었다.

싸움이 그치지않는 집에서 살다가 가족수도 적고 조용한 집에서 살 때, 내세울게 없는 자신이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어떤 처신을 하고 지내야 할 것이며가 큰 걱정거리였다.

생각다 못해 가솔한 그녀는 남편인 어느 항구도시에 살고있는 언니 집에 의

탁했고 노동하는 남자를 곧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두아들을 낳을 동안은 그럭저럭 평온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덜컥 병으로 눕게되자 남편은 아내의 병을 돌보기는 커녕 두아들이 있는데도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다.

남편은 가솔한 후 만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긴 후 병원에도 못가고 방에 누운 채 뼈와 가죽만 남도록 말라가고 있던 그녀는 엄청난 절친격으로 자궁출혈까지 생겼다.

친정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친 현자는 모진 결심을 했다.

‘오나, 내가 돈을 벌어서 내자식들을 돌보겠다.’

그러나 국민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유부녀인 그녀에게 열려있는 직장은 서비스업 밖에 없었다.

숨을 팔면서, 매매출을 하면서, 자신의 팔자를 두둑하면서 절망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 생각을 하며 국뽕 참았다.

매달 시댁에 돈도 부치고 아이들 옷가지도 사서 보냈다. 3년을 그렇게 하는 동안 남편은 아이들을 찾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이들 돌보기 힘들다고 현자에게 데려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생각다 못해 현자는 국제결혼을 생각해 보았다.

‘외국사람들은 자기 친자

식이 아니더라도 잘 받아준다던데 나도 그 남자의 애를 잘 키워준다면 그 남자로 내 애를 키워주지 않을까?’

동두천의 미군전용 클럽으로 옮기고 두세달 만에 지금의 남편과 만났다.

40대의 키가 훌쩍큰 미군이였다.

아이가 들있는 두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남자였다. 아이들은 첫번째 부인이 돌보고 있었으며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

결혼 수속을 시작하면서 현자는 결혼후 자기아이를 미국에 데려간다는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결혼한 남편은 이들을 데려오려 하지 않았다. 한국사관을 명시하는 태도를 늘 취해왔고 그때마다 현자는 분했지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관계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현자는 친구에게서 ‘두레방’을 소개받고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데사에 적극적이였다.

두레방에 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과 자신의 재학력과 거친 직업들이 자신의 불행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것들을 너무도 목마른듯이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남편의 민족적 우월감이 더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깨달아 가면서 그 갈등은 더 심해져 갔다.

가솔한 한국에 남아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

고 싶었지만 이 땅의 사회구조가 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미국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면서 그녀는 말했다.

“미국사람하고 결혼하고 미국가서 산다고 내가 미국여자가 될수 있겠어?”

나는 어디까지나 한국여자니까!”



외로워도 곳곳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미군과 같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성

지난 5월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초청으로 미국순회강연을 마친 후,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 살고있는 두레방 회원몇명을 방문하게 되었다. 시카고를 떠나 루이지애나에 있는 진순과 미옥을 만났다. 남편과 함께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순을 보는 순간 반갑고 편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펴 뿜었다.

그간 운전을 배운 진순은 굳이 자신이 운전을 하여 나를 자기집으로 안내하고자했다.

똑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순은 미국에서도 역시 부지런히 살고 있었다. 두레방에서 권했던대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영어를 배우고 운전도 배웠다고 했다.

밝은 표정 사이사이로 어두운 모습이 스쳐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만 본인이 말을 시작할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들이 지난주 남편이 야간운전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밤새껏 얘기하던 중 진순은 표정이 차츰 어두워지면서 급기야는 주무룩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걱정할까봐 좋은 변만 보이려고 애썼는데 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외롭고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다고. 두레방에서 가르친대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열심히 어울리고 한 일년은 그런대로 견뎌만 했는데 요즘은 너무 외롭고 가끔씩은 죽고 싶어 진다는 것이었다.



미옥은 까무잡잡하던 얼굴이 더 새까맣아 있었다. 한국을 떠나기전 남았던 이기는 어느새 걷어다니며 말썽을 파울 정도로 커졌었고, 가정은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져 불편했다.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던 미옥은 미국에서도 역시 솜씨를 발휘하여 돈을 번다고 했다. 무뎌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군인 남편이 타오는 월급만큼은 밑에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한국여성 세명이 한 동아리가 되어서 놀 같이 모여다니며 함께 점심을 먹고 세가죽이 함께 주말을 보낸다고 한다.

김치도 늘 당그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호뭉치게 느껴졌다. 함께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셋 중 하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도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아 남편도 이웃도 이 여성을 포기했는데, 오로지 미옥의 그늘에서만 받아주고 있는 여성이었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남자에게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두달고 연이 빠져서, 공포 있고 가발을 쓴채로 사흘간 거리를 헤매다보니 죽을수는 없더라구요. 직업 소개소라는 데를 찾아갔더니 보내준곳이 안정리였어요. 거기촌이었는데 나이가 너무어려서 포주가 나이를 올려서 가짜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서른여섯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른세살이에요.

안정리에서 삼년 일한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모 여성 월간지에 부탁한 편지가 인연이 되어 이십여년간 연라이 끊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기대에 부풀어 한국을 두달간 다녀온 후부터 그녀는 이상한 중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미옥은 말했다. 이상한 짓만하고 년년간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만 자기들이 있는 한 그리 쉽게 이혼당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원인을 찾아내어 같이 극복해보고 싶었으나 일정에 쫓겨 아쉽방도가 없었다. 미옥에게 부탁하여 절대로 이 여성을 포기하지 말고 친구로 지내라고 당부하며 오콜라호마를 하겠다. 떠나기전 세 여성중 다른 한명이 묻던 말이 아직도 새롭다. 미국의 10개주 20개 도시 이상을 순회하며 강연했다는 내 말에 "미국이 다 이기처럼 시끄러운 아니지요? 후업지근하고 살기 불편하고.... 나는 남편과 결혼한 후 미국에 온지 13년째가 되는데 이 부대 근처에서만 살아서 미국의 다른 곳은 어떤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콜라호마로 합하는 19인승 경비행기는 그곳이 얼마나 오지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

순란과 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곧 순란의 집으로 합했다. 수확해 보인다고 했더니 순란은 흔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음, 자기한테서 온다는 전화 받은 후부터 일주일간 거의 먹지도 못했어. 마음이 들떠가지고는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하고, 겨우 남편 밥만 챙겨 먹었어. 근데 어저께 갑자기 내가 너무 추하게 보일 것 같아서 파마했거든, 어때 질 나왔어?"

현자의 집 말고 굳이 자기 집에서만 묵으라고 강권하여 순란의 집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현자는 매일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는 임신한 몸으로 두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운전해서 오고는 했다.

처음 이틀간을 거의 새면서 우리는 설새 없이 이야기를 했다.

정도 많고 눈물도 웃음도 많고 씩씩하던 순란은 여전히 큰 목소리를 과시하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아이구, 말두말어, 나 얼마나 고생했었다구. 자기두 알다시피 지금 남편 잔 한테는 내가 세번째 마누라잖아? 첫번째는 오끼나와 여자, 두번째가 하와이여자, 그 다음이 나잖아?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시댁에를 갔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통가루 집안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버님이 각각 세번째 결혼을 했고 1번 이상씩은 교도소에도 다녀온거라, 물론 내 남편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시댁에서 한달 휴가를 마치고 남편이 배치된 이 곳 부대로 왔다.

미국에 재산이 조금 있는 것처럼 말했던 건 순 거짓말이었고 알지못했어. 한국에선들 내가 고생안했잖나 싶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자기두 잔의 성질을 알잖아? 잔잔하구 주체에 질난적하는 거 말이야. 한국에서는 감히 나를 못때리더니만 아, 여기에서는 때리기 시작하더니 겹뽕하면 나가라구 하는거야. 그동안 나 세번이나 쫓겨났었어. 우리나라에서야 어디 치가 감히 나를 쫓아내? 자기두 알잖아, 내 오기 많이지. 하지만 여기서야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지.

밤중에 쫓겨나서 어두운 거리를 헤매다가 새벽녘에 골짜기 들어와서는 소파에서 쏙 그리고 자구는 했었지.

변변히 벌구 들어갔다 보니까 안되겠더라구. 참고 있을수록 바보처럼 된다고 두레방에서 가르치던 생각이 났어.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장로님께 부탁드리서 여성보호소에 연락을 했어. 당현대로 다 말했더니 두달간 보호소에서 먹이고 재워 주고 또 무슨 서류도 작성해 주더군.

만약 남편이 한번만 더 내쫓으면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남편을 내쫓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놔대. 어때, 내 솜씨가?

지금은 그래도 제법 순할만하게 됐지만 처음엔 말두 못하게 힘들었어. 영어를 못하니까 많은 안퐁하지, 운전을 못하니까 집에서 잠깐도 못하지, TV라도 볼까해서 쳐보면 영어로만 지껄이니 알아들을수나 있어? 완전히 감옥생활이더라구.

지금은 미싱하는 일을 구해서 돈두 조금 벌구 운전두 약간 하게 되니까 교회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견디기가 수월해졌어. 잔하구 싸우는 것도 뜸해졌는데 요즘도 성질이 욱 욱 치밀어 올라올 때가 많아. 잔이 우리나라 흉본 때마다 왜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 내가 내나라에서 먹본일이 뭐가 있다고 말이야.

어쨌든 지금 계획으로는 3천불만 모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남편이 싫다고 하면 헤어지구 나 혼자라도 가겠어. 겨우 2백만원 가지구 뭘 하려고 하느냐구? 에이 참, 답답하네. 3만불 모을 계획을 세워봐, 까마득해서 어떻게 기다려? 승락하죽제? 그러니까 우선 3천불을 모으면 돌아가려니하며 희망을 갖자는 거지."



그동안 남다른 고생을 해치며 살아온 순란이 터득한 삶의 슬기였다.

아기를 데리고 매일 순란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현자는 활 웃는 얼굴 그대로인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이지, 요즘은 가난의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 나이 어휘 남편이 속도 많이 빠이구 여러가지 힘든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중에서도 요즘이 제일 몸도 마음도 편하게 쉬고 있는것 같은 느낌이야."

두레방 회원들과 국제결혼한 여성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시는 오콜라호마 한인 장로교회 여자장로님의 소개로 수요 일교를 하고 다른 교회들도 돌아온 다음, 아쉽게 회원들과 헤어져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외정부의 두레방 회원들은 풍성한 사랑과 활자한 시끄러움으로 돌아온 나를 맞이해주었다.

두레놀이방의 하루

맑고 화창한 월요일. 송산의 아침은 높아보이는 하늘과 더불어
아름답다. 온근히 걱정도 된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을 쉬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행여나
아이들 보내는 것을 잊으시지나 않았을까?

"선생님 일어영."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민이 일찍 왔네. 어서 들어와." 언제나 간식을 4인분에서
자판기 먹여치우는 수민이는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것도

잊은 채 우아스럽게 장난감
바구니로 달려든다.

수민이는 원기 왕치 다른
아이들이 온 때까지

장난감을 두가지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 같았다.

1. 예쁜 아이들에게
피는 입을 맞춘다.

그리고, 무슨 장난감
있어? 이 두가지가 수민이가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장난감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부지런히 일어나, "아빠가 자지, 카이로 코코아, 이맛을 자니,
수민이 모여나.

저녁은 엄마와 단동이 살고 있다.

얼마전 미국으로 돌아간 아빠가 군용사교가 되고 다리를

잡는다는 바람에 양육비가 오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놀이방 오기 전에는 미군부대 앞에서 병사들에게 군것질을 하고 왔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그때 다리와 부속에서
아이의 눈빛과 웃음,
모든 것이 있었다.

놀이방이다. 늘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사는 아이들, 그것을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아이들, 그들

중에선 엄마나 아빠보다 비디오 테이프와 더 친한 아이도
있다.

"난이 거북이 반디야 귀엽, 뿌리" 이 아이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언제나 질서 정연한 모습, 서울 어느 유아원에서의 틀에 짜인
듯한 양전함이란 우리 아이들에게서 찾기 힘들지만 맑고
천진스런,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은 그들이 자연과 가장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영환도사, 강시, 홍시, 난자거북이가 언제나 그들의 가장 주가
되는 놀이감이다. 늘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사는 아이들, 그것을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아이들, 그들
중에선 엄마나 아빠보다 비디오 테이프와 더 친한 아이도
있다.

그때 수직이를 빌려서 생식이 하는 말, "수민이는 너리워,
냄새나" 소리친다.

"아냐, 누가 냄새나, 사람에겐 누구나 조금씩 냄새가 나"
선생님이 타이르면 "아냐, 수민이한테 김치냄새나" 정식은
되받는다.

아마도 식당을 하는 집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아이를 일에 쫓겨서 제대로 깨끗이 씻기지 못하는 이유
때문일지도.

난자 거북이 띠를 만들어 보고 그 위에 갖가지 크레파스로
색칠을 하고 머리에 왕관을 끼워달라는 아이들 소리.

그것은 맑은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왕관을 쓰고 복
선생님한테 자랑을 하듯이 "선생님" 하며 으쓱대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맑고 예뻐서 저절로 목 끌여안게 된다.

서로를 살것 싸우고, 주고 받고 뛰어놀다가 놀이방 바깥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놀이가 싫증이 나면, 아이들은 하나씩

와서 "선생님, 노래하고 집에 가자" 하며 청언한다.

늘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은 세진이야 제일 심하다.

세진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지 못하다.

종게 해도 될 말을 꼭 소리치며 화를 낸다.

세진이 엄마는 문을 걸어잠그고 미군부대로 나가기가

일부이고 아이는 거의 혼자서 놀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자야, 청소하자, 우리가 재미있게 갖고 놀던 장난감 재차리
갔다 돌아와. 그럼에도 자리에 쫓아와지." 그 소리가 무섭게
장난감 바구니로 뛰어드는 아이들.

놀이방 안에는 언제 벗어났는지 뽀갓 양말, 하얀 양말이
여기 저기 나뒹군다.

하나씩 생겨 신고고 옷 입혀주면서 놀이방의 시간은 저물어
간다.

"아이참 재밌어요. 두레놀이방 벌써 간 시간이 다 되었네"

손뼉치며 소리치는 아이들의 합창.

그것은 빨리 집에 돌아가고픈 오리들이 켜켜 거렁과도 같다.
모두들 알아지지만 루시는 그러하지 못하다.

루시 엄마는 하루종일 동네 만화가게에서 화투치기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집에가도 딱히 함께 놀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약간은 착잡한 얼굴로 그 애는 오늘도 "선생님, 안녕" 하며
손을 흔들지만 힘이 없다.

그 애 뒷모습이 쓸쓸하게 밀리어 나의 가슴에 아로새겨진다.



한국사회의 매매춘

1. 들어가며

2. 한국사회 매매춘의 실태

- (1)여성들이 매매춘을 하게 되는 동기
- (2)매매춘여성의 생활
- (3)매매춘여성의 의식
- (4)외국인과 이루어지는 매매춘
- (5)일반매매춘여성, 관광기생, 기지촌여성 비교

3. 한국사회 매매춘의 원인

- (1)법으로는 금지, 겉으로는 방관, 뒤로는 지원육성하는 정부의 정책
- (2)향락산업만 커가는 휘청이는 경제구조
- (3)여성노동자를 매매춘으로 내모는 저임금
- (4)외세로부터 유입된 향락문화,
내실없는 경제개발에서 생겨난 금전만능주의
- (5)외화벌이 수단-기생관광
- (6)주한미군에 대한 선물-기지촌 매매춘

4. 매매춘, 어떻게 없앨 것인가

- (1)여성만 선도하면 된다는 보사부의 대책
- (2)각 사회단체의 대책
- (3)외국의 예
- (4)한국사회의 매매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5)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평화와 정의의 얼굴을 키운다

흔히들 기지촌 혼혈아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아빠가 도망가 버리거나 아예 고아가 되어버린 사생아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문제가 되지만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있는 여성들의 자녀들도 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지는 오늘도 늦게까지 집에 나와서 심심해하며 놀고 있었다. 마침 놀이방 선생님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어서 지지에게 밥을 먹이고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선생님이 밥을 그리면서 그위에 점을 찍었다. 그것을 본 지지는 자기의 도화지에 점을 찍기 시작한다.

"지지, 무엇을 그리니?" 그러자 외외의 대답이 나온다.

"눈물". "누구 눈물이지?" "아이들 눈물".

"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지지는 아무말 안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같이 안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그러면 엄마가 함께 놀아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응..."

어릴적 부터 클럽에서 일해온 여성들은 5년~7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은 고되게 시달려 술과 담배가 생활화되고 외로움을 잊기 위해 화투를 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생활문화가 젖어 있는 여성들의 아이들은 엄마의 생활로 인해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군인생활의 오래 한 아빠의 미국 중심주의 군사문화도 문제의 한몫을 한다. 지지의 눈동자를 쳐다보면 서글픔이 느껴진다.

짐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다. 항상 아이들을 때리고 가위로 친구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소리치르고 벽강위를 올라간다. 하루는 선생님이 간식을 챙기러간사이 온선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보니 짐이 온선이의 목을 조른채 탁자의 모서리에 온선이의 머리를 계속 박아 드디어는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AFKN에서 나오는 프로레슬링을 보고 흉내낸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은 비디오게임의 영향이라고 보어

진다. 짐이 하는 비디오게임의 프로그램을 보니 항상 어느 한사람이 다른편을 발로 혹은 손으로 때리고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엄마의 교육태도가 문제이다. 이 엄마들은 거의가 어릴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도 받지못한 경우가 많다. 사랑: 올바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할줄 아는데 이 엄마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교육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친구들과 싸운다거나 할때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준다. 어릴때 그녀들은 싸울때 편을 들어주는 엄마, 아빠가 무척이나 부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부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기 때문일것이다. 또,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아이를 때린다. 때의 효과는 점점 강하게 해야 하므로 아이의 고집도 점점 세어진 것이다.



몸이 놀이방에 처음 왔을때 지나치게 앞전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도화지 주세요. 크레파스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등의 요구도 하지못하고 선생님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주면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날 그 아이의 눈을 본순간 너무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것 같았다. 아빠가 불명에 제대후 미국으로 가버리고 엄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클럽으로 일을 하러가고 다른 미군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몸은 밤에는 유모의 집에 가있어야 했다.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몸의 마음 한구석 분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놀이방에서 생활하면서 몸은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다. 물론 그의 눈도 부드러운 눈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쌓였던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짐과 함께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한다. 어떤 편에서는 마음속에 쌓인것을 표출시키는 것이므로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놀이방은 오늘도 작은 전쟁을 치른 것이다.(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이 아이들의 꿈이 되고 있는 놀이방은 아마도 평화와 정의의 얼굴을 키워내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사람이 사람위에 올라서는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후, 여성억압은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며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여성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억압은 우리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제도에 갇혀 살아가는 식민지적 상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억압 현실은 우리사회 전체의 명맥을 묶어주고 있는 미국과 미국이 아시아의 지배자로 부각시키는 일본의 영향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억압의 가장 첨예한 형태인 매매춘이 우리나라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유녀'이다. 또한 조선시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일군이나 호병으로 끌려간 부녀자들이 다시 돌아와도 남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다가 매음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희향년'으로 불렀다고 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매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남자의 성욕은 참을 수가 없으므로 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자는 안된다'는 의식은 이미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매춘여성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동학농민군이 '과부제 가허용'을 요구사항의 하나로 내걸고 싸웠다는 데서 우리는 우리민족 내부에서부터 이중적 성윤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유락이 커지고 매춘여성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이땅을 침략해오면서부터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민족 내부의 개혁세력을 철저히 짓밟고 이 땅에 상륙하면서 낭인, 장사꾼 등 일본 남자들이 조선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함께 일본의 저급창녀들이 대거 몰려와 유락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1916년에 경무총감부령으로 '유락법 창기 취체 규정'이라는 매매춘에 대한 법을 만들어 공창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매매춘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일인 창녀 수가 많아지고 제국주의의 수탈정책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조선 민중의 딸들이 유락으로 모이면서 창녀의 수는 급증되기 시작했다. 유락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이로 인해 여성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성을 매매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군 수뇌와 일본 매매춘업자는 비밀 협정을 체결하여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중군 위안부로 끌어갔는데, 이는 여성의 삶을 유린시킨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이 중군 위안부는 군인들의 성욕을 배출시키는 '천황의 선물'로 다루어졌다. 이 경악스러운 일제의 만행은 '남성들, 특히 군인들의 성욕은 반드시 배출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 내부에 못박는 것이 되었다. "군입대를 하기전에 딱지를 떼야만 한다"는 말이

라든가 군대 주변에는 으레히 그들을 상대로 한 매춘여성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 일제 치하의 중군 위안부를 합법화시켜 군인들의 성욕을 만족시켜 주었던 관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끈질기게도 지속되어온 일제의 잔재들....

이제는 청산해야 할 이러한 잔재들이 여전히 여성들의 삶 속에 남아 있다.

일제 잔재인 공창을 폐쇄하고 매매춘을 금지해야 한다는 민족 내부의 움직임은 좌, 우익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일어났는데, 무엇이든 한국민중의 움직임을 막고 보는 미군정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제 잔재 청산도 이루어질 질 수 없었다. 더군다나 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미군이 진주하고 국토분단과 6.25가 일어나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미군기지 주변에는 흔히 양궁주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매춘여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 기지촌 매춘여성들은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기도 하고 미군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와 성병, AIDS의 위협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제국주의의 착취와 전쟁의 폭력성 앞에서 짓밟혀졌다. 제국주의 지배 속에서 더욱 길이 뿌리내린 이중적 성윤리는 60만 국군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남성이 매매춘을 경험하고 즐기며 150만 여성이 매매춘에 뛰어들어 천식까지도 만들어낸 정도에 이르렀다.

2. 한국사회 매매춘의 실태

우리사회의 매매춘 조직은 서구사회와 비교해 볼 때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놀라운 정도로 번창해 있다. 아시아의 악명높은 사창가에 익숙한 외국인들 사이에서조차도 한국은 여성의 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 특히, 미아리의 텍사스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 방콕의 팟퐁거리보다도 거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

우리사회의 성매매 지역은 미아리 텍사스타운 외에도 청량리 오피스텔, 서울역 부근, 용산역 일대, 세운상가 근처, 영등포 역 주변을 위시해서 지방도시에도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상업적인 성산업에 비하면 이러한 지역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0년대 들어서 접객서비스업 부문이 비대화되면서 새로운 직종인 기생, 호스티스, 맛사지걸, 안마사, 면도사 등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어 간접매매춘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군을 상대로 한 성거래와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기생관광 성거래까지 합한다면 그 규모는 정말 거대해지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 4 - 5만, 관광기생

30만을 포함해 우리나라 매춘여성의 수는 120 -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생산직 여성노동자 90만을 훨씬 넘는 숫자로 젊은 여성 5명 가운데 1명꼴인 셈이다.

(1) 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되는 동기

어떻게 이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접어들게 되는 것일까? 보통 1/3정도는 인신매매 때문이고 2/3는 스스로 선택하는 여성들이다.

인신매매는 시간과 장소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시장 다니오는 가정주부까지도 강제로 감금하고 팔아먹는 인신매매인들의 조직력과 기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들 조직은 공식집계된 것만 해도 서울 주변에 100개, 전국적으로는 200개 조직이 있다고 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87년 한 해동안 176건의 부녀자 유인, 납치, 인신매매 사건이 적발돼 295명의 관련 범인들이 검거됐다) 그러나 검거된 정도는 전체 인신매매 조직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시장은 서울의 경우 청계천 일대와 을지로 미군 보급기지 일대이다.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자들을 납치해와 폭행을 하고 여성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데, 여성으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비디오에 전부 담아 미군을 상대로 팔아먹거나 심지어 수출까지 한다. 한 논문에서 K라는 여성과 상담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포르노에 강제출연을 했는데 마약을 먹고 난 후에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는 장면을 연출해 완전히 몸이 망가졌다고 한다.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 아무런 이유없이 억울하게 매춘지역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이다.

매춘을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을 하게 되면서(기혼인 경우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 매춘을 시작하는데, 가출의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제일 많고,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학대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다. 그냥 놀고 싶어서 가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가출한 여성들 중 절대다수는 가출전후로 공장에 다니거나 다방에 다니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 속에 부딪힐 만큼 부딪히게 된다. 그런 경험 속에서 성경험이 있거나 결혼한 여성들은 '이왕 처녀가 아니니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체념하여 매춘에 들어선다.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매춘에 내몰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매춘에 들어서는 여성 중에는 농촌 출신보다 도시 출신이 많다. (60, 70년대에 농촌 여성이 많이 매춘에 몰려들었던 상황은 이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도시출신 여성들이 더 많이 매춘에 들어서는 데는 성도덕이 혼란되기 쉽고, 유혹, 허영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도시의 조건이 이유가 되고 농촌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고 단속도 소홀한 것이 도시 출신 여성의 매춘화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의 빈곤 등의 가정적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생활

의 방편을 모색하다가 이질적인 환경에 적응치 못하거나 도시의 유혹에 빠져 매춘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

* 사례 1

중학교 2학년 거북방학때 서울 제기동에 있는 큰 언니집에 놀러갔다. 길을 잘 몰라 전철역에서 내려 서성거리다가 영등포역전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 후 그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고 그와 생활에 함께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아가씨장사하는 데에서 도망치다가 잡히고 하여 영등포역에서 매춘생활을 조금 하다가 도망쳐 나왔다.

* 사례 2

17살에 가출하여 아는 오빠와 친구들에게 도움받으며 두 달 정도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고 해서 조그마한 전자부품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자음습게 간섭받지 않고자 뛰쳐 나왔는데, 그 공장생활이란게 구속과 감시를 받았고 또한 쉴 곳은 없고 하고 싶은일이 너무 많은데 비해 보수가 너무 적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집나가서 어디 가겠어? 그것도 여자가 그 나이에,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들 손길이 닿지 않은 음악다방에서 그 다음은 다방, 스탠드 바, 술집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일과 밀접하게 되었지. 술집도 마찬가지야. 남자와 엮박 안착하고 무진 애는 썼지만 나중엔 어차피 이런 곳으로 몰려왔는데 누가 나를 깨끗하게 알아주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엮박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하다가 그 바닥에 살고 보니 한순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육체에 대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 후 돈이 아파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목돈을 벌기 위해 M지역으로 갔었다.

위의 사례들은 역주변 인신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소홀함과 여성노동시장의 저임금, 퇴폐 향락적인 문화와 이중적 성문리의 만연, 복지시설의 미비(집을 나와서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매춘을 시작한다) 등이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내려온 성을 사고 파는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매춘으로 들어서는 것을 가능케 한을 알 수 있다.

(2) 매춘여성의 생활

1) 매춘여성을 갈취하는 포주, 경찰

성산업에 한번 발을 들인 여성은 그 곳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것은 윤락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포주나 펌프, 기동서방, 인신매매인 등 거대한 조직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얼마 안되는 여성들의 돈에 기생하여 살아가며 여성들에게 큰 빚을 안기거나 여성이 탈출할 때 잡아와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사창가에 붙잡아 둔다.

다음 도표는 윤락여성의 실제수입과 지출 내용이다.

수입	지출 (원)	
600,000원	포주(30만원): 무조건 수입액의 50%는 포주 몫이다 (어딜가나 마찬가지이다) 팜푸(1만원): 수입액의 1-5% 기동서방(10만원) : 수입액의 20-30% 전기세, 화장품, 간식값, 옷값, 방세, 약값 등 (15만원)	빚 600,000원
잔고	40,000원	

이렇게 포주, 팜푸, 기동서방 등에게 이리저리 뜯기다보면 돈을 모으기는 커녕 생계유지가 힘들 정도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매춘행위를 통하여 벌 수 있는 돈은 그다지 많은 액수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병에 자주 걸리고 자신이 팔러오면서 빚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영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포주들 사이에는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도 성행하는데 이것은 매춘 여성들에게 빚을 안겨주고 영영 사창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매춘여성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경찰을 꼽고 있다. 포주와 같은 이에게는 거의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성들은 포주들과 결탁하여 매춘여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경찰들의 모습에 큰 반감을 느끼고 있다. 고객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돈을 돌려다라고 여성을 고발했을 경우 무조건 여성들만이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여 처벌하기도 하고 상납금을 받아내는 등 경찰은 여성들에게 고통만을 더해줄 뿐이다.

*상납금: 서울 YMCA는 [항락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남자는 존망이지만 매춘여성은 조사를 받고 숙청재판소를 거쳐 나온 수용소에 보내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바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인신매매단이나 포주들과 같은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탁한 경찰마저도 그들이 그곳에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매춘여성의 건강

용산지역 여성들의 면접조사에서는 매춘여성들의 절반 정도(13명 중 6명)는 아나리신(환각제)을 하루에 천원어치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용이유는 '신경질이 안나고 창피한 줄 모르겠' '수치심이 없어진다' '나의 핸디캡 때문에' '속상해서 안먹으면 손님 못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흡연량도 많으며 약을 먹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오늘 첫 손님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불안, 초조감으로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매춘여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매춘여성들은 대부분 성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조사 대상자 20명 중에서 자궁수술 후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2명,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2회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가 1명, 결핵 1명, 갑상선 장애로 수술을 한 경우가 1명 등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성병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주 1회씩 성병 검사를 매춘여성들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을 성병 감염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이 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만을 보호할 뿐이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게 자국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 매춘여성들에게는 강제력을 거의 띄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성병검진이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매춘여성들에게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게 하는데서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된다.

3) 매춘여성들의 의식

매춘여성들은 순결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현재의 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마약, 술, 흡연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심한 경우 자살미수까지 이르고 있는데 (비록 특정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수치가 48%나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포주, 경찰에게 끊임없이 빼앗기며 살아야 하고,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우리 사회 매춘여성들의 처지는 매우 전근대적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도 이들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수입을 빼앗기는 정도나 포주, 경찰로부터 대우받는 것에서도 이들은 그저 당하는 존재일 뿐이다. 외세와 독재 아래서 뒤떨어진 채로 뒤떨어져서 민중들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한국경제, 민중을 억누르는 한국정치 현실 속에서 그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3) 외국인과 이루어지는 매매춘

외국인과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은 크게 관광기생과 기지촌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생관광의 실태를 알아보자.

1) 기생관광

기생관광은 관광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70년대를 전후로 급격히 번창하게 된다.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붐이 일었고 일본이 73년 대만과 국교를 끊음으로써 대만으로 향하던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이 '평대신 담'으로 우리나라를 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호텔업계와 해외관광 알선업계는 뜻밖의 호황을 누리게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주도형으로 경제개발을 해나갔지만 실제로는 벌어들인 외화의 절반가량은 관광산업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기생이 벌어들인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기 전에 본국에서 '한국의 매력, 기생관광', '기생서비스가 만점인 남성천국' 등과 같이 여행사의 기생관광 선전을 보고온다는 것이다. 일본내에서 한국의 기생관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하며 한국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역시 이것을 기대하며 온다.

일본관광객들의 계층은 주로 하층의 노동자로 국내에서 동경도 한 번 못가본 사람들이다. 부산 페리부두의 커피숍에서 차를 끊으면서 1년이상 관광객을 상대해온 Y씨의 말에 의하면 페리호로 입국하는 일본관광객은 대부분 시골사람으로서 그들의 손이나 말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층부류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생파티를 하고 2박3일 여행을 하는데 드는 돈은 일본에서 소요되는 돈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본인의 연령, 미모, 가정환경, 학력(원래는 고졸, 최소한 중졸이상),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명세서를 꾸며야 국제 관광협회 요정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접객원 증명서'는 깨끗한 여성들을 이들에게 바치기 위해 갖추게 하는 증명서이다. 이런 노골적인 방법이 말썽이 생겨서 어른이 악화되자 관계당국에서는 발뺌을 하느라고 보건증으로 대체하였으나 내용은 이전과 똑같다.

한국의 주요도시에는 여러곳에 기생하우스와 요정이 있어 관광객을 기다린다. 빈약한 관광자원 대신 일본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도를 강구한 것이 기생파티인데 이는 우리가 가진 관광기술로는 최고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여기에 맛을 들인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힘입어 날이 갈수록 커져서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딸들을 도매금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밤마다 홍청대는 관광요정은 우리나라에 동틀어 27개 업소나 된다. 27개의 관광요정에 속해있는 정식 관광기생, 소위 '맛지'의 수는 73년 통계에 의하면 약 40,000명이나 된다. 여기에서 포주에게 포섭되어 있는 물결조직의 사창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2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73년도에 관광요정이 18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는 어마어마한 수가 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27개의 관광요정외에도 일본인 관광객에게 아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업소는 '한국관'과 같은 형태로 각 지방의 큰 호텔에 부설되어 있다. 그러나 뽀니뽀니해도 기생파티의 본거지는 요정이다. 한국관광협회에서 찍어낸 회원명부에는 이러한 요정도 일반유흥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일본인 관광객을 고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초호화판으로 이런것을 설치하고 이 땅의 많은 딸들을 밤마다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도 '기생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73년 문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여성들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기생호스텔스가 대거 일본에 진출해서 몸을 바치며 밥값으로 분투하는 애국충정은 훌륭한 것이다"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들어댔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기생관광이 장려(?)되는 데에는 성적유린을 희생으로 외화벌이에 골몰한 정부의 영향이 매우 크다.

관광기생들은 그래도 매춘여성들 가운데서는 수입이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생활에서 외세에 예속된 모습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기생관광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선을 지배하던 시대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광기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농락하면서 다시 한반도를 집어삼킬 꿈을 꾸는 것이다.

외화벌이 수단으로 내세워진만큼 관광기생들은 철저하게 한국경찰과 정부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인과 다름이 벌어지면 우리 경찰은 언제나 일본인 편을 들고, 여성들은 고스란히 일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내주고 행동해야 한다. 일본인과 잠을 자던 여성이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 일본인이 술을 억지로 먹이는 바람에 여성이 죽은 사건 등 드러나지 않은 죽음들이 너무나 많다.

일본인들 중에는 변태성욕자도 상당수 있다. 일본의 문화가 타락해가면서 변태성욕자도 많을 수 밖에 있는데, 관광호텔에서는 여성이 밤에 뛰쳐나와 살려달라고 외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이처럼 관광기생들은 일본인으로부터 직접 민족적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정부도 이들을 외화벌이에 내몰 뿐, 민족적 차원에서 보듬어주지 않는 것이다. 사회 역시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지촌 매매춘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성침탈이 가장 극단적이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기지촌이다. 미군 1명당 한명꼴로 존재하는 기지촌 매춘 여성들은 윤금이씨사건에서처럼 미국에 종속적인 정부로 인해 생명의 위협속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미군을 대상으로 생계를 잇기때문에 더더욱 미군에 대해 연속적으로 된다.

< 여성들의 현실은 '기지촌의 실태' 참조 >

(4) 일반매춘여성, 관광기생, 기지촌여성 비교

한국남성을 상대하는 매춘여성, 관광기생, 기지촌 여성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매춘에 들어서게 되는 동기이다.

[빈곤과 가정불화--> 가출 --> 공장, 다방에 취직, 저임금으로 건디지 못함 --> 매매춘]

이 길은 매춘 여성들에게는 거의 공식과도 같다. 이 공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것은 여성들이 '끼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다.

여성들이 가출하고 매춘으로 들어서게 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관광요정으로가는 동기도 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곳 여성들이 미군병, 일본병에 걸렸서라기보다,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우리사회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고 싶은 것이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공통점은 세 부류 여성들 모두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주들의 행동, 여성들을 대하는 고적, 이를 지켜보는 경찰 등이 여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줄 만큼도 민주화되지 못했음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의 문제는 과연 무엇때문에 생겨났는가, 여성들의 처지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사회에서 매춘여성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데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들의 생활의 비참함 역시 외세와 독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와 대다수민중의 권리가 억눌려진 사회의 또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관광기생, 기지촌여성만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성침탈당하는 존재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남성을 상대로 하는 일반매춘여성들도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수법에 따른 피해자인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전역은 기지촌 아닌 기지촌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성들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의 현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이다.

관광기생과 기지촌여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매춘 여성들보다 더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 그만큼 많은 것을 내주고 번태를 요구하더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인종의 차이 때문에 미군과의 성관계는 그 자체로서 여성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그 속셈이 어떻게든 말 그대로 '관광'을 와서 여성들을 성을 사서 즐기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을 북한의 남침위협으로부터 지켜주려와서' 적어도 1년 동안 한 지역에 주둔하며 '지켜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때' 하는 생각을 갖고 여성들을 대한다. '한 1년 데리고 즐길 여자를 아예 한 명 사서' 결혼하고 떠날 때는 내팽개치거나,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도 마음대로 멸시하며 자신의 요구대로 하기를 강요한다. 심지어는 돈을 벌어들여오라고 하면서 매춘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다.

정부도 일본인에게서는 돈을 바라지만 미국인에게서는 안보를 구걸한다. 당연히 일본인보다도 미국인에게 더 관대하고 더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윤금이 씨의 죽음도 '양공주 한사람 때문에 한미관계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그냥 묻어질 뿐 했듯이, 기지촌 여성들의 처지는 우리사회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무법 만능의 처지와 반비례한다.

4. 한국사회 매매춘의 원인

한 사회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처지, 그 처지를 만들어내는 요인과 따로 떼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매매춘 문제 역시 여성개인의 타락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매매춘 문제를 기본적으로 규정짓는 구체적인 사회구조적인 모순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매매춘의 원인을 찾아 보도록 하자.

(1) 법으로는 금지, 겉으로는 방관, 뒤로는 지원육성하는 정부의 정책

일제가 물러간 이후 우리정부가 매매춘문제에 대해 취해온 태도는 한마디로 매매춘을 엄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그냥 놔두는 척 하면서 뒤로 부채질해 온 것이었다. 정부가 1947년 11월 4일 과도정부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 폐지령'을 공포하고 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제 4조: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을 제정공포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행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법은 매매춘행위를 불법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매매춘 행위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1962년 4월에 내무부, 보사부, 법무부 공동으로 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46개 집결지역 및 용산, 이태원, 대구 입석동, 봉곡동 등 32개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72년에 '사회정화차원'에서 특정지역을 폐지하였다. 다만 경찰이 특정지역의 매매춘행위와 특수관장호텔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상대매매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용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을 뿐인데, 이 방침은 매매춘을 그냥두고 보겠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 '요보호여자'상담, 지도, 보호, 직업알선, 귀가조치 등 선도사업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제7조) 보호지도소는 법정 30년이 넘은 지금도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고 법조문상의 기구로 남아있다. 또 매매춘여성을 대상으로 설립하도록 수정한 직업보도시설(제8조)도 현재 4개(1개는 중간 기술훈련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설치한 기관은 법적 근거도 별로 없으며 부실하게 운영된다. 서울역 안에도 설치되어 있는 부녀상담소는 인력이 부족하다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도 떨어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지방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에 의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락행위문제는 개인의 심성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병리 현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1989.1. 보사부 '윤락행위 방지 및 윤락여성선도 대책'의 맨 첫 마디)라는 생각이 앞서서인지, 정부는 별다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일도 그냥 지나가고 있다. 포주가 매매춘여성이 빚을 빌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11조), 매매춘여성을 사실상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행위, 남성이 매매춘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4조)

등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지만, 매매춘여성을 처벌하는 것 외에 정부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장소인 남대문 시장이나 양동이 시경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런 범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89년 4월에 가서야 남성2명이 퇴폐이발소에서 윤락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이것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매매춘행위의 상대방을 현행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사례이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61년에 제정되어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산업형 매매춘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벌금도 3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많은데, 현재의 내용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 정부의 무책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책없는 모습만을 보인다면, 정부의 무책임과 관료행정만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본 것과 같이 매매춘의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국제관광협회를 통해 기생관광을 공공연히 선전하여 연화를 벌여들이고, 교통부는 관광진흥정책에 따라 이 국제관광협회 요청과에서 요청기생에게 사실상의 매매춘허가증인 '접객원 증명서'(보건증)를 발급하고, 경찰서 보안과장이나 군수가 기지촌여성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은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외국자"라고 독려하여서까지 달러를 벌여들이고 주한미군의 성욕을 채워주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근엄한 법 뒤에 가려진 정부의 모습이다.

매매춘여성의 증가추세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다. 매매춘여성의 수가 1955년 10만에서 1965년 33만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고 현재는 120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일대의 외국주둔지를 중심으로 매매춘여성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외국군의 힘을 빌어 같은 민족인 북한과 대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반민족적이고 외세의존적인 자세가 일제시대 정신대에 이어 한국여성의 성적 침탈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포주들과 손을 잡고 눈감아주는 대신 정기적인 상납금을 요구하고 매매춘여성들한테서까지 돈을 뜯어서 자기 잇속을 채우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1992년 5월 '경찰관 뇌물수수및 변태영업 묵인의혹'과 관련해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은 국가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우리정부는 이미 무책임과 관료행정의 차원을 넘어 제나라 여성들을 매매춘의 길로 등떠미는 비인간적 반민족적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다.

(2) 향락산업만 커가는 휘청이는 경제구조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무상원조로 한국경제의 숨줄을 휘어잡기 시작한 미국은 60년대 이후 미달러위기가 닥쳐오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무상원조를 그만두고 우리 나라에 많은 차관을 안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자본이 대대적으로 들어왔고, 재벌기업들은 박정희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미국자본을 인수하게 되었다. 미국은 또한 일본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한-일관계를 막후에서 조율하였고, 그 결과로 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그 옛날 일본의 광목이 들어와서 조선의 목화재배를 중단시켜버렸듯이 다시 일본의 대자본과 기술이 우리 나라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경제는 마침내 자본, 기술, 시장까지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버렸다. 한국경제가 오직 하나 자체의 기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시달리는 노동자들뿐이었다. 철저히 외세에 의존하여 진행된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은 외형만 크고 내실은 없는 기형적인 경제성장과 엄청난 외채였다. 제조업은 망해가는데 자체에 어떠한 생산성과 건강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향락산업이 급증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향락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성향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1988년 말 전국의 향락업소의 총수는 30-4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2년 8월 현재 서울 시내의 향락업소의 총수는 10만에 이르고 있다. 향락산업으로는 유흥음식점, 이발소,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이지만 실상은 매춘여성과 다름없는 신종직업인 산업형 매춘을 주로 하게 된다. (매춘만을 하는 경우를 전통적 매춘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향락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곧바로 매춘여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향락업소의 종류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이들 업소 중 많은 곳이 번태영업과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흥음식점으로 대표되었던 업종이 점차로 일반 대중음식점, 숙박업소, 안마 시술소, 목욕업소 등에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장소에서 온갖 음성적인 매매춘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대중음식점 중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향락업소가 29%를 차지하고 있다. (인삼찜집 100% 카페 97.9% 레스토랑 37.9% 치킨센터, 생맥주집 9.5% 일식집 5.2% 한식집 1.8%) 향락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퇴폐영업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서부터 수입된 것이다.

향락산업은 점차 대형화, 고급화, 사치화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2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양주 1병에 국산은 13-15만원, 외제는 40-60만원, 최고 80만원으로 3-4명이 토크를 이용하는 가격은 안주비, 번드비, 팁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향락산업은 사치성 문화를 조장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역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구 확산 침투하여,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유흥을 즐기고 성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성폭력, 인신매매 등 사회범죄행위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향락산업은 주로 대부분 수출거리를 위해 외국인에게 향응을 제공할 때, 특혜를 파내기 위해 정부관리나 실력자에게 아부할 때, 기타 음성적이고 비합법적인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실제로 접대의 고객은 정부관료, 기업가, 정치인을 위시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직업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외국에 비해 100배 이상이 되고 있다. (90년 신고된 기업의 접대비는 1조 1368억원) 한국경제와 정치의 부패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향락산업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은 대부분 미,일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기술을 합작하고 있는 독점재벌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중소기업가들이 안전한 투자로 월신 쉽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향락접객업종에 모여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향락산업은 소자본으로 가능하고, 비교적 높은 이윤이 보장되면서 자금회전이 빠르며, 또 세무행정이 허술하다는 점에서 전망이 불투명한 2차 산업을 기대하는 중소기업형 자본이나 투기로 투자 선호대상이 된것이다.

88년 이후 3저 호황이 3고 불황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그간 충분히 한국인들의 입맛과 취향을 미국식으로 바꿔놓은 외국자본이 시장개방에 따라서 한국내 기업과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중소기업이 몰락해 갈 것이고 향락산업은 더 늘어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의 대자본은 그곳의 향락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뿌려놓는 것이기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 정부도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 의해 2차산업이 벽에 부딪히자 국가가 향락산업 일변도의 3차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향락업소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설립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행정이 80년 이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GNP증가율의 대부분은 생산적인 업종이 아닌 이 소비성 3차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국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증진시킨 것 또한 향락산업의 비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리하여 향락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매춘여성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향락산업이 이렇게 늘다보니, '배운 것도 없는 여자가 할 일이 뻔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향락산업이 늘어나는 원인과 그 실태를 살펴가다보면,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여실히 보게 된다.

(3) 여성노동자를 매춘으로 내모는 저임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세에 의존되어있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밑받침은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다. 자체에 자본과 기술이 쌓여있지 않고 처음부터 외국 자본과 기술로만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판 로알티를 물고서라도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땀의 결실이 로알티로 나가버리고,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지하는 데서도 정부의 힘을 빌어야하니 뒷거래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나가버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기업가는 땅 사서 투기하는 데 써버리니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미국 노동자들 임금의 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계층은 나어린 여성노동자들이다. 남자임금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전 노동자의 84%, 여성노동자의 97.7%가 최저 임금수준에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86년 한국 노총 자료)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를 견디지 못한 여성노동자들은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매춘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 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런 경향이 생겨났고, 빈곤때문에 매춘을 생계수단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70년대 들어 접객서비스업부문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대다수 여성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야하고 그나마 고학력 층은 취업자체가 어려워 여성이면 누구나 자아실현요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계기와 적절한 댓가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성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끔 하는 것이다.

(4) 이중적 성윤리 온존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윤리는 매매춘이 계속되는 기본요인이 된다.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논리는 계급사회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된 남성들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적자를 얻으면서, 일부일처제가 가져온 도덕 규범의 한단계 발전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논리이다. 이는 또 남성에게 여성보다 강한 성적욕구가 있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한 남성의 그 욕구로부터 일반여성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매매춘은 필요한 것이며, 이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막론하고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는 등의 매매춘을 정당화시키는 성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성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논리는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을 합리화하고 조장시키며 결국 오늘날 여성의 상품화를 사회전체가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 논리는 강범위한 수요로 매춘여성을 공급하기 위해 인신매매 또한 폭인, 조장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논리는 여성들 속에서 매춘여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매춘여성들은 대부분 이중적 성윤리를 뿌리깊게 가지고 있다. 평범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성관계를 가졌거나 결혼, 강간당한 경험이 있고 먹고살기는 어려우니까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으로 매춘에 들어서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성상품화 문화의 영향이 존재한다)

우리민족 내부에서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구한말 시대부터, 이중적 성윤리 극복과제는 과부제가 허용, 공창제 폐지 요구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족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일체의 운동이 일제와 미군정에게 탄압받으면서 이 요구 또한 짓밟혀졌다.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이중적 성윤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외세로부터 유입된 향락적 성의식, 내실없는 경제개발이 낳은 금전만능주의

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되는 문화적 이유로는 앞서 지정한 이중적 성윤리의식과 함께 향락적 성의식과 금전만능주의, 한탕주의, 소비지향주의를 들 수 있다.

서구의 퇴폐적 성문화가 유입되고 내실없는 경제개발과정에서 금전 만능주의, 한탕주의, 소비지향주의가 생겨나 우리문화를 잠식시키고 '성의식'을 문란케 하며 매춘에 대한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의식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최대의 물질적 보상을 얻는 방편으로 성을 파는데 동의하게 만들며, 성을 도구화는 직업을 도덕적 거부감이나 수치심없이 선택하게 만들어 여성의 매춘행위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풍조 속에서 호기심이나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매춘의 길에 유인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남성들도 상품화되는 현상(HOST BAR)을 보이고 있어 왜곡된 성의식과 함께 날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퇴폐향락화 되어가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15-29세 사이의 여성인구의 5명 중 1명이 향락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현실은 향락적 성의식을 더욱 부추킨다. 사회전체에 퍼져가는 향락적 성의식은 점차 여성을 매춘으로 끌고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차츰 가정결혼 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매춘을 하는 고급콜걸등이

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춘여성이 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며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퍼져가는 향락문화는 일본과 미국의 저속한 문화로서, 말초적으로 성을 자극하는 도색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성과 육체를 가지고 남성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성의 인간적 가치가 무시되는 성문화를 퍼뜨린다. 성은 소외되고 여성은 성의 노예가 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번태적이고 퇴폐적인 성상품이 나오게 되고 성문화는 타락하게 된다. 향락적 성의식을 담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주한미군기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란 서적, 비디오, 만화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로 침투하며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있다. 근래에는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미국 일본에서 들어온 외설 컴퓨터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절반 이상에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저급 상업문화의 파이프라인이라는 주한미군방송(AFKN)의 방송 내용 또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오락위주의 내용에다가 제일 화질이 좋다는 VHF 2채널을 차지하여 우리의 정서와 윤리관을 해치고 있다.

향락적 성의식은 또 한 편으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향락적 성의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3S정책(SEX, SPORTS, SCREEN)은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일제가 공창을 만든 것도 이 정책으로 알려져있으며, 80년 이후 전두환정권도 광주항쟁 이후에 미스 유니버스대회를 유치하는 등 이 정책을 통치방식으로 이용했다. 장기 집권의 독재 정치는 대중을 정치 참여에서 배제시켜 비정치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상업적 섹스의 대중화는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는 이기적 인간성을 조장하고 사회정치의식을 둔화시킴으로써 사회통제의 기제로 사용된 것이다.

우리 사회 매매춘의 실태는 이런 향락적 성의식이 금전만능주의와 한탕주의에 뒷받침될 때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5) 외화벌이 수단-기생관광

1960년대 수출지향적 고도성장 정책이 1970년대 초 수출부진, 외자관련기업부실화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외채의 부담을 줄이고 무역적자폭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돌렸다.

관광산업을 발미로 외화획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아닌 기생관광이다. 기생관광은 윤락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하고 합법성을 부여하는 허가증 성격의 '접객원 증명서'

를 발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기생들은 접객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교양강좌를 받아야만 하는데, 강사는 주로 저명인사나 교수들이고, 내용은 기생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심이다.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며, 외화를 버는 매춘 행위는 애국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88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AIDS문제가 심각해져서 여성단체, 의료단체가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들에 대한 AIDS검사를 요구하자 정부가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면서 '선수촌에 콘돔을 뿌리겠다'고 대응한 것, 올림픽관광 안내 책자에 버젓이 기생파티의 요람인 관광요정이 소개되었던 것도 정부가 올림픽을 통해 기생관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외화획득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의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는 기생관광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파행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상품화하여 외세의 잔재인 정신대와 양공주를 계승하는 역할을 자행하며 매매춘 행위를 부추기게 되었다. 결국 기생관광은 관련재벌과 이에 걸탁한 외국자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뿐이며, 외화획득을 불모로 제민족 여성의 성까지 팔아먹는 정부의 반민중적 처사에 기반을 금할 수 없다.

(5) 주한미군에 대한 선물-기지촌 매매춘

1945년 일본군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조선은 해방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민족의 주체성 회복과 자주적 경제질서를 세우고 민주적 사회체제를 확립하기도 전에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각각 주둔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미군정은 1945년 9월 9일 미군선발대가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후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미군의 주둔은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내걸었던 당시 민중들의 의사와는 상반된 것이었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발을 내딛은 미군은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서고자 만들었던 자치기구 인민위원회를 말살하고 친미정권을 세우기에 혈안이 되었다.

남한 정부가 세워진 후 미군은 주둔명분이 없어 물러났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철수 1년만에 유엔군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이승만 정권이 '영광스럽게' 남겨주는 한국군의 지휘권을 인수하였고, 1950년 7월 12일에는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대전협정은 미군이 원하는 곳에 기지를 만들

현실은 현대판 정신대를 연상하게 한다. 동족에게 총을 들이대는 '안보'를 구걸하며 민족의 여성들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기지촌의 실태’ 참조)

4. 매매춘, 어떻게 없앨 것인가

(1) 여성들만 선도하면 된다는 보사부의 대책

매매춘을 방관하고 지원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행정이었지만, 정부도 또 한편으로 매매춘에 대해 나쁜대로 개혁을 세우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매매춘 문제가 그만큼 크고, 심각하게 어조높여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9년 1월에 보사부가 발표한 ‘윤락행위방지 및 윤락여성 선도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평가해 보자.

보사부는 제도적인 면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현실과 어긋나 있는 점이 많고 매춘여성 선도, 단속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적인 면에서 매매춘이 점차 물건 형태로 바뀌어서 더욱 은밀해지고 있으며 매춘여성 뜻대로 전, 출입이 쉽고(?) 포주와 관계가 대체로 좋고(?) 자기 뜻에 따라 매매춘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적으로도 성병전염 때문에 국민보건이 위협받고 AIDS, 수퍼임질 등 새로운 성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인식 속에서 보사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예방사업: 여성의 지위와 윤리의식을 높인다.

- 정체성, 자긍심 높이고 가출하지않게 하고 성의 도구화 의식을 없앤다.
- 상담을 강화해서 가출소녀가 매춘하지 않게 한다.
- 매춘을 유인하는 사람을 강하게 단속한다.
- 공중위생업소(목욕탕, 이발소 따위)와 위락시설 번태영업을 규제한다.

#국민보건 저해방지 사업: 매춘여성 건강진단을 제도화한다.

#선도사업: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 효율적으로 한다.

- 과목 현대적으로 바꾼다.
-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 교양교육을 제도화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 부녀상담소, 윤락행위자 선도대책위원회, 부녀직업보도시설 법적 근거 마련, 보완
- 윤락행위자, 요구자, 상대자 처벌 강화
- 관계공무원 직권남용, 금품받을 때 처벌강화

보사부의 이러한 대책은 여성개발원으로부터 이미 비판받은 바 있는데 보사부가 매매춘 문제 본질에 대해 아직도 바른 인식이 모자라고 이중적인 성의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직업보도시설 개선방안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보사부의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중적인 성윤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매춘을 일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매춘여성만을 문제삼는다. 정부는 매매춘행위를 윤락행위라고 이름하는데 ‘윤락행위’란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뜻이고 현행법상 윤락행위의 주체는 ‘성을 파는 자(=여성)’으로 되어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향과 정부의 뒷받침 속에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 매매춘행위를 한 개인이 윤리도덕적으로 비몰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로 여기고 있으니,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애들은 다 끼가 있어서 그런데 간거지”, “다 제 팔자지”하는 식으로 매춘여성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 위에서는 해결책 역시 매매춘을 이끌고 사회 각 분야의 변화로 제시되지 못한다. 매춘여성 개인을 선도하여 윤리의식을 높여 ‘성을 밥벌이 도구로 인식하지 않게’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으로 제시될 뿐이다.

매춘여성이 성을 밥벌이 도구로 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에 대한 댓가가 너무 낮아데다 향락업소가 폭증하면서 여성을 필요로 하고 남성의 성욕은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 없기에 오입하는 것을 눈감아줄 수 있지만 여성이 누구하고라도 한 번만 성관계를 가지면 그날로 ‘이미 버린 여자’가 된다는 이중적인 성윤리에 있다. ‘이미 버린 몸, 돈이라고 벌자’는 생각이다.

이미 90만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숫자를 훨씬 넘는 120만-150만명의 여성들이 매매춘(전통적, 산업형 매매춘 모두 포함)에 뛰어들 정도로 그 원인들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보사부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어떻게 여성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것인가? 가정불화와 빈곤 때문에 생겨나는 가출을 빈곤 해결대책도

없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성을 사려는 사람들을 그냥 좌두고 어떻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없애려고 하는가?

매춘여성 개인을 선도하는 것만으로는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성병전염을 방지하는 문제만 해도, 성병을 옮겨오는 주 풍토인 주한미군, 외국인을 검사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고 피해자인 매춘여성만을 검진해서는 성병전염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성병전염위험에 그냥 놓아두면서 생계위협까지 가져다주는 꼴이 된다. 이중적인 성윤리에서 출발하는 대책은 실효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서는 문제는 선도사업이 매춘여성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이다.

현재 진행되는 선도사업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것이 부녀직업보도소이다. 부녀직업보도소는 매춘여성을 수용보호하여 자립경쟁의 정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교육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88년 12월 현재 서울에 1곳, 경기, 인천에 각각 2곳 모두 5곳이 있는데, 모두 63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500여명이 수용되어 있다.

보사부가 정한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찰에서 여성을 단속	--> 시, 군, 구 부녀상담원이 전문상담하여 시설에 인계 (반드시 보호자 의견 듣는다)	--> 시설 입퇴소 심사 위원회 의 심사
-------------------	---	------------------------------

시설에서는 교양강좌와 봉제, 미용, 편물, 양재, 홈패션, 매듭 등의 기술교육을 하며, 교육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보도시설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선도'가 아니라 '수용'이라는 것이다.

"일년 살다가 나온 사람 중에 다시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허송 세월 하다보니 아가씨를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일년 동안 벌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악질만 된다. 국가에서도 우리를 사람 취급 안한다. 죄수 아닌 죄수로 색안경 끼고 우리를 벌레 취급한다. 거기 한번 갔다오면 빛이 더 커진다."

"작업을 하는데 채소심기, 잡초제거, 청소 등을 주로 한다. 조금만 잘못하거나 반항이나 도주하면 독방신세를 져야 한다. 독방은 대소변도 거기서 바깥쓰에다가 봐야한다. 수용소 인원이 안차면 완전소탕을 한다. 국가에서 1인당 경비보조금이 나온다고 한다. 완전소탕 때 잘못 걸리면 이런 곳에 눌러왔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살하기도 한다. 여기에 투자한 세금을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나 미성년자들을 데려다 놓고, 몸을 정말 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용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껏 열심히 기술을 배워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 직업훈련원 같은 곳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녀직업보도소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받아주는 직장은 아무데도 없고 설사 취업한다 하더라도 직장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렇고 그런 여자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버틸 수 없다. 결국 매춘여성들도 노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도와야 한다는 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지 않고서는 보사부 혼자 기술교육도 한다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밖에 부녀상담소 등 기존에 운영해온 기구를 활성화할 방안을 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부서 사이에 매춘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높일 방안 역시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와야 한다.

(2) 각 사회단체의 대책

매매춘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은 단체는 거의 없지만, 실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하고 활동해 나가는 단체는 많지 않다. YMCA 등 시민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상품화 항락문화 추방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아직 매매춘 문제에 직접 다가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성개발원은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매매음방지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해 연구와 정책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 여성개발원이 89년에 보사부안에 대응하여 제안한 개정 매매음방지법의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락행위를 개인의 도덕적 일탈 행위로 보지 말고 사회구조 문제로 바라볼 것

#양성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

#산업형 매춘까지 포괄하여 단속, 법 적용

#매매춘 금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하지만 성상품화문화가 사라져가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매매음방지법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이 위와 같이 개선된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매춘 여성들이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사회와 접촉면을 넓혀나가는 일이 제도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2) 필리핀의 수빅만 기지촌 혼혈아문제 해결 사례

몇 해 전 필리핀 수빅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클라크 공군기지가 이전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드디어 필리핀을 떠났다. 클라크 공군기지 주변 기지촌을 AIDS감염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지촌 여성의 투쟁이 계속될 정도로 AIDS문제가 심각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에 분노하며 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아내고 국토 어디에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자, 필리핀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클라크 공군기지 주변 기지촌 여성단체(부콜로드)는 미군부대를 그냥 굶게 내보내지 않았다. 혼혈아에 대해서 미군 아버지를 찾아 양육비를 받아내는 투쟁을 벌였고, 투쟁은 승리로 끝났다.

필리핀의 예는 우리에게 혼혈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 국제결혼하여 혼혈아를 낳은 여성들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하다. 미군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하며 아이를 낳지만, 정작 미군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고 나면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시 매춘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키워도 혼혈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뿐이다. 이런 문제를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미군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주한 미군이 철수했을 때는 이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지촌-매춘문제 해결은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여성들의 힘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한국사회의 매매춘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1) 매춘여성의 복지와 자립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대책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강제로 막는다는가 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빚을 인
여준다든가 하는 포주와 폭력배들의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찰과 정부전체의 자기혁신이다. 더 이상 경찰과 정부가 포주, 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다면 매매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여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정부와 사회단체들이 최대한 함께 도와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들이 매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은 실제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다. 놀이방, 공부방을 많이 설치해서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치료위주가 아니라 처벌위주로 되어있는 성병검진제도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친다든가(성병에 걸렸다고 치료도 없이 낙검자 수용소에 감금하는 현 제도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성병검진제도를 잘 활용하여 성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고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본적인 생활보조를 해준다든가 하는 방안이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미군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수 없다.

미군이 한국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사기, 폭행 등)를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를 배상하게 하며, 국제결혼했을 때 미군이 혼혈아에 대한 양육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지촌여성들과 혼혈아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사업은 미군과 우리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다.

또 여성들이 매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 건강한 노동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순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 있고 매춘을 필요악이라서 사라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매춘을 절대 필요악이 아니며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작게라도 여성들이 하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용성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동시에 사회에서 이 여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매춘여성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은 매춘여성들의 90%가 건강한 노동의 경험이 있고 이미 각 지역단체의 활동 속에서 노동기회가 주어지자 매춘을 중단한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2) 매매춘중개인을 없애고 고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포주와 인신매매단을 단속해야 한다.

인신매매단과 여성들에게 매춘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포주들은 여성들을 매춘으로 몰아넣고는 여성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매춘을 하는 여성만을 단속해서는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다. 단속된 여성만큼 또 인신매매하고 여성들을 더욱 몰아매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매춘을 강요하고 중개해주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매춘행위를 근절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수 있고 미군에 대해 한국정부가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미군의 초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미군주둔은 무기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의 뒤에는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그것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과 군사적 요충지로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것은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듯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병참기지화 된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지를 중심으로 「기지촌」이라는 기형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 4만 6천여명의 군인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 설치로 한국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유럽,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들과는 달리 남한땅 전국 곳곳에 120여개의 주한미군 기지를 두고 있다. 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의 총면적은 한국군 사용면적의 25%를 차지하는 5천만평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지 곳곳에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여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원한 우방, 평화의 수호자를 가장한 이 거대한 미국군대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남한전체를 그들의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기지를 내주어야 하고 기지 운영비의 반액(연간 약 260만 달러)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등 이들에게는 수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미군을 자국이 지정하는 장소에, 기지사용료를 받으면서 주둔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미국에 대해 우리정부가 굴신대며 특혜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기지장소만을 빌려준다는 한미협약이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일이다.

미군기지가 생겨나면서 생산에서 소비의 땅으로 그 주인됨을 상실한 한국속의 미국, 기지촌은 식민지의 현실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고통과 소외의 땅으로 전락되어 있다. 최근에 미군전략이 바뀌면서 미국의 군방위 축소로 80개의 해외기지를 폐쇄시켰는데, 유럽에서는 몇십개의 기지가 폐쇄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작은 기지 2개만이 폐쇄되었다. 미군은 이렇듯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전 국토를 미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91년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이 성행하고 이것이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은 돈으로 성을 즐기려고 하는 고객을 교육하고 처벌하는 일이다.

성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화와 처벌이 동시에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성의식교육을 얼마동안 받아야한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서 사창가에 가는 일이 낯자다운 일이고 오락처럼 되어있는 현실을 고쳐나아가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성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을 없애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을 해야한다.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향락산업과 퇴폐연론 등 매춘에 대한 욕구를 갖게 만드는 사회현실을 바꿔나아가야 한다.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이며, 매매춘은 수천년 동안 계속되어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박혀있는 것이기에 향락산업이 줄어들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바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사회전반의 민주주의가 깃들여지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중적인 성의식,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어있는 민족의 현실 아래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퇴폐향락문화와 개인주의에서부터 생겨나오는 향락적인 성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매매춘이 생겨나는 사회구조를 바꿔나아가야 한다.

봉건적이고 성차별적인 성의식의 온존, 퇴폐향락산업의 확산, 여성을 향락산업으로 유도하는 저임금, 미군과 일본관광객에 대한 비자주적 대응을 만들어내고 정당화하는 외세의존적, 비민주적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국방에서 자주권을 되찾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를 세우고 사회전반에서 민주주의적 질서를 다시 세워야만 매춘여성들, 기생관광과 미군에게 시달리는 여성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매매춘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

(5)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매춘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

매춘여성, 기지촌 여성에 대한 올바른 편견을 깨고 그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 원인을 인식하며 매춘여성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힘을 모은다. 이 인식과 실천을 학교와 사회 곳곳에 확산시켜야 한다.

-기밀에서 경험하게 된 매춘여성의 현실을 학교와 사회에 널리 알린다.

-기지촌활동에서 놀이방, 공부방 열심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후원회 조직, 단체의 생산품(두레방 빵, 막달레나의 집에서 만드는 참기름 등)판매 등 대촌지역단체 후원 사업을 꾸준히 벌인다.

2) 올바른 성의식을 정립한다

남녀차별적이고 개인적이며 향락적인 왜곡된 성의식을 없애나갈 수 있는 작은 실천과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나가며, 남녀를 평등하게 보며 공동체적인 건강한 성의식을 확산한다.

- 음담패설 없애기, 스포츠 신문 안보기 운동을 주변에서 벌여나간다.
- 학교 주변 술집의 야한 그림 떼기 운동을 학교 단위에서 함께 벌여나간다.
- 향락산업 규제, 퇴폐언론 단속을 정부에 요구한다.

3)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한국여성들을 짓밟는 미군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기지촌여성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 한국정부에 대해 윤금이시, 김국혜씨 사건의 범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판과정, 형집행정정을 감시한다.
- 미국의 공개사과와 한미행정합정 개정을 비롯한 범죄근절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대책기구건설에 힘을 모은다.(기금마련운동)

놀이방, 공부방 활동

기활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놀이방, 공부방을 할 때 아이들과 그저 놀아주는 역할로만 놀이방, 공부방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기지촌의 아이들은 대부분 매우 거친 환경에서 돌보아 주는 이 없이 잘난다. 그만큼 교사들의 위치는 중요하다. 기활대원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 하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놀이방, 공부방은 기지촌 지역단체가 기지촌에 자리잡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힘겨워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다.

또 놀이방,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눈에 비친 기지촌의 현실, 여성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수적인 것, 기활의 본래 목적과는 좀 떨어지지만 요구되니까 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기지촌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하고, 기지촌 지역단체 활동에서 놀이방, 공부방은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

1. 기지촌의 아이들

기지촌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혼혈아이들 뿐 아니라 포주(클럽주인)의 아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에게도 기지촌의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이 끼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1) 혼혈아

혼혈아이들은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번째는 국제결혼한 미군과 기지촌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군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다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이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혼혈아이가 “미국의 아이”로만 자라난다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아빠와 한국엄마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아이 역시 엄마의 나라인 한국 문화, 언어, 음식, 관습 등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것은 곧 엄마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결국 한국 엄마를 소외시키는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아이는 완전히 미국의 아이로 자라나게 되고 엄마의 소외는 더욱더 깊어진다.

도니는 (흑인여자혼혈, 8살) 아빠가 엄마를 묶어 놓고 혁대로 때려도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가 하면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외국인 학교에서 받은 영어 통신문을 내밀며 읽어 보라고 한다.

두번째는 미군이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후 혼혈아이하고 엄마하고만 사는 경우이다.

이 여성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대부분 다시 클럽에 나가거나 히파리 생활을 하면서 매미춘을 한다. 이 여성들은 월세방 하나에서 미군과 매미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게 되어, 자위행위를 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성관계 맺는 흉내를 낸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려서 본 엄마가 매미춘하는 모습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때, 아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커서 엄마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동두천에는 엄마와 혼혈아인 딸이 함께 매미춘을 하는데 그 딸이 밤마다 술을 마시고 와 엄마를 때리며 함께 운다고 하며, 3대에 걸쳐 매미춘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혼혈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다. 여성들은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관되게 대하지 못하고 어떨때는 심한 구타와 욕설 등으로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어떨때는 미안한 맘으로 아이의 잘못된 모습에도 한없이 너그럽게 대한다. 가정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혼혈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사회에서 혼혈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여성들은 혼혈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를 다니기도 어려울만큼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혼혈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는 “양놈의 새끼”라고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얻어맞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 뒤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계속 자라난 혼혈아이들은 커서도 군대에도 가지 못하고 취직에서도 차별받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올바르게 커서 생활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대부분의 혼혈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된다.

입양되어간 혼혈아이들은 미국내에서 동양인이라고 놀림받고 그 사회에서도 역시 차별을 받는다.

어떤 경우는 입양해 가서 농장일꾼으로 부려 먹으며 심하게 일을 시켜 혼혈아이가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출해 버린 경우도 있다. 또 여성들은 아이를 보내 놓고 아이가 보고 싶어 며칠동안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심지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여성도 있다.

(2) 혼혈아가 아닌 기지촌 아이들

혼혈아이들 뿐만 아니라 기지촌 아이들은 모두 미국의 저질스런 문화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다. 미국의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로 오염된 기지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심각하게 해쳐지고 있다.

또한 미군에 의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강간의 위험이 매우 높다.

(3) 놀이방, 공부방에서 변화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상처는 우리가 보듬고 어루만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방, 놀이방에서 새롭게 자라난다.

자니는 (백인남자혼혈, 7살) 3년 전 처음 놀이방에 왔을때 자폐증세를 보였는데, 놀이방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너무나 밝아졌고, 혼혈아이의 경우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엄마의 나라 한국을 배우게 되고, 자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된다.

신디(흑인혼혈, 8살)는 처음에 스스로를 미국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글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 교사와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먼저 자기가 받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게 되었다.

미키(흑인혼혈, 8살)는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아이였는데, 놀이방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워 미군에게 가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클럽 아가씨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기활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놀이방, 공부방을 할때 아이들과 그저 놀아주는 역할로만 놀이방, 공부방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2.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첫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활동을 올바르게 하기 힘들다. 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소외된 채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한다.

둘째, 아이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의 모습과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기지촌의 문제를 더욱 가슴 아프게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모습, 말 하나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셋째, 아이들도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어리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존중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이 일관된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건이나 음식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아이를 때리거나 무시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고, 도와주거나 장난감, 음식 등을 나눌 때는 칭찬해준다.

다섯째, 아이들이 긍정적 자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에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많은데, 작은 것을 했더라도 많이 칭찬해주면 아이에게 자신감이 생겨난다.

여섯째, 아이들이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깨고 우리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피부색을 가지고 서로 놀린다는가 싸울 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고 다만 사는 곳이 다르고 핏줄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꼭 사과하도록 시킨다. 스스로에게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3. 주의할 점

- ①기활 학생끼리도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대말을 해야 한다.
- ②아이들에게 존대말을 하는 것이 좋다.
- ③아이들이 반말을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할때 다시 존대말로 공손하게 말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칭찬을 많이 하되, 잘못된 일은 엄하게 혼내야 한다.
- ⑤총이나 칼놀이 등 폭력적인 놀이는 하지 않도록 한다.

4. 놀이방, 공부방 프로그램의 예

의정부 놀이방

10:30~11:20	자유놀이
11:20~11:40	체조, 노래
11:40~12:00	만들기
12:00~12:20	간식
12:20~12:40	자유놀이
12:40~12:50	동화, 바깥놀이
12:50~1:00	노래, 귀가지도

*노래, 구연동화는 밝고 건강한 내용,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준비한다. 구연동화는 그림 그리고 동화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월	화	수	목	금
미취학 아동	글 지	숫 자	글 지 공 작	글 지	숫 자
취학 아동	격주로 글짓기 독후감	산 수	우리들의 날 놀이/노래 공작/간식	산 수	격주로 사 회 자 연 (실험 등)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간식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는 시간을 갖는다. (샌드위치 등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클럽방문

1. 클럽방문은 어떤 활동인가.

클럽방문은 기활기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막연한 호기심으로 가장 준비없이 참여하게 되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친구들과 나이트나 록카페는 가보았을지 모르지만 미군만을 상대로 하는 클럽을 가본 경험은 한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럽입구에서부터 우리는 미군들과 여성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클럽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합니다. 마음이 그저 무겁기만 해서 침울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는 여러분도 클럽방문을 하면 아직은 생소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클럽방문은 기지촌여성들과 미군이 클럽 안에서 맺는 관계를 직접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짧은 클럽방문을 통해 그저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처음보는 미군하고도 함께 놀고 술마시고 성관계를 맺으려 나가는 과정을 다는 볼 수 없지만 결혼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그 관계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클럽여성들이 돈을 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클럽의 걸모양부터 미군들이 술마시고 노는 모습까지 보면서 미군들이 한국 땅에 와서 누리는 문화를 간접적이거나 접할 수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펼쳐지는 미군과 한국여성들의 관계, 한국 땅에서 미군들이 누리는 문화를 보면서 비록 현상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기지촌 주변의 클럽은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내국인 출입금지' 혹은 '미군전용 클럽'이라는 뜻말이 붙어 있습니다.

내 나라 땅에서 출입을 통제당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의아함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더욱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국여성들은 통제없이 혹은 별 무리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군에게 있어서 한국여성은 어디까지나 성적 분출구이기 때문에 마음껏 와서 분위기 좀 띄워달라는 것일까요? 실제로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동두천의 경우에는 여대생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주말이면 서울에서부터 몇십명씩 와서 미군들과 놀기도 한다고 합니다.

클럽방문 일지

2. 클럽에서 만나는 여성들

1) 여성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우리는 클럽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게 될 테지만 결국 같은 억압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클럽은 규모가 크고 성업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규모가 작고 미군이 뜸한 곳도 있습니다. 흑인, 백인들이 서로 전용으로 출입하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작은 클럽은 빠-형식으로 된 곳이 많은데 주로 미군들이 오락을 즐기거나 편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형식이 많으며 보통 4-5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큰 클럽은 여성들의 숫자도 20, 30명 단위로 많으며 댄서, 웨치레스, 빠텐, 이야기 상대 등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댄서들은 젊고 미모인 여성들 위주로써 미군들로부터 가장 많은 시선을 받습니다. 웨치레스나 빠텐(술을 내주는 사람)을 보는 여성들은 대부분 직접 미군을 상대하기 힘든 나이 많은 여성들이며 빠텐은 어느정도 경력이 인정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뚜렷이 클럽 안에서 하는 일 없이 미군과 춤을 추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 여성들은 클럽에 장부가 있어서 미군과 상대하며 그들이 사주는 주스의 잔 수가 장부에 기재됩니다. 클럽에서는 미군용으로 나온 작은 병의 맥주를 파는데, 이것은 면세되어 시중보다 매우 값이 싸고, 이에 반해 주스는 한잔에 4500원 정도로 비쌉니다.

장부에 기재된 잔수에 따라 수익금을 포주가 60%, 여성이 40%의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비율이 90:10의 정도였으며 포주가 잔 수를 줄여서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 부당한 처사를 겪는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수입을 올리려고 미군들에게 술이나 주스를 사달라고 해서 하루에 20-30잔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주일에 한번 검진을 받는 성병진료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진료카드를 소지하지 않은채 영업에 참여했다면 경찰 단속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보도시설에 보내집니다. 한국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군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여성들을 내주려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의 황군을 위해 조선처녀를 끌어내던 정신대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여성들이 일하면서 맺는 미군과 관계는 어떤 것일지 조금씩 찾아봅시다.

2. 클럽여성들의 생활

새벽 2-3시에 일을 마치고 다음날 12시가 넘어서 일어나 끼니를 때우는 등 마는 등 대충 씻고 시간이 되면 치장을 하고 다시 클럽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빚에 시달리고 과로와 성병으로 인해 매우 건강이 좋지 못하며 미군을 위해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에 고립감에 휩싸이고 때로는 정신질환까지도 겪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실제로 기지촌의 클럽가는 얼핏보면 신촌이나 종로, 이태원 거리와 그 현란함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이 미국 향락문화에 젖어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기지촌의 거의 모든 간판은 영어로 되어 있고 화려한 네온 간판은 대부분이 클럽이라는 것이다.

"내국인 출입금지"라는 황당하면서도 치욕적인 뜻을 뒤로하고 클럽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빨갛고 어두운 조명아래 펼쳐진 클럽의 실제 모습을 접하게 된다. 클럽은 주로 찾아오는 미군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또는 젊은 사병이냐 나이는 장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작년 동두천 기합대원이 방문한 클럽중 OASIS라는 클럽이 있는데 젊은 사병들이 찾아오는 곳인지 뮤직 비디오에 시끄러운 팝송으로 클럽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실제로 테이블과 바에 앉아 있는 미군들은 젊은 사병이었다. 클럽내부구조를 살펴보면 한쪽에는 빨간 조명들 아래 바가 설치되어 있고 넓은 자리에는 꽤 많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클럽 안쪽으로 당구대도 몇 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2층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었는데 2층에는 여성들의 방이 있는 듯 했고 그곳에서 미군들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클럽의 존재이유부터가 미군들이 그들의 취향에 맞게 놓고 마시고 즐기기를 위한 것이듯이 직접 접해보는 클럽의 모습은 그러한 것들을 실감나게 한다.

클럽에서 나오는 맥주는 한 손으로 쥐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병 맥주로 두산에서 미군의 기호에 맞게 각별히(?) 신경써서 만든 것인데 내수 용으로는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클럽주인의 아들로 보이는 중학생 정도의 남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TV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클럽은 미군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 있고 우리나라 주민에게 향락적 문화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 여기저기에는 3-4명의 여성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미군과 술을 마시며 조용히 얘기하거나 장난을 치기도 하고 혼자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접근하면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과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깊은 속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여성들의 생활과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다. 작년의 경우 클럽에서 만났던 여성은 북한이 쳐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반면 미군에게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분노하기도 하였다. 클럽방문을 통해 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전반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떠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성들과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관계를 낳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의 여성들과 업주, 포주, 경찰, 주변 폭력배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냉대속에 갇혀 더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백만~4백만원의 빚을 포주에게 지고 있으며,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행히 같이 살림할 미군이 생기면 잠시 클럽생활을 그만두지만 미군의 폭력과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고충을 겪고 미군이 떠나게 되면 다시 이전의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의 고난을 겪는 여성들의 모습이 클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심스럽게 찾아봅시다.

3. 클럽방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활의 한 내용으로서 기지촌여성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클럽방문을 설정한 것은 단순히 기지촌여성의 생활에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클럽방문을 기지촌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깊이있게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읍시다. 클럽방문 할 때 너무도 낯설은 분위기에 어색해하고 여성들이 미군과의 관계안에서 처참한 현실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마냥 침울해 해서는 클럽방문에서 클럽여성들에 대한 이해도 별로 높아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라면 그들이 여대생이라 느끼며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클럽의 분위기에 젖어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성들과 찰막한 이야기라도 나누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여성들을 '언니'라 부르며 천연덕스럽게 클럽방문 활동에 임해봅시다.

- #남학생들은 클럽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작은 클럽을 골라서 그냥 놀러왔다고 우기면 가능하니, 노력해서 들어가봅시다.
- #여대생 티를 내며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온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복장, 언어, 행동 등 클럽에 놀러온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클럽여성에게 언니라 부르며 주스를 사주며 자리를 같이 해봅시다.
- #클럽방문 후 반드시 토론회를 갖고 자료로 남깁시다.
- #클럽가 주변에 경찰 백차가 선화하거나 정차해 있을 경우는 단속이 있는 날이므로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클럽방문 후 함께 토론회 봅시다

1. 클럽여성들의 생활은 어떠하며 그 속에서 겪는 미군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2. 우리나라 매매춘의 실태를 얘기해 봅시다.
3. 기지촌을 현대판 정신대라 합니다.
그 유사성은 무엇인지 얘기해 보고 제국주의 성침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참조: 사랑의 품앗이 그 왜곡된 성)
4. 클럽방문에 참여하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평가해 봅시다.

미군기지 방문

미군부대 방문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실제로 누리고 있는 여러 혜택과 그것의 부당함을 잘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송탄지역에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송탄과 평택에 있는 부대를 방문하고 나서 일지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1993년 0월 0일 OSAN BASE K-55 Air 부대를 방문하고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애초에 마음 먹은대로 송탄에 갔다. 송탄으로 하하는 직행버스 안에서 작년 처음으로 송탄기활에 참여하기 위해 보따리를 양쪽에 싸들고 가던 생각이 났다. 도대체 기활이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 감도 못잡은 채 그 많은 혼혈아이들을 만나면서 웃지 못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기활을 끝낸 후 정기적으로 가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함을 두고 있었는데 제주 금요일은 현장학습이라 정기적으로 미군부대를 들어간다고 오늘도 오랬만에 조언니에게 인사도 드리고 부대도 구경할 겸 해서 작정을 하고 내려간 것이다. 작년 기활때는 부대정문 확정 공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산기지 평택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지역인 송탄 K-55부대도 그 병력이나 규모가 많이 확장된 듯하다. 실제로 조 언니의 말에 따르면 송탄부대가 가장 큰 규모로 발전할 것이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병력이 많이 이동되어 왔다고 한다. 어쨌든 정문도 꽤 번쩍하게 고쳐놨더라니...

미군부대안은 자유스러운 곳처럼 보였다. 실제로 자유로운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통제 당하여 우리의 신원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곳의 미국선생인 마리아와 바비엄마의 에스코르토 무하히 정문을 넘어 그들의 성역안으로 걸으 들어 갔다. 나는 걸음을 한발씩 옮길 때마다 매우 노람을 겪어야만 했다. 언젠가 겨울바다 앞에 서서 끝이 보이지 않는데 신비스러워 하던 여러해 전의 일이 생각났다. 이상하게도 마치 그때의 그 기분이 들었다. 그곳은 실제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가도 끝은 볼 수가 없었다. 영내 버스를 타고 30여분간을 돌아보면서 끝을 보려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조 언니의 말이 살갑게 들었다. 이곳이 송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오산 베이스라 불려지는 것은 송탄땅보다도 오산의 땅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이란단. 언젠가 용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산 평택 송탄지역의 땅가운데 기지 이전을 거당한 면적 대부분이 매입되었는데 그것을 꼭 연결하여 보면 미국지도와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말에 많이 놀랐었다. 중부지역을 최대로 병참기지화 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소방서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는 곳으로 갔다.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 머무른 곳은 00터미널이라 쓰여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우리가 인솔한 10여명의 아이들을 보며, "어머, 어쩜 혼혈아 애들은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이 여자와 이야기하며 우리가 서있던 그곳이 바로 항공터미널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부대내에서 그곳 군인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파이어 터널'이라 쓰여져 있는 소방서로 갔다. 미국 선생 마리아가 먼저 들어가 그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뒤 안내를 받으며 견학을 시작했다. 그곳의 군인들은 일이 별로 없는 듯 저마다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일행을 인솔하며 아주 친절(?)하게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며, 기념품이라며 자신들의 모자를 흥내낸 빨간 어린이 소방수 모자를 선물했다. 우리는 부대안의 여러 기구앞에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도 했다.

부대내에는 한국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혼혈아도 꽤 많이 살고 있었다. 한국사람은 국제 결혼한 여성 혹은 미군과 교제중인 젊은 여자들과 부대내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으며, 한국 군인들도 많았다. 그곳에는 '카류사'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부대가 있었다. 걸어서는 볼았는데 들어가보니 '한국 공군 *** 부대'라는 낱말을 볼 수 있었다.

점심은 버거킹 햄버거를 사먹었다. 마리아선생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며 원하는 것을 사다 주었다. 우리도 햄버거를 먹었지만, 작년 기할때 그것을 먹으며 느껴야 했던 역겨움을 또 느껴야 했다. 하루내내 그로 인해 배탈 설사가 나서 고생을 했다.

부대에는 주거시설도 매우 잘 되어 있었다. '베릭스'라는 부대내 거주 미군을 위한 미군 아파트와 가족아파트 그리고, 일반 사택들이 많이 보였다. 주거시설이외에도 많은 편의시설이 있으며 유흥업소도 많았다. 미숙이와 내가 낱말을 보며 확인한 것으로는 클럽이 5개나 되었다.

곳곳의 미군들은 너무도 자유로워 보였다. 우리가 흔히 '군대'하면 떠올리는 '통제'되고 '절도'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군대있을때 가족들과 면회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뭔가 경직되고 일상 생활을 잊은듯이 보였다. '3년만 고생하시우!' 하며 농담도 했었는데... 그러나, 그곳의 군인들중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며 긴장되어 있는 사람은 정문출입통제를 담당하던 미군과 한국군 말고는 볼 수가 없었다.

부대 도로 한편에서는 숯불위로 뭔가를 구우며 파티를 하고 있는 무리도 있었다. 또한, 어디서 파티가 열리는지 큰 접시에 음식을 가지런히 차려진 것을 들고 군용버스 안으로 오르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미군은 가슴에 남녀가 성행위하는 그림이 있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들은 마치 군복무 중이라기 보다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는 소방서 견학을 마치고 놀이터에 들렀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정문을 향해 걸었다. 아빠가 미국으로 가버린 로시아와 제니는 유난히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며 서로 아빠가 몇개냐며 묻기도하였다.

버스에 오르자 피곤했는지 몇아가가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메리를 안고 버스에서 내려 놀이방까지 걸어갔다. 내몸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눈이 유난히 맑은 메리의 얼굴이 오늘따라 왜그리 슬프게 내 가슴을 때렸을까??

성역안의 미군들로 인해 얼룩진 삶을 살아갈 메리, 어쩌면, 내몸에 안겨 잠든채, 미국으로 떠나버린 아빠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3년 0월 0일 평택의 K-G Humphrey 부대를 방문하고서

오늘은 기할을 준비하고 있는 미숙이와 송탄과 평택에 다녀오기로 했던 날이라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다. 먼저, 송탄에 가서 조연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 평택으로 향했다. 송탄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평택으로 가서 다시 시내 버스로 종점에 위치한 K-6기지를 찾아갔다.

정식 부대명은 Camp Humphrey였다. (Support Group-지원부대) 아마, Humphrey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모양이다.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정한다고 한다. 캠프케이시, 캠프 스탠리등이 그러하다.

평택의 부대는 내가 늘 보아오던 송탄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지촌의 정경이 소규모이며 초라했다. 미숙이와 다니며 조사해보니 클럽의 수는 15개 정도였으나, 아주 화려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문에 자물쇠를 채운 곳도 있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도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미숙이에게 밤에 클럽안에 들어가보자고해놓고 용기가 나지않아 다음으로 미루었다.

거리에서는 혼혈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전국의 기지촌중에서 혼혈아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송탄과 평택이라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에스코트해 줄 사람도 없이 무작정 평택 부대를 보겠다고 왔기때문에 당장 무엇부터 해야할지 몰라서 부대 정문을 한참 바라 보았다. 정문에서 기지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는데, 숙소나 여러시설들이 시야에 들어 오지 않을 정도로, 넓고 방대했다.

우리는 기지안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정문옆에 있는 놀이터를 지나서 철조망에 달라붙어 부대안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잘 닦여진 도로, 자유로이 조깅하는 미군들... 그래도 건물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철조망에 달라붙어 부대안을 들여다 보는 우리들이 이상했는지, 자꾸만 우리들을 쳐다 보기도 했다.

우리는 거기서 아주 기분 나쁜 것을 보았다. 정문옆의 약수터처럼 보이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약수인가하고 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아저씨, 이거 약수물이에요?

*물라고요.

*그럼, 물맛이 괜찮은가요?

*모르겠어요.

그 아저씨는 피식 웃으며, 무관심하게 내 말에 답했다.

미숙이와 나는 그릇을 하나빌려 물을 받아 서로 마셨다. 또, 물을 받으며 내앞에 있는 낱말을 보았다. 물의 시원함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낱말이었다.

[이 식수는 Camp Humphrey 부대에서 제공하는 식수입니다. -Camp Humphrey-]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자기네가 제공하는 것이니 고맙게 받아 마시라는 말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도 미국에 감사하며 마시라는 건가?? 도대체 우리나라 물을 자기네가 제공하는 물이라고 우기다니... 도둑놈 같으니라구... 자기들 물장수가 따로 없구나...

그런데, 더욱 더 놀란 것은, 그 옆에 똑같은 크기로 보기 좋게 붙어있는 낱말이었다.

[이 식수를 아껴서 씹시다. -평성음장-]

미군이 고압계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돌려보낸 물이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껴쓰라는 그 지역 읍장의 어명(?)이란 것이, 어쩌나 나를 허탈하게 만드는지... 이놈의 땅덩어리는 불조차도 주인을 잃어버린 곳이 되었구나 싶었다. 학교에서 늘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면서 코끝이 찡해왔다.

“풀 한포기 하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식민의 땅 아들아, 딸들아,
어서 일어 나거라...”
오늘처럼 이 노래가 실감나게 가슴을 울린 적이 없었다.

송탄의 K-55나 동두천의 Camp Casey처럼 큰 부대를 방문하고 나면 먼저 미군부대의 크기, 잘 갖추어진 숙소와 위락 시설에 놀라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동두천 Camp Hobby는 군용트럭, 탱크도 볼 수 있고 부대안에 인공기가 걸려있는 등 미군들에게 반북의식을 노골적으로 고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매우 삼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군기지를 방문할 때는 먼저, 그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이며,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지를 알고가야 합니다. 동두천 Camp Casey에는 한미야전 사령부가 있고, 의정부 Camp Stanly는 휴전선 일대에 핵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헬기 부대이며, 송탄 K-55는 한국군정부 예측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두고, 그 기지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를 알면 미국의 대한 군사전략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지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한 경우, 주민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자료를 통해 구해보거나, 지역 단체 실무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전 반대 운동을 하는 펄팩 단체 실무자들과 만나면서, 그 운동에서 한 몫을 담당할 부분을 찾아서, 기활이 끝난 후에도 학우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해 봅시다.

1. ID Card가 있어야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국제 결혼한 여성이나 카류사가 에스 코트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ID Card를 가진 1명당 1, 2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2.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을 찾아 봅시다.

1. 방문한 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어디했는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민족이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지 알아봅시다.
2.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려면 어디해야 하는지, 지금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부대 방문을 통해 느낀 것은 무엇인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역 조사

지역조사는 1. 지역의 상황

2. 지역 주민들의 생활 상태와 의식

3. 주민들의 모임 등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함께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지역조사는 이후에 그 지역단체에게는 지역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 다른 지역에게는 지역 단체와 지역실정에 맞게 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작년에 동두천에 기활갔던 학우들이 했던 지역 조사는 클럽 수를 확인하고, 여성들의 숫자를 추정하며, 기지주변 클럽가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가게 주인과 이야기 해보기 등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새벽 6시에 조사하여 지도를 그리고, 밤에 나가서 클럽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동두천 Camp Casey 주변에만 61개의 클럽이 있었고, 매순에 종사하는 여성이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동두천, 용산에서 지역조사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각각의 내용과 조사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동두천에서

1. 지역의 상황

동두천에만 미군기지가 다섯군데나 있지만, 정확한 클럽 수, 여성들의 숫자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새벽에 조사하고 밤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든지 해서, 클럽의 이름과 대강의 규모까지 들어간 지도를 그려 놓으면, 후에 지역 단체 활동에 쓸모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기지에 대해 한 팀이 완성하기 어렵다면, 일부만 조사하고 다음 팀에게 넘겨 완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

지역 주민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꾸밈없이 볼 수 있는 곳을 떠올려서 찾아가 보는 등, 우리 동네 사람들 생활을 떠올려보면 자연스런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대원들의 적극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활대원들이 중점적으로 만나야 하는 지역 주민은, 역시 기지촌 여성들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을 관심가지고 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편하게 이야기 하면서 그들의 생활과 의식을 알아봅시다.

아이들은 어쩐가, 몸 아픈데는 없는가, 어제 본 TV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생활속의 이야기에서도 여성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여성이 살아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무리하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간을 내어, 단체 실무자들로부터 여성들의 삶의 역정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지촌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주인이 미군과 물건값을 흥정할 때 물건을 보는 척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든가, 택시에서 운전자들에게 미군이 택시비를 잘 내는지 물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작게나마 만들어 봅시다. 어렵다면 시장에서 상인들,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어가면 동네의 모습을 비교적 솔직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운동 단체분들과 만나서,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생활 수준은 어떤지, 미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피해를 받는지, 총선때 주민들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두천이라면 미군이 잘 갈만한 음식점(Fast Food점 같은)에 가보면 미군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요.

3. 주민들의 모임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인사나 단체들의 움직임을 배려하지 않고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어려우니,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의 전교조 선생님, 노동조합 간부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봅시다. 동두천 대학생회 학우들을 만나보는 것도 또다른 느낌을 줄 것입니다. 지역에 애착을 느끼고 살아가는, 나와 같은 대학생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들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용산에서

1. 지역의 상황

용산역 주변에 대해서는 여관 이름과 수, 파출소의 위치 등을 조사하여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태원에 대한 지역조사도 필요한데, 클럽 수와 이름, 경찰서등 관공서를 조사해서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 처음 가보는 곳이고 거리에 사람이 많으니, 거리 풍경을 자세하게 써서 자료로 남깁시다.

2. 지역주민들의 생활실태와 의식

용산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막달레나의 집으로 갈때 여성들과 최대한 대화해 본다든가, 공부방 아이들에게 "이럴때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하고 묻는다든가, 캠프갔을때 여성들과 사소하게라도 접촉할 일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매순 여성들이 자주가는 미용실이나, 목욕탕에 가보는 것도 여성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구장에 가 본다면(남학우들과 함께) 기동서방이나 중고 등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겠지요.

지역 주민들을 알기 위해서라면 시장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태원 지역에서는 옷 가게에 가서 옷을 고르며, "미군들은 주로 어떤 옷 사가요?"하고 주인에게 말을 붙여본다든가 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3. 주민들의 모임등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

용산지역에 있는 다른 민주 단체들을 방문해서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용산이 가지게 된 특성, 왜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나가야 하는가, 하반기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이전 운동과 관련해서는 대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작더라도 활동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게 합시다.

함께 만들어나가는 기활

연세대 이과대 여학생회

여러분 누구나 기활준비를 정성껏 마치고 나면 기활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활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활동에 들어가서 몇가지 주의점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칫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활에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면 최대한의 의미를 담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아침조회는 계획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우선 - 출퇴근이나 숙식에 무관하게 - 하루를 시작하며 그날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침조회는 그날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서로의 의지를 모아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빈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침조회는 간단하게라도 빠뜨리지 말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일과에 지쳐 아침조회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숙식을 하더라도 아침을 잠으로 소비한다거나 하는일 없이 빈둥대는 일이 없도록 아침조회는 물론이고 남은 아침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침조회는 책임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2. 활동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함께 책임져나갑니다.

기활대원들이 활동에서 원칙을 지키도록 대원들이 서로 지켜보고 돕고 함께 평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활대원 모두의 활동에 대해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함께 노력합니다.

1)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닙시다.

기지촌활동가는 단체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놀이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활대원들은 단순히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가르치기만 하는 시간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기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올바르게 지속적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키워주며 공동체적 생활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놀이방이나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귀엽다고 무조건 받아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야 하겠습니다.

2) 여성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갑시다.

공동식사를 하거나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 때에는 단순한 일상적인 만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여성분들을 의도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그분의 삶 속에 배어있는 고통을 캐어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같은 억압을 받고 있다는 동질감과 인간으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 한하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 중에 실무자분께서 평범한 대화 속에서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짧은 기간동안에 배우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몇 가지의 기본자세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여성분들의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듣고 관심을 표하는 것과 대원들끼리의 대화를 배제하고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합시다. 기활준비중에 여성분들과의 대화 거리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3. 기활일지 작성과 평가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루 일정이 끝나면 평가가 따르는데 우선 개인이 작성하는 기활일지를 꼭 적는 것은 기본입니다. 각자가 작성한 일지를 돌려보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 평가에서는 대원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루의 활동을 기활에 임하는 관점이나 평가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활본활동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은 기활대 나름대로의 기활 관점이나 의의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연세대 이과대 기활대의 경우 ①기지촌 여성을 이해하고 매매춘에 대한 편견을 깨며 ②기지촌의 모순을 사회구조속에서 파악하며 ③후속사업을 활동과 연계하여 고민하자는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하루의 평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더라도 기활대원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평가를 꼭 하고 내일의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준비하도록 합시다.

4. 활동내용은 꼭 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숙식을 하는 경우에는 본활동 속에 부대및 클럽방문, 회원집 방문 그리고 토론, 지역 조사가 있게 됩니다. 기지촌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에 대한 일정을 활동지역 실무자와 함께 잡

아나가고 그 의의와 목적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하루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활대의 활동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내년 기활을 더욱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기활대규율을 기활대 나름대로 정하여 본활동 기간중 약속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각 기활대별로 규율부장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활동을 만들어 가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활대 운영을 잘해 넘시다.

송신 두레방

두레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소속 특수 선교 센터이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쉼터인 두레방은, 여성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자신들의 억눌린 삶을 해방하며,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한다.

두레방은 전 평민당 부총재 문동환씨의 부인인 문혜림 선생님(미국인,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서 사는 두레방 회원들과 만남)이 처음 설립하였고, 지금은 이성혜 관장님과 5명의 간사, 2명의 직원, 많은 자원활동가가 함께 일하면서 두레방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송신 두레방은 86년 3월 17일 송산 스탠리 캠프(Camp Stanley) 미군부대 후문으로부터 낮은 언덕을 따라 400여 미터에 걸쳐 미군전용 클럽과 각종 기념품가게, 판자집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기지촌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송산에서 두레방이 처음으로 한 일은 이마을 입구에 유일한 시애틀 건물로 세워져 있는 성병진료소와 성병검사에서 병이 생긴 것으로 진단된 여성들을 수용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낙검자 수용소를 방문해 여성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번 성병진료와 한달에 한번 에이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고 보건중에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도장이 찍혀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남성을 상대로하는 매춘지역 여성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강제성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검사를 회피한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받는 것이 번거롭고, 검사에서 떨어지면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남성을 상대로하는 매춘 여성들은 매춘을 하는 전기간동안, 단 한번의 의료 혜택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기지촌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미군에게 깨끗한 한국여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지촌여성들이 ^가성병과 ^가에이즈를 옮기는 대상은 미군이다. 미군은 검사하지 않고 기지촌 여성들만 검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너무나

불공평하다. 성병진료소와 낙검자 수용소에서 만난 기지촌 여성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영어공부였다. 두레방은 철저히 이 여성들 입장에 서서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함께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시작했고, 이들의 일상 문제들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에 첫 프로그램으로 '교양 영어교실'을 개설했다. 이 여성들이 영어 공부를 원하는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미군에게 속는 경우가 자주 있고, 국제 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레방에서는 여성들을 만나는 상담활동과 교육 이외에도 기지촌에서 일생의 명예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수많은 혼혈아를 위해 놀이방과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기지촌은 혼혈아에게도 포주의 아이에게도 나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한다. 기지촌은 미군기지 옆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사문화와 미국 문화 중에서도 저질문화 그리고 비디오 문화가 명백해 있다. 미국은 자원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지원하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저학력이거나 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천과자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주한 미군들의 생활문화는 미국 문화중에서도 저질의 문화이고, 자기자신이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부인이나 자식에게 애정을 나눌 줄 모르는 미군들이 많다. 따라서 놀이방과 공부방의 교육내용은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사상과 우리민족애를 심어주며 사회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두레방에서 벌이는 또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업은 89년까지의 4년간의 활동을 중간 점검하면서 89년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빵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빵만드는 일은 늙어서 더이상 매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현재는 3명의 매춘여성들이 전업, 월급을 받으며 빵만드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나이든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20대나 30대의 기지촌 여성들도 두레방 빵을 만들고 싶어했다. 이것은 이 여성들이 결코 방탕하거나 노동을 기피해서 기지촌까지 오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90% 이상이 건전한 노동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저학력이기 때문에 영세한 봉제공장과 같은 곳에 취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런곳은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도 적고, 작업환경도 나쁘고, 노동조합은 구경조차 해보기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노동에 긍지를 갖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와 같

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이러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서어비스 직종 밖에 없다. 이발소나 다방과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국내 남성을 상대로하는 매춘 지역의 포주에게 팔려가게 되고 이러한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기지촌까지 오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촌 여성들은 가난 때문에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 밀려갈곳이 없게 되어버린 여성들이다. 이렇게 결코 '개인의선택'이 아니었기에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두레방빵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춘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매춘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건전한 노동으로 환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두레방 빵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두레방 빵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두레방 빵은 여성들에게 자신이 만드는 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풍부한 재료를 넣어서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다. 그 종류는 통밀빵, 당근빵, 호박빵, 사과빵, 계피빵, 땅콩빵, 옥수수빵, 초코빵, 모닝버터빵, 크림빵등 다양하다.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던 송종순씨를 구명하기 위한 활동, 윤금이지 살해미군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다른 사회단체, 학생들과 함께 펼쳐나갔다.

또한 두레방은 여러가지 연대활동도 모색하고 있는데, 필리핀 수빅만 해군 기지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단체인 부콜로드(BUCOLOD)와 정보 교환등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대학생과의 연대 사업을 통해 기지촌 실태와 기지촌 여성들의 상황을 홍보해내고 있다.

매춘문제는 백만이 넘는 매춘여성들 모두가 건강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촌 여성들의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의 전제조건인 미군은 이 땅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동두천 두레방

90년 12월 3일에 동두천에도 두레방이 문을 열었다. 거대한 미군기지와 기지촌으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어 발전해온 경우인 동두천에서 두레방이 문을 연 곳은 주한미군 중 가장 중요한 지상군 기지이고 1만 5천의 미군을 포함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 (Camp Casey 제12보병 사단) 미군부대의 바로 옆이다.

* 상담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억눌림, 분노가 쌓인 사람들이 특히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누구보다 더한 한과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상담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두레방에서의 상담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혼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가슴속에 맺힌 이야기들을 충분히 밖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스스로 과거에 대해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여성과는 그 여성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상담의 과정은 딱딱하지 않다. 때로는 술자리에서, 때로는 점심 공동식사를 하면서, 영어교실을 하면서, 그냥앉아 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물론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는 여성과는 따로 만난다. 이러한 상담이 계속되기에 많은 여성들이 두레방에 정을 느끼고 친정처럼 생각하는 편안함을 갖는다.

* 영어교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고당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의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여성들에게 있어 영어는 자신의 생존수단이다. 이 곳에서 영어를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님을 받을 기회도 놓친다는 것이고 미군과 싸움이 벌어졌다는지 국제결혼을 해서 미국에 간 다할지라도 영어를 못함으로 인해 많은 불거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어교실은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반에서는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어교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여성과 결혼한 미군을 위해 시작되었다. 국제결혼을 했거나 동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자(미군)가 여성의 빚을 급급에 갚아주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불평등한 사이가 된다. 그러면서 많은것이 미국남자 중심으로 자리잡힌다. 언어나 먹는 것, 입는 것, 집안의 구조등이 미국식이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 이 여성들은 영어를 배우려하지만 남자가 한국어를 배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 문제제기를 하며 한국어 교실을 개설한 것이다.

여성이 영어를 배우는 것 뿐만아니라 미군들도 자기 아내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어교실을 배우겠다는 미군이 없는 관계로 개점 휴업 상태이다.

* 놀이방

혼혈아들의 문제를 떠올릴때 흔히들 사생아와 입양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에 성공한 부부의 아이라할지라도 문제점은 심각하다. 어릴때부터 불우한 환경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 엄마들이 대부분이기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랑과 교육을 하지못한다. 아빠 역시 미국내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직업을 얻지 못하고 군에 자원하여 군대문화에 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굉장한 애정결핍 상태가 많다. 또한 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기지촌만을 전전하며 살아야하고(아빠가 미국 군인이므로) 자주 낯선 곳으로 옮겨다녀야하는(미군이 한 곳에 주둔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므로) 아이들은 산만할 수 밖에 없고 놀이문화도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게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애정결핍과 생활의 불건강함으로 인해 분노와 상처가 쌓이면서 자증이 많이 폭력적으로 되기가 쉽다. 또한 한국여성과 미국남성이 만나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이로만 키워지는 잘못된 점이있다. 분명히 반쪽이 한국의 밋줄인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놀이방은 91년부터 시작되어,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가 뒤엉켜 즐겁게 놀면서 꿈과 정의를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재정문제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92년 봄에 문을 닫았다. 동두천 두레방에서는 이번 여름에 취학,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학교를 연다.

공동식사

이 여성들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늦게 일어나 더군다나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경험있는 이들은 잘 알겠지만 그리 즐거운 시간은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역시 별로 차려먹지 않는다. 술을 많이 마셔야만 하는 생활에서 계속 굶고 지내기에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된다. 두레방의 점심시간은 이런 여성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공동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며 친교를 나누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초기에는 두레방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했었지만 1년전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고 (쌀과 반찬등...) 함께 밥상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다.

지역 단체소개 2 동두천

믿음, 희망, 사랑의 공동체 다비타의 집

다비타의 집은 동두천 미 제2사단 정문 앞 헬기장 바로 앞에 있으며, 30여명의 기지촌 여성들이 살고 있다.

믿음, 희망, 사랑의 공동체인 다비타의 집은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착한 일과 구제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여인 다비타의 이름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본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건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초교파적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지역 주민들과 특히, 보산동 환락가의 윤락 여성들과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지역과 살아 숨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진정 지역속에서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고자 동두천 보산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과 선교, 화해와 일치, 고백과 순종, 나눔과 섬김, 노동과 청빈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다비타의 집은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계획과 실천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 공동체 예배 : 매주 화요일과 주일날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신앙과 실천을 통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2. 평화의 방 : 오갈데 없는 노인, 가정문제로 집을 나온 사람,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3. 놀이방, 공부방 : 미취학 아동 및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학문과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며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좋은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4. 의료선교 :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 피부과, 한방과등을 통하여 치유 공동체를 실천합니다.
5. 복지 사업 : 현실을 탈피하고 전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대체 직업을 마련하고 경쟁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수익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무료배식 :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1일 2식을 선교적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7. 문서선교 : 각종 회보 선교책자를 발행하여 생명의양식을 공급해 주는 복음사역
8. 장학사업 :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입니다.
9. 교도소선교 : 갇힌 자들과 함께 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심어주는 선교사역입니다.
10. 연구 및 기획부 : 사회병리 현상들을 연구 분석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통전적 연구부서입니다.

막달레나의 집, 네온글방

막달레나의집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친구이며 휴식처입니다.

매춘여성은 오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와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성운리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희생제물이 되어왔음에도 사회는 그들을 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막달라마리아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변신시켰듯이 우리도 매춘여성들을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목적 배려로 카톨릭 사회복지회와 가톨릭 수녀회의 도움으로 1985년 7월 22일 용산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막달레나의집은 공간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사회 불조안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당하고 사회로 고립된 자라는 사선을 밟아가며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희망에서 출발하도록 전폭적인 살고 있습니다.

처음 : 용산역 앞의 2층의 조그만 다방에서 시작된 막달레나의집은 상담의 비밀보장과 이들을 위한 여성들의 수가 많아서 넓은 집의 필요성을 느껴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2층의 건물으로 이전하여 현재 2층의 고층으로 인해 적적해짐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상담을 하거나 몇몇이 머물다 가기도 합니다. 또한 구내식당이나 관한과출소, 보건소, 동사무소등을 통해 오는 가출 부녀자들을 일시 보호하며 가족들과 연락해 귀가시키는 일과 지역여성들은 물론 포주나 기동서방들의 전회나 알선 등으로 수시로 어떤 일든지 그들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휴식처 제공 : 심신이 고달프거나 외로움을 느낄때 언제든 자유롭게 출입하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시장을 봐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포주나 기동서방을 피하거나 봄이 아플때 꽃아와 회복원까지 몇일씩 쉬어가곤 합니다. 그들은 울고 싶거나 외로워 할때 교회로 가고싶지만 죄인이라는 생각에 참다 교회 문을 열지 못한다며, 교회 대신 어둠을 찾아와 침묵을 즐기기도 하며 오라, 기도 등을 통해 위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한자와 상가집 방문 : 수술 혹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를 방문하여 보살핌으로 정이 그리운 그들을 위로해 주고 제수없다는 이유로 가까운 이웃조차도 들여다보길 꺼려하는 병원이나 상가집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의논하고 도와줌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해 줍니다.

선교 활동 : 성탄이나 부활때는 조그만 선물과 부활 제관등을 나누며 예수님 탄생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알게해 주고 교리나 영성지도 또는 월 1회의 미사나 기도모임 등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실분은 예수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남 : 막달레나의 집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만남을 통한 이웃사랑과 의식화운동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생일을 챙겨주거나 명절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갈 수 없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떡국이나 송편등의 음식들을 준비하여 차려를 지내고 율놀이 등으로 하루를 즐기며 고향에 갈 수 없는 쓸쓸함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또한 년례행사로는 60~70명이 참가하는 야유회를 갖고 보물찾기, 장기자랑, 게임 등으로, 오락은 언제나 술과 화투가 있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인식을 바꿔게 하고, 해마다 참가 인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런 만남들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정보 교환으로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동료들 위해서는 힘을 합쳐 대항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뜻이 통한 몇 사람들이 한가족이라는 친목회를 만들게 되었고 20명의 회원들은 월 1회 정기모임과 상환에 따라서 임시소집으로 회원 가족들의 결혼사에 참여하거나 년 2회 야외 모임과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 : 월 1회 무료진료와 상담을 통하여 조기발견과 치료를 함으로써 막달레나의집 개원 전 발생했던 사망률이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알콜이나 습관성 약물중독 환자는 많은 대화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고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부인과 환자들을 요셉병원이나 도티병원에 의뢰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혼 :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은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임에도 자신의 과거로 인해 가까웠던 친구조차도 초대할 수 없는 쓸쓸한 결혼식입니다. 막달레나의집에서는 결혼식 참석은 물론 그들이 다시는 불행해짐을 방지하기 위한 혼전 교육과, 결혼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 여러가지 악조건과 좋지 못한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야 예방책으로 부모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동일등의 도움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강인, 수사님, 대학생등 10여명의 봉사자가 주 1회 방문하여 그들의 부족한 과목들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배론글방)

호적과 법률상담 : 여성들중 상당수가 고아 혹은 어려서 가족한 여성들로써 호적이 없거나 가족을 찾지 못해 안타까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구청이나 법원등을 찾아다니거나 봉사부소의 복지대상을 뒤져 호적을 만들어 주고 가족을 찾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나 기술원 장애인, 장애인지, 대대장으로 인정하는 인권 회복에 대한 힘을 함께 모우고 보충, 기술시방, 중간배개자, 공무원 등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착취에 대해 상담, 예방하고 금전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취업알선 : 지속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해줍니다. 사회직동에 필요한 대인관계와 직업전환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그들 직성에 맞는 작업을 알선해 줍니다. 작업할 수 있을 때까지 침식제공을 해 줌으로써 적은 수입으로 인한 도시생활의 어려움과 새로 시작한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도록 서명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도와 줍니다.

배론글방에서는..

배론 글방에는 현재 상주하는 책임자(손숙경 선생님)가 한분 계시고, 한 주일에 한번씩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5분 계시다. (중1 영어 선생님 두분, 중2 국어 선생님, 국민학생 음악 선생님 각각 한분) 아이들은 20명 가량 글방에 오는데, 국민학생이 4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학생들이다. 포주, 매춘여성, 지역주민의 아이들인데, 특히 중2에는 용산지역 토박이들이 많다. 여학생은 전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학생들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성적도 매우 낮다.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이라 해야 할까. 하지만 갈곳이 마땅히 없는 아이들에게 글방은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다. 국민학생들은 1시부터 오후 내내, 중학생들은 저녁 7시부터 이곳에 오는데, 선생님과 공부 약속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글방을 드나든다. 아이들은 글방에 꾸준히 오지만, 최근 글방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3-4년 정도 꾸준히 나오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취직 등의 사정 때문에 대부분 얼마전에 그만두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두번 왔다가 울고 가서는 다시 오지 않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이 짧은 기간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글방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다. 글방 선생님들이 쉽게 그만두는 일이 계속된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활동 기간 중에 한두번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안된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가기로 한 날에는 꼭 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활동이 끝나고서도 계속 자원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과 공부시간은 많지 않아도 좋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함께 놀고 무엇인가를 함께 하면 된다. 글방의 프로그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공부 약속을 잡아야 한다. 공부 이외에도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풍물 등 악기 강습, 경당 등 무술 강습, 레크리에이션, 공동체놀이, 영화, 연극 관람, 성교육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캠프에는 꼭 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이며, 막달레나의 집 여성들,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다.

되찾을 땅, 우리의 땅, 용산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의 품으로!

1.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의 취지

'93 범민족대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합의서 이행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남북 의서 이행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그 동안의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최근에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사활적 문제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운동은 올해 범민족대회의 중실 기조에 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한반도의 화 정착과 남북합의서 이행에 충실한 사업이며 서울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안으로 시민과 함께한 전개함으로써 서울시의 발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용산미군기지이전 운동은 민족의 자존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외 군의 기지를 수도 서울에 상주시키고 있는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용산미군기지 이전 운 은 민족의 자존과 자주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그리고 국민적으로 합의되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지금에 이르러 보 되거나 백지화 되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비용의 문제와 새로운 기지의 조건 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적인 합의 파기이며, 이는 한.미 간의 불평등 한 관계에서 비롯 된 것 다.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남득이 가지 않는 매우 불평등 한 것으로 용 미군기지 이전 운동은 불평등한 관계와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다.

문민정부라 불리는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때를 같이 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보류는 민족의 지 과 자주권의 상실을 의미 한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운동은 김영삼 정권에 민족자주적인 입장 권 를 촉구하고, 개혁을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으로 진전시키며 국민 모두가 여 하는 개혁의 방안을 마련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운동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고 나아가 군비축소 이루어 국민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보장하기 위함이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기 사용료 한국 정부가 받음으로써 이 비용을 국민들의 복지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용산 미군 기지는 서울시의 발전을 저해 하고 질곡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미군기지 이전 서울시의 주택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며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를 위해 이전 이후의 용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합의로 만 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의 사업 방향

1)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 한다. 미군기지 이전운동은 자체로 민족 자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며, 서울시민이 중심이 되어 전 국민이 참여 하는 운동으로 상층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운동은 서울시민의 생활상의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생활상의 문제로 부터 정치적인 사안으로상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은 그 자체로 민족 자존과 자주권을 시민의 힘으 로, 민족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

2) 한미 불평등조약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한다

최근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합의가 보류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류 이유는 한국정부측은 이전비 부담 때문이고, 미국측은 새 기지의 제반 조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 이 전액 부담한다는 자체는 매우 불평등한 조건이다. 미군기지를 한국에 둔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당 하게 군사기지 사용료를 추정해야 하며, 군부대 내의 제반의 군기지 제반의 활동이 우리 정부 측에 보고되고 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의 자주적 권리를 유린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하는 '한미행정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 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3)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새 기지의 부대 시설을 최소화 하고 임대료 부과 등 제반의 권리를 회복한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의 전액 미국측 부담은 물론이고 기지 사용료를 추정하여야 한다. 한 이전하는 새 기지의 부대시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지의 부지 확장을 저지해야 하며, 기존의 시 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기지를 이전해야 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은 지역간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 전운동의 본질은 민족 자주권 실현에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기로 계획된 송탄, 평택 지역과 서울지역은 긴밀히 연대하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제반의 권리를 회복하고, 부대시설을 최 소화 하는 선상에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본부'(가칭) 결성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본부'(가칭)의 구성은 용산의 미군기지를 서울시민이 중 심이되어 이전시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 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운동은 서울시민의 힘과 역량에 의거해야 하며, 서울시민의 힘이 하나로 되 었을 때 성과를 남길 수 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해 이전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용

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본부'를 구성한다. 이전운동 본부는 민족의 자존과 자주권 복을 중심으로 한미간의 불평등 조약인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이전 비용 미국측 부담과 새 기지의 부대시설을 최소화 하여, 기존의 시설에 미군기지를 최소화 하여 이전해 새 기지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이전 하도록 한다.

운동 본부의 결성은 이전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중들의 민족자주 의식을 고취시키고 조하는 의의와 목표를 갖는다. 특히 '93년 범민족대회 전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의 전개는 서울 범 본 산하의 특위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고양하고, 그 성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범민 대회를 대중적으로 사수하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

4. 서울 범추본 산하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특위'를 둔다

'93 범민족대회 기간 중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론화 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 하기 위해 서 범추본 산하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둔다. 특위는 범추본의 사업에 결합하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의 대중화를 통해 서울 추본을 강화하고 특위의 성과로 범민족대회를 대중적으로 성사하기 위해 범추본 산하에 두며, 범 족대회 이후 범추본의 역량을 중심으로 범시민운동 본부로 전화하기 위해 특위는 범추본 산하에 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범추본 산하의 특위를 중심으로 이전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연합의 조직을 발동 하고 시민 체를 조직하는 등 제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범민족대회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용산 미군기지 ' 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본부'로 전화 한다.

5.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시민운동 사업 계획

1) 서울범추본 특위의 사업 계획

- 6월 25-7월 10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촉구를 위한 항의 방문(국방부, 미대사관, 용산 미8군 기지 등)

용산 미군기지 이전 보류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달 (청와대, 국방부, 미대사관, 한미연합사)

- 7월 10일

클린턴 방한 반대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한미 불평등조약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

- 7월 16일 오후 8시(성남교회)

문 익환 목사님 강연회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민족자주'

주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주최: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용산시민회의

후원: 서울범추본

- 7월 20일 ~ 8월 7일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서울시민 운동 기간'

7월 20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공청회

내용: 용산 미군기지과 민족 자주

용산 미군기지과 서울의 교통, 주택, 환경 문제

한미불평등 조약 개정에 대하여(행정협정, 방위조약)

이전에 따르는 새기지의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용산 기지이전을 시민과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

8월 7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을 위한 서울시민 1차 걷기 대회'

- 걷기대회를 통해 범민족대회 시기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운동을 총화 한다.

- 걷기대회에 서울 범추본 조직의 역량이 총화 되도록 한다.

- 걷기대회는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추동한다.

2) '용산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 본부'의 중점사업 계획

①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취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 불평등 관계 청산 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개 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 한다. 이를통해 대중적인 반미 자주의식을 고양한다. 범시민운동 본부의 중 점 사업으로 전개 한다.

- 기간: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전개하여 94년 3월 정기 국회에 청원한다.

- 방법: 초기의 목표는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울중심으로 전개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 로 확대하여 전개한다. 특히 새기지로 거론되는 평택, 오산 등과 전국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진행한다.

②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인간사슬

- 취지: 서명운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중사업을 총화하고, 증폭하는 계기로 삼는다.

- 시기: 서명운동의 1단계 10만 서명운동 목표 달성과 때를 같이 하여 진행한다.

- 대상: 서울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명에 참가한 시민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김영삼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정 전반을 이끄시기에 얼마나 여념이 없으십니까?
이러한 질의서를 드리게 된 것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사실상 무기연기하는 방안이 한미
당국 간에 논의 중이며, 대통령께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유보를 검토한다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의 측면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생활권적 요구에 비춰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저희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에서는 민족의 자존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되
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쁘시더라
도 빠른 시일 내에 답신 주시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제 나라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 외국군의 기지를 허용하고 있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
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을 가진 나라와
민족에게 수치와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미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클
린턴 미 대통령 방한 때도 한미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주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전달할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1894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한데서 시작하여 내년이면 용산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지 100년을 맞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 당국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의
"이전계획 백지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김영삼대통령께서 용산의 외국군 주둔 100년은 넘긴 대통령으
로 역사에 기록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보류한다면 보류 시한은 언제까지이며,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될 것인지 소상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0년 6월 노태우정권은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전액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김종필 민자당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2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액수도 문제이려니와 이전비용을 한국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민족적으로도 굴욕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1990년 6월 노태우정권 시절의 이 굴욕적인 합의각서를 전면적으
로 재검토하여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 지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4.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의 한국기지 사용권과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한미간의 불평등
의 내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
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과 김영삼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필리핀의 경우 미군기지 사용료로 매년 12억 달러 가량을 요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매년 19억달러 이상(87년 국방부 자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에서 한국처럼 미군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다른나라의 예처럼 미군 기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리핀은 자국 내에 있던 미군기지에서 사용되는 암호에 대한 해독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주한미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요청해야 할 제반의 군사전략 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의 견해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미군기지 영내에는 AFKN 등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AFKN의 경우 화질 상태가 제일 좋은 VHF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만여명의 미군을 위해 4천만을 무시하는 군사정권하에서의 왜곡되고, 굴욕적인 처사였습
니다. VHF 채널 2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동두천에서 윤금이 여인이 처참하게 살해되어 민족적인 공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도 주
한미육군 2사단의 존 로저 병장이 무고한 부녀자 김국혜씨(51세)를 폭행(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으나 정부측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미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측의 입장을 밝혀주시십시오.

미군기지가 있는 용산 일대에는 건축규제가 심하게 적용되고 있어 용산지역은 물론 서울의 발전을 심하게 저해하
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4년 완공된 국내 최초의 '행거 아치교'인 동작대교가 용산 미군기지로 인하여 반신불수가
되어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용산미군기지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받는 생활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도입니다.

이미 도시환경,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이 광대한 공간에 문화, 휴식공간과 서민아파
등 서울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김영
삼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4 삼우빌딩 301호

▶ 전화: 747 - 4362 FAX: 747 - 4363

1993년 7월 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성명익정 이 전 제

주한 미국대사께 보내는 공개질의서

모다 평등하고도 발전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한 미대사께 치하를 보냅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서를 전달하게 된 취지 다름이 아니라 지난 시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최근 사실상 무기연기될 상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정을 파악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호혜의 관계로 발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귀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이므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의 진정한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세계 어느나라에도 외국군대를 자기 나라의 수도에 상주시키고 있는 예는 대단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의 수도인 워싱턴 한복판에 외국군 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는 미군이 나가한다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미 국방부는 세계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 중 40여 곳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한국에 있는 의정기지를 비롯한 2군대의 기지가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용산미군기지 이보류 검토는 상호 모순되는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기지를 축소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용산군기지 이전을 사실상 무기연기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3. 90년 6월 체결된 한미 양국간의 합의각서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2조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민들 다수는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비용을 우리 한국민들의 세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 근거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4. 지난 90년의 합의각서는 당시 노태우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 시절 체결된 것으로, 이전비용의 전액 한국 부담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높았습니다. 특히 당시 노태우정권 시절이 이제는 청산되어 할 권위주의시대였기에 양국의 새 정부 사이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새롭게 합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과거 필리핀에서 미국은 적지 않은 액수의 기지 사용료를 매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로 매년 20억달러 가량(1987년의 경우 19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비를 받고 있으며 계속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의 청산을 위해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개폐고 정당한 기지사용료를 지불할 용의는 없으신 지 미국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6. 지난 시기 미군이 한국군의 통수권을 장악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개편되는 등 몇가지 주목할만한 조처들이 뒤따랐으나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주요 군사전략적인 권리를 미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7. 「헤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내에 있는 2462번지에는 주한 핵계획 작전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갖는 그 어떤 조사나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내에 있는 여러 시설 중 2462번지의 건물은 지금 어떤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 지난해 동두천의 윤금이 여인이 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도 주한 미육군 2사단 소속 존 로저 병장이 무고한 부녀자 김국혜씨(51세)를 폭행(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미군 주둔 수십년 간 이러한 사건은 사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미군 만행을 뿌리뽑기 위한 미국측의 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상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4 삼우빌딩 301호

▶ 전화: 747 - 4362 FAX: 747 - 4363

1993년 7월 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성 임 의 장 이 천 직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보내는 공개서한

수신 : 클린턴 미국 대통령 귀하
발신 : 주한미군의 윤금이지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윤금이지 사건 및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서한

다시는 이땅에 고 윤금이지처럼 주한미군에 의하여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염원하는 사천만 한국국민의 의지를 모아 이 서한을 보냅니다.

작년 10월 28일 귀국 군대 제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윤금이지는 자궁에 물라병이 박히고 직장까지 우산이 27센치 가량 찢려 있었으며 온몸이 피투성이인 알몸에는 세제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사건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이땅에 주둔한다는 귀국 군대의 병사에 의하여 저질러졌으며 그동안 한국내에서 수도 없이 저질러진 귀국 군대의 범죄와 함께 다시한번 우리국민을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이와같은 미군들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주요 정당과 여성, 종교, 학생, 노동자, 농민단체를 포함한 각 계의 50여개 단체가 모여 "주한미군의 윤금이지 살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윤금이 공대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윤금이 공대위는 그동안 기자회견, 한국검찰과 법무부 방문, 집회,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번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살해미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우리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귀국내의 양심있는 인사와 단체들도 뜨거운 공감과 연대의 뜻을 보내주었습니다. 미군범죄 근절에

대한 윤금이 공대위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로 1심 공판에서 사건의 실체가 낱알이 밝혀지고 살해미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법정에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만큼 당연히 귀국에서 귀국의 대사가 한국국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미군범죄 근절책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귀국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귀국 대사관을 공식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한에서

첫째,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대사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어린 공개적 사과를 할 것과

둘째, 윤금이지 가족에게 귀국 차원에서 충분히 배상할 것

셋째, 윤금이지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측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당연히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국의 대사관측은 우리가 제시한 일정을 훨씬 넘긴 이후야 한 미 두 나라가 한 미 행정협정에 의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 우리의 요구사항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답변을 보내와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귀국의 대사관측과 아무런 실익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귀하에게 직접 우리의 견해와 요구를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도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범죄는 비단 윤금이지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귀국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후 수없이 많이 저질러져 왔습니다.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여 살인, 강간, 강도, 폭력 등의 잔혹한 범죄는 물론이고 마약, 밀수, 사기, 교통사고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한국정부가 지난 88년 국회에서 밝힌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이라는 자료를 보면 1967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9,4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미군의 수는 무려 45,183명에 이르며 이는 해마다 평균 2200여명의 미군이 하루에 5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군하계는 최근 윤금이지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제 2의 윤금이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김국혜씨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뽕뽕프 여주인 김국혜씨(51세)가 팬티와 팬티스타킹이 벗겨지고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김국혜씨는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이 돌아온 다해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경찰의 긴급한 수사에 의해 미 2사단에 배속을 받은 살로이.존.로저 병장이 체포되었고, 그는 범행일부를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로저병장은 한국어인들은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반격할 것을 우려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무수

히 구타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저병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바닥에 흘린 피가 짓이겨져 있는 점 등의 현장상황을 볼때 그가 김씨를 강간하려다가 반항이 심하자 마구때려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목숨을 겨우 건진 것만이 다르지 사건 내용에 있어서는 제 2의 윤금이지 사건이라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국혜씨는 몇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전문대학 2년에 재학중인 딸과 고등학교 3학년의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이중 사촌 언니의 배려로 조그만 가게를 열어 하루에도 14시간 이상 열심히 일한 성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그녀의 노력 덕분에 이제 겨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려는 참에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건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군범죄가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일차적으로 귀국 군대 구성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964년 주한미군 군목 엄스트. W. 카스튼씨는 주한미군의 90%가 불량분자이고 성병환자, 마약 흡연자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줄어들지 않는 미군범죄의 발생 건수에 비추어 볼때 미군의 자질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귀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이른바 한미 행정협정이 심히 불평등한 것도 범죄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국 군대 구성원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범죄가 발생하였을시는 귀국의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즉각적으로 책임있는 사과와 더불어 조치를 밝혀야 할것입니다. 미군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귀국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귀국 군대의 병사들에게 한국인을 상대로한 범죄는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것입니다.

만약 귀국이 이러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귀국이 자유수호를 말하는 것은 허울만 좋은 빈말이거나 귀국만을 위한 자유수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국만을 위해 자유수호를 외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나,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자존심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주권국가이고 우리민족은 민족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간직하고 민족적 존엄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더 이상 귀국 군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 한국국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이하의 미군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주한미군범죄가 더 이상 방지되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김국혜씨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5월 29일 01시에 서울 서초동에서 우리나라 여성 김국혜씨(51세)가 주한미군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속옷 등을 볼때 강간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저항불능의 여성을 흉기 등으로 수십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발로 얼굴을 짓밟는 등 그 잔인한 수법이 미군범죄의 전형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선 이번 사건이 윤금이지 사건의 1심절차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한 분노와 허탈감마저 느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범인은 처음 한국으로 배속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한 첫날 이번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윤금이지 사건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미국과 군당국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윤금이지 살해범인 케네스 마클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미국과 군당국의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미군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금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이러한 미국과 군당국의 무책임한 자세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참혹한 미군범죄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미군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신속하고도 엄중한 처리를 할것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이번 폭행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에서 기민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있고 이분은 이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집안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일하던 분이다.

범인은 서초경찰서의 수사 끝에 미군 CID의 도움을 받아 바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행정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측에서 신병인도를 해갔고 현재 범인은 평택교도소(미군)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서초경찰서의 기초수사가 매우 잘 진행되었고 증거품도 철저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담당검사는 윤금이지 살해사건을 맡았던 윤정석 검사이다.

우리는 이제 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통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귀하를 비롯한 귀국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하여 윤금이지 사건이나 김국해씨 폭행사건과 같이 또다시 미군범죄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귀하가 미군의 통수권자로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우리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속되는 미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기취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며 미군기지 주변의 시민들과 미군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군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양국간에 더이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항의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1993년 6월 8일

주한미군의 윤금이지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찬국(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박순금(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회장)

전우섭(윤금이지 살해사건 동두천대책위 공동의장)

문요안나(메리놀 수녀회, 막달레나의 집 원장)

김국혜씨 폭행사건의 개요

1993년 5월 29일 새벽 또다시 미군에 의해 한국여성이 피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살로이.존.로저 병장(이하 존)으로 28일 한국에 처음 전입한 날 밤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미군이 한국으로 처음 전입하는 날은 바로 부대로 들어가지 않고 미8군 지정호텔(크라운호텔, 삼정호텔 등)에서 하루밤 자면서 휴식을 한다. 이날도 삼정호텔에는 35명의 전입된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방별 2명씩 숙박하고 있었다. 존은 620호실에 묵고 있었다.

사건은 29일 새벽 12시30분경에 서울 서초구 삼정호텔 뒤편에 있는 퇴원호프에서 일어났다. 이 집 주인 김국혜씨(51세)가 존에게 맞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짓이겨져 있었고, 머리뼈가 파손되어 (뇌 골절상) 출혈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존은 주로 레이드통(바퀴벌레 약)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데 사용했고 얼굴은 주로 발로 걷어차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발견 당시 김국혜씨의 하의 속옷(팬티, 팬티스타킹)이 벗겨진 채로 실신해 있어 경찰은 강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김씨가 반항하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범인은 폭행만 시인할 뿐 강간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 부인하고 있다. 또한 50세가 넘는 여인을, 힘없이 쓰러졌는데도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발로 걷어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여성들은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신을 때려눕힐까봐 겁이 나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혹시 총을 가지고와서 자신을 쏘지나 않을까 해서였다고 한다. (서초경찰서 수사반장 진술 참조)

김국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3시간이나 지난 29일 낮 1시30분경에야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 거의 죽었는줄 알았지만 곧바로 영등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다.

김국혜씨는 남편이 죽고 두자녀(아들-고3, 딸-전문대2)와 같이 어렵게 살고 있던 중 주위 친척의 도움으로 이곳에 가게를 열어 운영했었다. 이 가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자녀들은 부천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분은 이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집안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일하던 분이다.

범인은 서초경찰서의 수사 끝에 미군 CID의 도움을 받아 바로 체포할 수 있었지만 행정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측에서 신병인도를 해갔고 현재 범인은 평택교도소(미군)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는 서초경찰서의 기초수사가 매우 잘 진행되었고 증거품도 철저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담당검사는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맡았던 윤정석 검사이다.

한국여성을 무장미 짓밟는 주한미군범죄가 더 이상 방지되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의 김국혜씨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5월 29일 01시에 서울 서초동에서 우리나라 여성 김국혜씨(51세)가 주한미군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하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속옷 등을 볼때 강간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은 저항불능의 여성을 흉기 등으로 수십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발로 얼굴을 짓밟는 등 그 잔인한 수법이 미군범죄의 전형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선 이번 사건이 윤금이지 사건의 1심절차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한 분노와 허탈감마저 느낀다. 더우기 이번 사건의 범인은 처음 한국으로 배속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한 첫날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윤금이지 사건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미국과 군당국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윤금이지 살해범인 케네스 마클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미국과 군당국의 책임있는 공개사과와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미군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요구에 대하여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금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이러한 미국과 군당국의 무책임한 자세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참혹한 미군범죄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미군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신속하고도 엄중한 처리를 할것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이번 폭행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에서 기민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미군범죄의 발생시 그 초동단계에서 현장을 보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윤금이지 사건의 경우에서 절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본다. 경찰수사단계가 원만하다 하더라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미군범죄에 대한 척결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이와 유사한 미군범죄는 또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땅에 미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하여 미군범죄척결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라.
2. 미국과 군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 사과하라.
3. 미국과 군당국은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범인이 경찰조사와정에서 강간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5. 미국과 한국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즉각 개정하라.
6. 미국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배상을 하라.

1993년 5월 31일

주한미군의 윤금이지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유계혜지 실종사건의 개요

유계혜지는 송의여전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도서관에서 6개월을 근무하던 중 지병이 있었던 부모님들이 두분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후 3년 동안 아침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오후에는 동생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생활을 했다. 이런 집안 사정으로 계혜지는 남자친구를 사귄 기회도 없었고, 166센티의 큰 키 때문에 한국남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고민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회복하셔서 호주에 가 있던 친한 친구의 권유로 호주에 갈 계획을 세우고 영어공부를 시작하였다. 계혜지는 이태원의 회화씨클에 가입해서 영어회화를 배웠는데, 그곳의 선생이었던 미군부대 군무원으로부터 '항공기 설계 군무원'이라는 '다니엘 존 베리'를 소개받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후 다니엘은 결혼하겠다고 계혜지 집앞에서 12시간 이상을 기다리곤 했지만 계혜지는 결혼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 집앞에서 기다리곤 해서 보기 딱해하던 어머니의 중재로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결국은 87년 1월에 결혼을 하였다.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며 첫째 딸 케이시(Kacy-현재 5살)를 낳았고 6개월 후인 88년 5월에 미국으로 들어갔다. 계혜지가 처음 간 지역은 미저리였다. 미저리에서의 계혜지의 생활은 가족과의 전화통화나 편지, 그리고 미저리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김계복(여)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에 가서보니 다니엘은 군무원도 아니고 항공기설계사도 아닌 미육군의 중사(E5)였고 맡은 일은 공군부대에 있는 신병파견소에서 신병수송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혜지는 다니엘이 고아로 태어나 입양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코카인 상습복용자였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룹섹스모임의 회원이기도 한 변태성욕자였다. 계혜지에게도 그룹섹스를 하러 가자고 요구했고 싫다고 하면 벽에 때밀고 구타하곤 했다. 계혜지와 성관계를 할때도 침대에 팔과 다리를 묶고 침대맡에는 야구방망이를 놓고 협박을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계혜지는 미저리에 있는 5개의 한인교회 중 한곳에 다니며 교회와 한국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계혜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그리고 부대의 친구들을 통해 계혜지를 한국의 술집에서 만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다른 한국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한번은 계혜지가 코카인복용과 자신에 대한 구타로 다니엘을 고소했고 이일로 다니엘은 E6로 강등되고 얼마동안 부대안에 연금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부대안의 친구들에 의하면 다니엘이 "내가 나가면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때 가족들은 계혜지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지만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케이시와 미국에서 낳은 로즈(Rose-현재 3살)를 남편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되었다. 평소에 다니엘은 계혜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점으로 잡고 이혼하면 절대 아이들을 계혜지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키울 생각도 없으니까 정부에 줄 것이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혼은 엄두를 못낸 듯하다. 하지만 이때부터 계혜지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남편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서류나 편지 등을 모으기 시작했고 다니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김계복씨에게 맡겼다.

그러던중 91년 3월 걸프전 발발직전 미군들이 이동할때 다니엘도 독일로 발령이 났다. 계혜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고 자택히 싸움이 잦았다. 결국 다니엘은 혼자 독일에 갔다. 이후 걸프전에 참전하게 되어 사우디로 가면서 다니엘은 계혜지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넘기고 자신의 월급도 어머니와 계혜지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혜지에게 전화로 "어머니에게 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을 뺏길테니 내가 돌아갈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라. 만약에 내가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고 딴 곳으로 나가면 가솔로 생각하겠다"고 협박했다.

계혜지는 할 수 없이 펜실바니아에 있는 시어머니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계혜지와 아이들은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 그릇을 쓰려고 해도 "네 그릇인데 왜 내가 쓰느냐"며 야단을 쳤고 차를 세워둘 때도 계혜지의 차뒤에 붙어서 세워 놓고는 절대로 비켜주지 않아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하고 때리곤 했다.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보면 남편의 월급이 입금되는 대로 시어머니가 모두 찾아가서 계혜지는 아이들 병원비조차 없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계혜지는 집을 나와 미저리의 김계복씨를 찾아갔다. 이때 김계복씨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당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절대 아이들과 헤어져 있으면 안된다"고 충고하였고 그길로 계혜지는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후 28일간 김계복씨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다니엘이 독일로 가기전 군대에서 마면해줘서 살았던 집으로 가 살려고 했는데 헌병들이 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계혜지와 아이들은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곳에서 1달간 생활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대에서 우유가루 등을 배급받아 아이들을 먹었다. 이때에도 김계복씨의 도움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계혜지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의 양육권이 넘어간 것을 소송했고 결국 양육권을 찾을 수 있었다.

다니엘이 사우디에서 돌아왔고 루지애나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91년 9월 계혜지는 루지애나주 쉬르포트 보셀시티로 이사를 갔다. 루지애나에서도 다

니엘은 게해지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게해지는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없었다. 루지애나에서의 생활도 가족들과의 전화내용, 편지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친했던 김종례씨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니엘은 걸프전에서 돌아온 후 더욱 거칠어졌다. 게해지가 가족들에게 겁에 질려 말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하루는 집에 도둑고양이가 들어왔는데 그냥 쫓아보내지 않고 게해지가 보는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한다. 그후에도 여러번 그런일이 있었다.

김종례씨가 게해지를 마지막으로 보던 92년 6월 26일 오후 6시경 김종례씨는 쇼핑갔다오다 우연히 게해지집에 들렀다. 다른때 같으면 마당으로 나와 얘기하다 들어가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현관에 서서 "큰일 났다. 일이 터졌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들어가버렸다. 김종례씨가 문틈으로 보니 까 다니엘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살벌한 얼굴표정이었다.

일주일만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한 김종례씨는 김상희씨(여, 코리안 레스토랑 지배인)와 함께 게해지집에 찾아갔다. 평소에 게해지가 김종례씨에게 "내가 만약 없어지면 찾아와 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더욱 불길했다. 게해지 집에 찾아가 보니 소년이라는 한 독일여자가 나왔다. 김종례씨가 "게해지 어디 있냐?"고 묻자 그 독일여자는 "그 여자는 지금 여기 없다.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종례씨가 "당신 누구냐?"고 하자 "나는 탁아모다"고 대답했다. 탁아모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수상쩍었던 김종례씨는 "왜 게해지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당신이 왜 미안하다고 하느냐?"고 따졌더니 그냥 "미안하다"며 들어가 버렸다.

한국에 있는 가족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교민들은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한채 보설시티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다니엘을 조사했는데 다니엘은 경찰신문에서 "6월 28일 오전 9시에 아내가 한국에 간다고 해서 공항앞에 내려왔다. 그 이후는 난 모른다." (공항에 확인한 결과 게해지는 그날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반응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를 풀어줬다. 소냐도 실종신고 이후 떠나버렸다.

게해지가 미국으로 간 직후부터 게해지와 한국의 가족들은 2-3주에 한번씩 전화연락을 했는데 6월 6일의 통화가 게해지와 마지막 통화였다. 6월 20일 전화를 했을때는 아무도 받지 않았고 6월 25일 이후에는 다니엘이 받았는데 "누나 있느냐?"고 하자 "없다, 나갔다."고 말했다. 그날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더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3일 뒤인 28일에 전화를 하니 웬 여자가 받았고 "누나 있느냐?"고 묻자 "쇼핑갔다"고 하기에 "전화해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도 연락이 없기에 며칠 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가족들은 게해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게해지와 다니엘과 다니엘의 부대로 3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다니엘의 수취거부로 모두 다시 돌아왔다.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했고 곧 필요한 수속을 밟아서 게해지의 남동생인 유익종씨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92년 8월 4일 미국에 들어갔다. 집에 찾아가 보니 다니엘이 나왔다. 유익종씨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대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익종 : "나를 알겠느냐?"

다니엘 : "안다."

유익종 : "누나 있냐?"

다니엘 : "없다. 내가 펜실바니아에서 와 보니까 애를 버려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와 이혼했다." (이 말은 경찰신문에서 한 말과 틀리다.)

유익종 : "언질을 왔는데 들어가서 얘기했으면 한다."

다니엘 : "아이들도 자고 있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때문에 안된다."

한국에서 다니엘이 유익종씨와 사귀려고 하고 좋아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유익종씨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은 김종례씨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익종씨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91년 연말에 게해지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다니엘 통장에 넣으면 주지 않을까 걱정되어 김종례씨 통장으로 5천불을 보내 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 91년 연말에 천불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라면 분명히 돈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게해지는 green card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집을 나간 것이라면 영주권을 갖고 갔을 것이다.

유익종씨는 다니엘을 심문했던 존길(John Gill)형사도 찾아갔다. 그 형사의 말은 "다니엘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니엘이 범인이라는 식의 말을 퍼뜨리는 것은 곤란하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후에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에 유익종씨는 한국 교민들과 함께 경찰서 앞에서 피켓팅을 했는데 그때 서장을 만나 "죽은게 사실이라면 시체라도 찾아달라."고 했을때는 "이제 곧 사냥철이 되는데 그때는 사냥꾼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기가 막힌 말을 들었다.

그 이후 유익종씨는 The Times와 방송사에 2주간에 걸쳐 4번 현상금을 걸고 게해지를 찾는 기사와 광고를 냈다. 그리고 주변의 술집이나 음식점들을 다니며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사진을 보여주었다. 다니엘이 정신병원에 가두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정신병원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설령 그 여자가 이곳에 있다고 해도 경찰이 입회하지 않는한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었다.

변호사도 선임하고 탐정에게도 부탁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휴스턴의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부탁해서 영사관에서 OSI로 공문을 보내 주었지만 "남자가 육군이고 여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만약 경찰에서 협조를 의뢰하면 협조하겠다."는 답장만을 받았다.

92년 10월 유익종씨가 두번째 미국에 갔을 때는 마침 다니엘이 펜실바니아로 이사하려는 중이었다. 다니엘은 10월 4일 이사를 했고 유익종씨는 이것을 미행했는데 펜실바니아의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미국교포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속이고 다니엘의 어머니집으로 전화를 해서 "다니엘의 친구인데 이사를 갔더라. 펜실바니아로 갔다는데 거기 있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을 내게 맡기고 지금 독일에 가 있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온후 다시 전화했을 때는 "난 다니엘의 소식을 모르고 루지애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게해지가 실종되고 지금까지 일년동안 게해지의 가족들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관련 단체나 가족들로부터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상태다. 비록 실종된 지 일년이 지난 후에야 알려진 일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못한 채 실종되고 죽어갔을 수많은 한국의 여성을 생각한다면 유게해지의 사건은 중요하다 할 수 밖에 없다.

〈다니엘의 유계해씨에 대한 살인, 또는 감금일 가능성〉

1. 개혜씨의 실종 이후 개혜씨가 김종례씨의 동장에 있는 4천불을 찾아가지 않은 점 ; 개혜씨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라면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친구의 동장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가족에게 연락이 없는 점 ; 미국에 간후 2-3주에 한번씩 가족들과 연락을 한 개혜씨이기 때문에 일년 동안 연락이 없다는 것은 단순 가출이 아님을 의미한다.
3. 김계복씨에게 맡긴 이혼을 대비한 자료들을 찾지 않은 점 ; 개혜씨가 이혼을 포기하고 가출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아이들을 다니엘이 데리고 있는 점 ; 아이들 때문에 다니엘과 헤어지지 못한 개혜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가출 이후에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 가출이 아님을 의미한다.
5. 김종례씨가 개혜씨를 찾아가했을 때 소냐가 미안하다고 한 점
6. 다니엘의 경찰신문에서의 대답과 유익종씨에게 한 말이 서로 다른 점
7. 다니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니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8. 다니엘의 잔인한 성품
9. 개혜씨가 영주권을 비롯한 소지품들을 갖고 가지 않은 점
10. 다니엘이 개혜씨의 가족들이 보낸 편지들을 수취 거부한 점

들어라 양키야

Handwritten musical score for the song "The Light of the World" (빛의 세계). The score is written on six staves, each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tempo is marked "Moderato"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the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Chords: Dm, F, Bb, C, Ab, Dm, F, C, Bb, A, Bb, A, Dm, Dm, Bb, C, F, Dm, Gm, F, A, Dm, Dm, Bb, C, F, Dm, Gm, F, Ab, Dm.

Lyrics:

라 랑 - - - 랑 - - - 랑 - - -
랑 - - - - - = 2기
온 방 도 성 강 에 서 피 어 오 르 는 집 달 래 광 남 을 사 위 어
기 이 러 게 곧 세 가 슌 막 으 로 그 대 둘 앞 에 섰 다 순 정
로 빛 은 그 곳 방 도 어 렵 으 로 청 략 의 불 을 지 름 가 보
라 지 목 의 피 로 매 운 보 수 로 그 대 둘 앞 에 섰 다 보

라 여 기 이 반 도 들 포 암 의 사 슬 픔 은 곳 한
 외 름 으 로 명 하 니 어 제 는 이 땅 을 가 라 돌 어
 라 양 카 아 돌 어 라 이 땅 불 노 의 항 성 을 돌 어
 라 양 카 아 돌 어 라 해 방 통 일 몸 것 을

내 사랑 한반도

박치음 곡

근질기게도 피어 라 백 두 예 서 한 라 - 까 지
 눈부시게도 피어 라 압록 예 서 섬 진 - 까 지
 척박하여도 피어 라 혁 무 기 의 그늘 아 래 도
 억울하여도 피어 라 양 키 의 군 화 발 밑 에 도
 머리 잘 린 - - 상 처 예 - 도 피 어 나 라 사 랑 - 아 내
 사 랑 - 사 랑 사 랑 한 반 - 도 내 - 사 랑 - 한 - 반 도 결국
 하 나 가 되 어 야 할 되 고 - 말 내 고향 은 한 반 - 도 내
 사 랑 - 사 랑 사 랑 한 반 도 - 내 - 사 랑 - 한 반 도
 백두산(민음연1집)

평가 모꼬지

'기지촌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평가를 잘해야 한다' 이것이 작년 기활의 평가였습니다.

'기활 평가 모꼬지는 뽕먹는 분위기다' 이것이 평가 모꼬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활동이고 그만큼 느끼는 것이 많지만 활동의 편차도 많은 것이 기활입니다. 따라서 평가를 모두 함께 하면서 부족했던 것, 좋았던 것을 정리 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모꼬지에 꼭 참가합시다!

날짜: 8월 7일-8일

장소: 조금있으면 정혜집

누가: 서여대협, 경기여대협 기활대원들이 두레방 실무자들과 함께

기지촌활동 수기 공모

기지촌활동에서 느끼는 충격과 감동을 어떻게 혼자서만 간직하겠습니까! 내가 본 기지촌의 모습과 여성들의 삶, 미국의 존재를 수기로 써 봅시다.

지금까지 기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활 수기공모전은 9월 25까지 접수 마감하구요.

10월 28일 윤금이 누이 1주기 추도식과 함께 시상식을 합니다. 좋은 작품은 책으로도 엮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